
碩士學位論文

濟州地域 國際會議產業의
가능성에 관한 研究



濟州大學校 行政大學院

行政學科 地方自治專攻

安 正 煥

碩士學位論文

濟州地域 國際會議產業의
가능성에 관한 研究

指導教授 韓 昌 榮



濟州大學校 行政大學院

行政學科 地方自治專攻

安 正 煥

1997年 7月

濟州地域 國際會議產業의 가능성에 관한 研究

指導教授 韓 昌 榮

이 論文을 行政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1997年 7月 日

濟州大學校 行政大學院
行政學科 地方自治專攻



安正煥의 行政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1997年 7月 日

委員長 _____ (인)

委 員 _____ (인)

委 員 _____ (인)

目 次

第 1 章 序 論	1
第 1 節 研究目的	1
第 2 節 研究方法 및 範圍	2
第 2 章 國際會議産業에 관한 考察	3
第 1 節 國際會議産業	3
1. 國際會議의 定義	3
2. 國際會議의 基準	4
3. 國際會議의 種類	5
4. 國際會議의 源泉	7
第 2 節 國際會議産業의 重要性, 效果 및 收益性	9
1. 國際會議産業의 重要性	9
2. 國際會議産業의 效果	10
3. 國際會議産業의 收益性	13
第 3 章 國際會議産業에 관한 脈絡과 課題	17
第 1 節 濟州道の 脈絡과 課題	17
1. 觀光産業의 現況 과 觀光開發	17
(1) 濟州地域 觀光産業의 現況	17
(2) 濟州地域 觀光開發	20
2. 觀光産業 및 開發의 課題	24
(1) 觀光産業의 課題	24
(2) 觀光開發의 課題	29
3. 濟州道 構想으로서의 國際會議産業과 컨벤션센터 建立	32
4. 컨벤션센터 建立에 대한 濟州道民의 認識과 課題	39

第 2 節 國內的 脈絡과 課題	45
1. 國內 國際會議産業 現況	45
2. 國內 國際會議産業 課題	49
第 3 節 아시아적 脈絡과 課題	53
1. 아시아국가의 國際會議産業	54
2. 아시아국가 國際會議産業의 課題	56
第 4 節 世界的 脈絡	62
1. 世界 主要 國家의 國際會議産業	63
2. 世界 主要 國家의 컨벤션센터 運營	68
3. 國際會議産業 誘致 戰略	70
第 4 章 濟州地域 國際會議産業의 可能性 摸索	76
第 1 節 21세기의 濟州道	76
1. 21세기 濟州의 모습	76
2. 濟州道民의 正體性 確立	79
第 2 節 濟州地域 國際會議産業의 可能性 摸索	80
1. 國際會議産業 都市의 모델 - 오끼나와 컨벤션센터센터	80
2. 컨벤션센터를 겸한 리조트형 호텔 建立	83
3. 接近을 強化하기 위한 方向 提示	87
4. 東北亞 海洋 실크로드의 中心築 開發	93
5. 새로운 魅力 要因 創出	94
第 5 章 結 論	96
參考文獻	99
ABSTRACT	102
附 錄	105

表 目 次

〈표1〉	컨벤션과 group bussiness 예상 원천	7
〈표2〉	컨벤션 관련산업 도표	12
〈표2-1〉	세수 효과	15
〈표2-2〉	각 산업에 대한 직접 소비액 현황	15
〈표3-1〉	관광객 및 관광 수입 현황	18
〈표3-2〉	내도 관광객 분류	18
〈표3-3〉	외국인 국적별 내도 현황	19
〈표3-4〉	내도 관광객 분류	19
〈표3-5〉	목적별 출국 현황	20
〈표3-6〉	외국인 입국 현황	20
〈표3-7〉	외국인 관광객 전국 대비 점유율	20
〈표4-1〉	종합관광단지	23
〈표4-2〉	관광지구 및 사업 시행 예정자	24
〈표5-1〉	관광 관련 업소 현황	25
〈표6-1〉	제주도내 여행사 실태	27
〈표6-2〉	내도 관광객 성장을 추세	28
〈표6-3〉	신혼부부 여행객 추세	29
〈표6-4〉	제주도내 건설중(예정)인 골프장 현황	30
〈표6-5〉	제주지역 숙박시설 현황	30
〈표6-6〉	콘도미니엄 시설 계획	31
〈표7-1〉	시·도별 국제회의 개최현황	32
〈표7-2〉	95년도 제주지역 국제회의 개최현황	33
〈표7-3〉	전국 및 제주도의 월별 국제회의 개최현황 비교	34
〈표7-4〉	95년도 제주도 및 전국 외국인 참가 규모별 현황 비교	35
〈표7-5〉	95년도 제주지역에서 개최된 국제행사	36

<표7-6> 제주지역 국제회의 시설 현황	36
<표7-7> 컨벤션센터 시설 개요	38
<표7-8> 건립 재원중 도민 부담액	38
<표7-9> 제주도의 컨벤션센터 건립 추진 일지	38
<표8-1> 제주도내 3개 일간지 ASEM 및 컨벤션 관련기사 건수	40
<표8-2> 3개 일간지 ASEM 및 컨벤션 관련 사설 및 해설 월별 보도 성향	41
<표8-3> 중간용역의 분석에 이용된 주요 예측 지표	42
<표8-4> 제주도 컨벤션센터 중간용역 수익성 분석	43
<표9> 국제행사 개최 현황	46
<표10-1> 국제회의 개최건수 및 외국인 참가 현황	47
<표10-2> 월별 국제회의 개최현황	47
<표10-3> 외국인 참가 규모별 현황	49
<표11-1> 대회의장 수용규모 및 국제회의 시설 현황	49
<표11-2> 우리나라 용역업체 현황	51
<표12-1> 아시아지역 주요국가 국제회의 개최현황	53
<표12-2> 아시아지역 주요도시 국제회의 개최현황	54
<표12-3> 아시아 주요국 컨벤션센터 시설현황	55
<표12-4> 아시아 주요 국가들의 국제회의 유치 현황	56
<표13> 국제회의 및 보상관련 전문잡지 현황	57
<표14> 세계 주요국 컨벤션센터 시설 현황	63
<표15-1> 세계 국제회의 개최건수	64
<표15-2> 세계 국제회의 개최 현황	64
<표15-3> 주요 국가 국제회의 개최 현황	65
<표15-4> 주요 도시 국제회의 개최 현황	67
<표15-5> 국제회의 참가자 규모별 현황	68
<표16-1> 컨벤션시설 운영 형태	69
<표16-2> 컨벤션시설 지원 사례	69

〈표17〉 개인별/단체별 인센티브 여행의 강점	74
〈표18-1〉 전국 및 제주도 총인구	77
〈표18-2〉 제주도의 지역 총생산(GRP) 전망	78
〈표18-3〉 사회 문화 및 생활 환경 지표	78
〈표19-1〉 오기나와 국제 항공노선	81
〈표19-2〉 오기나와 컨벤션 건설 공정	82
〈표19-3〉 오기나와 컨벤션센터 시설 현황	82
〈표20-1〉 세계의 컨벤션 개최 실적	85
〈표20-2〉 이용빈도에 따른 체인 호텔 순위	86
〈표20-3〉 호텔 선정시 레저 활동별 중요도	86



第 1 章 序 論

第 1 節 研究 目的

1960년대 이후 지난 30여년동안 지속돼 온 제주도의 개발중 관광산업 분야는 여러 가지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현재 제주도의 生存産業으로 자리매김을 해왔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 해외여행의 자유화, 1990년대의 세계화·국제화에 따른 WTO체제나 OECD 가입과 같은 內·外的 환경변화에 따라 과거 국민관광지로서의 利點(merit)은 점차 상실된다 하겠다. 즉, 이제 제주도는 세계의 모든 관광지와 경쟁해야 하는 현실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2000년 ASEM(Asia-Europe Summit Meeting) 유치운동을 始發點으로 국제회의산업 도시로 재도약해야 한다는 여론의 확산이 있었다. 이에 國際會議産業의 기반시설(infrastructure)이라 할 수 있는 컨벤션센터 건립이 중앙 정부 주도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인 제주도가 주관이 돼 추진하고 있는 바 제주도민의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국제회의산업은 국민경제 발전에의 기여도가 높은 高附加 價値 産業으로 각광받게 되면서 국제회의 시장의 규모는 매년 확장되어 가고 있다. 오늘날 각국 정부의 국제회의 전담기구에서는 국제회의산업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각종 국제회의 뿐만 아니라 전시회, 박람회, 학술세미나, 제반 문화예술행사, 스포츠행사, 외국기업체들의 인센티브 관광 (Incentive Tour)등의 유치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제주도의 경우 호텔 연회장으로서의 국제회의 장소를 빼면 컨벤션센터나 전시장 등은 없는 실정이다. 하지만 서울지역을 제외한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 지리적 조건이나 부대시설 등 충분한 여건과 매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제주도에서의 국제회의산업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흔히 "觀光産業의 꽃"이라고 불리는 國際會議는 국가홍보,관광외화 획득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바가 매우 크다. 더욱이 최근에는 회의 참가시 배우자나 자녀를 동반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서 그 경제적 파급효과는 더욱 클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본 研究는 세계 각국이 새로운 산업으로 인식하고 있는 국제회의산업에 대해 제주도적, 국내적, 아시아적, 그리고 세계적인 맥락과 과제를 통해 고찰하면서, 현재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컨벤션센터 건립 이후 국제회의산업의 발전가능성, 유치전략, 운영방안등 제주지역에서의 국제회의산업의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第 2 節 研究의 範圍 및 方法

본 研究의 연구범위로 세계 및 국내 국제회의의 개최 현황과 유치동향을 分析하여 제주지역에서의 국제회의산업의 가능성에 대하여 모색하였다. 第 2 章에서는 국제회의산업에 대한 문헌적인 考察로 국제회의산업의 원천과 국제회의의 중요성 및 수익성 그리고 국제회의의 효과에 대하여 알아 보았고, 第 3 章에서는 국제회의산업에 관한 제주도적, 국내적, 아시아적, 세계적 맥락과 과제를 통하여 국제회의산업의 현황, 컨벤션센터 운영실태, 유치활동에 대해 알아 보았다. 그리고 第 4 章에서는 제주지역에서의 국제회의산업의 가능성을 타진할 수 있는 방안으로 국제회의산업에 필요한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했다. 研究方法으로는 기존 유사 논문들의 관련부분과 중요부분을 살펴보았으며 최근의 통계자료나 동향을 수집하기 위해 관광잡지 등의 발행물이나 한국관광공사의 발행물, 그리고 제주도의 각종 통계 및 제주지역 일간지의 보도자료를 인용하였다.

第 2 章 國際會議產業에 관한 考察

第 1 節 國際會議의 意義

1. 國際會議의 定義

20세기들어 國家간의 다양한 交流와 더불어 과학기술과 교통, 통신망의 혁신적인 발달은 國家간의 심리적·지리적 거리를 상대적으로 축소시켜 놓았다. 이로 인하여 각 국가들은 政治·經濟·社會·文化·스포츠 등의 諸분야에서 공동이익과 상호협조를 위하여 빈번한 國際交流가 이루어 지고 있다. 이러한 국제교류의 한 수단이라 할 수 있는 國際會議의 역사적 배경은 로마시대의 체육행사에서 비롯 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¹⁾ 통상적으로 공인된 단체가 정기 또는 부정기적으로 主催하여 각 국에서 대표가 참가하는 會議을 의미하며 이것은 성격에 따라 국가간의 利害조정을 위한 交涉회의, 전문학술회의, 참가자의 우호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親善회의, 국제기구의 사업 결정을 위한 총회나 이사회 등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다.²⁾ 이에 반하여 영국의 로슨(Lawson)은 영국 관광성의 자료를 인용하여 國際會議은 우선 會晤를 할 수 있는 일정한 장소와 회의시간이 최소한 6시간 이상, 회의 참가자는 25명 이상이며,사전에 案件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會議의 구성요건과 함께 규정하고 있다. 코프만(Coffman)은 국제회의를 첫째, 思想, 방법, Knowhow, 의견을 교류할 목적, 둘째, 새로운 상품이나 산업개발에 대한 정보를 획득할 목적, 셋째, 조사와 研究에 착수하거나 실시할 목적 등을 갖는 사람들의 諸모임으로 定義³⁾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넓은 의미의 Covention은 Congress, Conference, 학회, 大會議, 세미나

- 1) Thomas F. Powers, Introduction to Management in the Hospitality Industry(N.Y: Jhon Wiley & Sons), 1979, P. 215.
- 2) 한국관광공사, 한국 국제회의산업 현황, 1996, P. 5.
- 3) Fred. R. Lawson, Conference, Convention and Exhibition Facilities, C. London : The Architectural Press), 1981, P. 1.
- 4) 金禹亨, "效率的인 convention 운영관리에 관한 研究",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7, p. 12.

와 같은 강습회, 연수회, 전시회, 박람회, 스포츠대회, Event, 영화회, 음악회 등을 예로 들 수 있으며 좁은 의미로서의 Convention은 회의 진행 형태에 의한 分類로서 대규모 인원이 討議 또는 회의를 진행⁴⁾시키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國際會議란 국적을 달리하는 특정 多數人이 특정의 목적을 中心으로 모여 會合하거나 지식, 정보 등을 교류하는 행사의 總體라고 定義할 수 있다.⁵⁾

이상의 여러 정의에서 볼 때 國際會議는 다음과같은 특성을 지닌다 할 수 있다.

첫째, 매스미디어에 의하여 전달 될 수 없는 情報를 체험할 수 있다. 둘째, 사람들과의 접촉에서 새로운 정보가 表출된다. 셋째, 정보 공간에서의 集sum으로 목적하는 정보를 효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다.

2. 國際會議의 基準

국제기구나 國家마다 국제회의에 대한 기준을 달리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전문 국제회의의 기구들이 채택하고 있는 국제회의의 基準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제협회연합 (Union of International Association, UIA)⁶⁾의 기준에 따르면 UIA 발간 국제기구 연감과 국제회의 캘린더에 수록되어 있는 국제기구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회의나 국제기구 國內 支部가 주최하는 국내회의 가운데 다음 4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회의로 기준을 정하고 있다.

① 전체 참가자 수가 300명 이상 ② 참가자중 외국인이 40%이상 ③ 참가국수 5개국 이상 ④ 회의기간이 3일 이상

둘째, 세계국제회의전문협회 (International Congress and Convention Association, ICCA)⁷⁾는 정기적인 회의로서 최소 4개국 이상을 순회하면서 개최되고, 참가자가 100명 이상인 회의로 기준을 삼고 있다.

5) 李勳求, "한국 國際會議産業 육성방안에 관한 研究", 紀全 여자전문대학 논문집 제10편, 1990, P. 65.

6) UIA : 歐洲중심의 각종 기구, 협회, 단체의 연맹으로서 컨벤션 정보수집기능, 각종 정보자료를 수록한 연감등 책자발간을 주요사업으로 하고 있는 학술연구협력단체이다.

7) ICCA : International Congress & Convention Association ; 국제회의전문협회로서 주요 사업은 매년 약 2주동안 국제회의전문운영 Program(MCOP : Management & Conference Organization Program)을 실시하는 국제회의전문요원 교육사업과 연간 1만건 이상의 세

셋째, 아시아 컨벤션 뷰로 협회 (Asian Association of Convention and Visitor Bureaus, AACVB)⁸⁾에 따르면 공인된 단체나 법인이 주최하는 단체회의, 학술 심포지움, 기업회의, 전시, 박람회, 인센티브 관광등 다양한 형태의 모임 가운데 전체 참가자 중 외국인이 10% 이상이고 방문객이 1박 이상을 상업적 숙박시설을 이용해야 하며, 2개 대륙 이상에서 참가하는 국제행사, 同一 대륙에서 2개국 이상이 참가하는 지역행사, 참가자 전원이 自國이 아닌 다른 나라로 가서 행사를 개최하는 國外행사로 구분하고 있다.

네째, 한국관광공사의 基準은 국제기구본부에서 주최하거나 국내단체가 주관하는 회의 가운데 참가국 수 3개국 이상, 외국인 참가자수 10명이상, 회의기간이 2일 이상인 회의로 정하고 있다. 이상의 기준으로 볼 때 국제회의는 순수한 內國人 만으로 이루어진 회의가 아닌 최소한 2개국 이상의 서로 다른 國籍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宿食을 함께 하는 모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문화체육부가 '97. 2. 27.~2. 28. 兩日 간 입법예고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에 따르면 "국제기구 또는 국제기구에 가입한 국내단체가 주관하고, 5개국 이상에서 300명 이상이 참가하며, 참가자 중 외국인이 100명 이상이고, 3일 이상 진행되는 회의" 또는 "국내외 단체나 기업이 주관하고 외국인 150명 이상이 참가하며, 2일 이상 진행되는 회의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國際會議의 種類

국제회의 종류는 개최되는 회의 성격, 형태, 규모 및 회의 진행에 따라 다양하다. 우선 회의 목적면에서 보면 교섭회의, 학술회의, 기획회의, 정기회의 등이며 형태별

계국제행사 개최정보자료(ICCA Congress Bulletin)와 국제회의 시장 동향자료를 수집·제공하는 정보처리시스템 즉 MMIS(Multinational Meetings Information System) 운영, 그리고 국제회의전문협회 칼렌다 제작, 국제회의전문지 "Tagungs Wirtschaft"의 ICCA소식란 고정 전제이다.

- 8) AACVB (Asian Assn of Convention and Visitor Bureaus) : 아시아 국제회의협의회로서 아시아지역 컨벤션 전문기구 및 관련업체의 협력체제구축을 위한 지역협력기구로 본부는 필리핀 마닐라에 소재하고 있다.

인 경우 包括的인 의미로서 Meeting 그리고 Convention, Conference, Congress, Forum, Symposium, Panel, Discussion, Workshop, Clinic, Exhibition, Trade Show 또는 Trade Fair, Incentive Travel 등으로 구분된다.

또한 성격별에서는 기업회의, 협회회의, 비영리단체회의로 분류되며 규모에 따른 분류기준은 국제회의, 지역회의, 해외개최 국내회의로 大別 된다. 이와같은 분류기준 외에도 회의기구, 참가자의 위치, 개최시기, 회의공개 여부 등의 기준에 따라 分類 된다.⁹⁾

한편 국제회의의 수요를 구성하는 主流는 협회 단체회의(Association Meeting) 와 기업단체회의(Corporate Meeting)이다. 협회단체회의를 개최하는 단체들을 예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¹⁰⁾

- ① 전문직업협회 (Professional Associations)
- ② 친목·서비스협회 (Fraternal and Service Assocations)
- ③ 과학·의학기구 (Scientific and Medical Associations)
- ④ 교육협회 (Educational Associations)
- ⑤ 인류관련단체 (Ethnic Organizations)
- ⑥ 종교단체 (Religious Organizations)
- ⑦ 노동조합단체 (Labor Unions)

반면 기업단체회의를 개최하는 각종 회의를 例示해 보면 다음과 같다.

- ① 기업회의 (Company or Coporate Meeting)
- ② 판매회의 (Sales Meeting)
- ③ 경영회의 (Management Meeting)
- ④ 연수회의 (Training Meeting)

9) 李京蘭, "국제회의의 유치와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8, pp. 5~8.

10) Frank W. Berkman, et all, Convention Management &Service, The Educational Insitute of The American Hotel & Motel Associations, 1985, pp. 9~25.

- ⑤ 주주회의 (Stockholder Meeting)
- ⑥ 유통업자 회의 (Distributors and Dealers Meeting)
- ⑦ 신상품 설명회 (New Products Presentations)
- ⑧ 인센티브 회의 (Incentive Meeting)
- ⑨ 전시회 (Exhibitions and Trade Shows)

이러한 협회단체회의와 기업단체회의는 각기 특유한 성격과 회의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국제회의를 유치하는 입장에서는 이들 단체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회의 개최를 위한 요구 조건들을 충분히 충족 시킬 수 있어야 한다.¹¹⁾

4. 國際會議의 源泉

다양한 목적과 성격을 내포하고 있는 오늘날의 컨벤션과 그룹관광단체 고객의 원천적인 범위를 구분 해 보면 각종 협회, 친목단체, 기업체, 非營利단체, 보험단체로 大別할 수 있다.

〈표1〉 컨벤션과 group business의 豫想源泉

예상고객의 종류	예상고객의 원천
협 회	업종별 협회 전문과학협회 향군협회 교육협회 기술협회
친 목 단 체	전문직업이나 업계 이외의 친목을 위한 단체
기 업 체	영업회의 신상품 개발회의 판촉전략회의 교육 및 훈련 인센티브 여행
비 영 리 단 체	노동조합 기금모금단체 종교단체 재단 양육기관
보 험 단 체	교육과 판매기법의 워크샵 인센티브 여행단

자료 : Milton T. Astroff : James R. Abbey, Convention Sales and Services(서울 : Wm. C.Brown Company, 1978), 김창동, 호텔 산업육성을 위한 컨벤션유치방안에 관한 연구,(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학위논문),1987, p. 65에서 재 인용.

11) 崔泰光, “지역발전과 컨벤션 도시화 전략”, 경원대학교, 경관, 제3호, 1989, p. 11.

위 표에서 나타 나듯이 예상 고객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가. 협회(association)

국제적인 협회는 가장 규모 있고 확실한 컨벤션 주최자라 할 수 있으며 그 규모와 성적이 매우 다양하고 새로운 주제에 대한 관심 고조와 전문화의 深化로 협회 數 또한 계속 증가 추세에 있다. 여기에는 전문과학협회(professional & scientific associations), 향군협회(veterans and military associations), 기술협회(technical societies) 등이 있고, 업종별 협회(trade associations)는 회원이 주로 간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컨벤션 비즈니스 시장에 아주 중요하며 대개 전시회를 수반하게 된다. 특히 교육협회(educational associations)의 경우 초·중·고 교사, 대학의 교수 및 학문과 관계가 있는 사람들은 모두 컨벤션의 源泉이 된다.

나. 친목단체(fraternal organizations)

전문업체나 업계 이외에 親睦을 위한 단체도 그들 나름의 행사를 갖게 되는데 이들 단체는 각종 同好人 클럽 등의 증가와 여름기간에 주로 컨벤션을 개최하고 있어 역시 중요한 시장이 된다.

다. 기업체(corporate organizations)

오늘날의 기업은 內部 사원에서 경영층에 이르기까지 의사소통 및 결정과정을 중요시 여기고 있는데 이러한 의사체계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회의(meeting)행사가 강조되고 있다. 이와 관련되는 것으로 경영자의 판촉 전략회의, 신상품 개발 기념식, 교육훈련, 그리고 인센티브 여행등이 있는데 이러한 회합은 협회의 그것들보다 소규모 이지만 개최빈도가 잦기 때문에 호텔 경영 측면에서는 매우 潛在性이 있는 시장이 된다. 특히 인센티브 관광의 경우 현대기업들이 직원들의 士氣진작을 위해 費用보다는 投資 효율성에 더 비중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 발전 가능성이 至大하다.

라. 비영리단체(nonprofit organizations)

노동조합, 기금모금단체, 재단, 양육기관, 종교단체, 그리고 정부기관(governmental

agencies)등이 이에 포함되며 우리나라의 경우 歐美 선진국에 비해 협회나 기업체의 경우보다 컨벤션 활동이 미약한 상태이다. 그러나 경제수준의 성장과 함께 국민의 의식이 高揚되고 복지활동 영역이 확대되어 이 조직의 구조적 격상과 폭넓은 범위의 활동이 예상되고 있다.

마. 보험단체(insurance groups)

보험회사의 경우 대부분이 인센티브 여행을 실시하게 되며 여기에는 교육 및 판매 기업의 워크숍(Workshop)을 계획하게 된다. 때문에 이들 회사의 회의 기획자(meeting planner)들은 호텔사업에 있어 중요한 촉진 활동 대상이 된다.

第 2 節 國際會議產業의 重要性, 效果 및 收益性

1. 國際會議產業의 重要性

현대사회는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른 노동시간의 단축, 교통수단의 발달, 또한 소득의 증대 등으로 인하여 국내관광 뿐만 아니라 국제관광도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¹²⁾

특히 各國에서는 관광사업이 경제적인 효과와 더불어 사회·문화적인 효과도 크기 때문에 국가경제발전의 주요수단으로 인식함에 따라 戰略産業으로 지정하여 육성 발전시켜 나가고 있음은 周知의 사실이다. 이와 더불어 오늘날 세계는 정치, 경제, 문화 등 題分野가 복잡·다양해져감에 따라 국제사회에서의 공존이란 命題앞에 국제협력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정보교류의 場을 마련하고 있다.¹³⁾ 이러한 정보교류의 場에서 대표적인 모임이 國際會議(convention)이며 국제회의나 각종 대회는 그 자체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參加者들은 참가목적외의 행동을 추구하게 되는데 會議前後(Pre-convention Tour & Post-convention Tour) 兼目的 관광을 행하는 것이다. 따라

12) 桶渡收入, 宿泊觀光旅行の時系列的 變化, II, 月刊觀光, 日本觀光協會 Vol 5, pp. 46~49.

13) 李勳求, 前略論文, p. 63.

서 국제회의의 개최는 국제관광객의 유치효과와 함께 國際親善, 國威宣揚, 문화교류, 고용증대 및 세계평화 유지에 이바지하게 되는 중요성을 띠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회의와 관광이 서로 接木되어 하나의 “産業”으로 정착하게 되었다. 그런가 하면 國際會議産業은 그 성격상 부대시설에서 부터 행사 진행에 이르기 까지 高度의 전문성이 요구 되며 국제회의에 관한 종합적 식견을 가진 전문 인력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국제회의의 부문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등 각 분야에서 人的交流가 확대되어 감에 따라 하나의 독립된 영역을 형성하여 전문성이 높아 지고 있으며 國內·外에서 개최되는 각종 행사와 국제회의는 단순한 회의로서의 意味보다도 이에 부수되는 파급효과가 매우 크므로 이에 대한 관심도가 더욱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¹⁴⁾

歐美 선진국들은 이미 1950年代에 국제회의산업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育成시킨 결과 세계의 국제회의를 주도하고 있는 실정이나, 우리나라에서는 1979년 韓國觀光公社內 국제회의부를 설치하여 국제회의와 행사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각종 資料를 교환하여 보다 많은 국제회의의 誘致에 노력하고 있다.

이처럼 國際會議産業은 일반 관광객에 비해 外貨 소비액이 많고 회의 참석자들이 홍보에 많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점과 많은 人的用役을 필요로 함에 따른 대규모 신규 고용 창출에 큰 역할을 한다는 點에서 各國이 많은 관심을 표명하기 때문에 국제회의산업이 重要視되고 있는 것이다.

2. 國際會議産業의 效果

오늘날 국제회의산업은 곧 관광산업을 연상할 만큼 모임의 主題 못지않게 참가자들은 주최국의 문화, 역사, 풍물 등에도 지대한 關心을 보여 주고 있다. 이처럼 국제회의가 觀光측면에서 중요하게 인식 하게된 것은 제 2차 세계대전 戰後 급증하고 있는 과학, 기술산업의 발달등으로 인해 각종 비즈니스 미팅(Business Meeting)의 增加와

14) 김규현, “국제회의산업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창원전문대학 논문집, 1989, P. 141.

더불어 새로운 정보를 얻고자 하는 노력에서 발전¹⁵⁾되었다. 또한 國際會議에 참가하는 방문객들은 참가 목적 이외에도 즐거운 時間을 가지려고 하고, 家族 또는 隨行員을 同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主催側에서는 會議前後의 여행(Pre-Convention Tour & Post-Convention Tour)을 주도하게 되고 自國의 홍보 및 선전의 일환으로서 관광을 실시하게 되었다.

文化觀光의 한 分野로 볼 수 있는 컨벤션은 오늘날 學術, 文化, 宗教, 스포츠 교류 및 産業의 발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先進國일수록 각종 회의, 문화행사의 需要는 急増하고 있으며, 회의를 전문적으로 주관하고 전문적 指導, 業務를 맡는 새로운 業種인 國際會議産業(Convention Industry)이 등장하였다.¹⁶⁾

國際會議는 그 자체가 觀光商品으로 價値를 지닐 뿐만 아니라 觀光振興發展을 위해 대규모 觀光客 유치를 誘發시킴으로서 PCO(Professional Convention Organizer), 호텔, 여행사, 항공사, 쇼핑 등 관광관련업체들에게 경제적인 需要創出과 利益을 안겨줌과 同時에 관광의 기본이념인 世界平和 구현에도 일익을 담당하는 중요한 산업이다.¹⁷⁾ 이처럼 高附加價値産業인 국제회의산업이 미치는 波及效果는 다음과 같다.

첫째, 心理的 側面에서의 효과이다. 국제회의에 參加하는 各國 대표들은 해당 국제회의의 내용이 참가자 자신과 밀접한 聯關性을 가지고 있어 일반관광객들과는 달리 개최국에 대해 호기심 이상의 관심을 가지게 되고, 통례상 회의 개최지는 數年前에 결정되므로 비교적 충분한 心的 준비기간을 가지고 관심사항에 대한 자료나 情報를 수집하게 되어, 이들을 통한 효과적인 개최국의 이미지 浮刻이 용이하다.¹⁸⁾ 또한 국제회의에 참석한 후 諸般事項을 주위의 동료, 친지, 관련단체, 주요 人事들과의 접촉시에 議論함으로써 간접적인 홍보효과도 가져온다.

둘째, 社會的 側面에서의 효과이다. 각종 국제회의의 개최되는 頻度가 증가함에 따

15) 金榮駿, “國際觀光振興을 위한 國際會議産業의 位相定立”, 1990, P. 81.

16) 建設交通部, 韓國觀光公社, 觀光動向에 關한 年次報告書, 1985, P. 125.

17) 朴忠熙, 金相式, “88올림픽 이후 國際會議産業의 育成方案”, 韓國觀光協會, 觀光學 研究, 第 12 號, 1988, P. 37.

18) 韓國觀光公社, 前掲 書, P. 15.

라, 각 關聯分野의 국제화 내지 질적향상은 물론 일반 국민의 자부심 및 의식수준 向上을 꾀할 수 있고, 아울러 각종 시설물 정비, 교통망 확충, 환경 및 조경 개선, 고용증대, 항공, 항만시설 정비, 신상품 개발등 일반사회의 발전에 광범위한 波及效果를 가져올 수 있다.¹⁹⁾ 또 주최국으로서 任員選任 및 의사결정 참여등 開催國의 권익신장 및 이익옹호가 가능하다 하겠다.

셋째, 經濟的 側面에서의 효과이다. 國際會議은 한 번 주최에 많은 참가자가 모여 그들이 會議場, 宿泊, 運送 등 관련사항에 대한 消費가 많게 되므로 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을 주게 되며 또한 일반관광객들의 체제일수는 통상 4박5일로 그나마도 經由地로 선택되는 일이 많이 있으나, 國際會議 참가자들의 경우에는 개최국이 최종 目的地(Destination)가 되기 때문에 滞在日數가 통상 8일 이상이 되고 이에 따른 外貨 消費額은 일반관광객의 3배 이상이 되며 대규모 국제회의 참가자들로 부터의 外貨獲得은 경제적 측면에서 막대한 乘數 效果를 가져 온다.²⁰⁾

또한 국제회의와 관련된 산업, 즉, 국제회의서비스, 宿泊, 飲食遊興業, 運送 등을 육성시키는 效果를 가져오고 있다. 다음의<표2>은 국제회의와 관련된 사업의 면모와

<표2> 컨벤션 관련산업 도표

컨벤션 서비스	컨벤션 구성자, 통역 및 번역, 숙박, 인쇄, 출판, 사진복사업, 전시업, 장식업, Rent, 사무기기, 오디오기기, 식물, 경비회사, 청소회사, 전기공사, 배관공사, 광고대리점, DM대행점, 문구, 기념품, 화원
회의 · 숙박 · 음식	회의장, 전시장, 견본시장, 호텔, 요정, 식당, 급식산업, 다점, Bar, 스포츠센터, 극장, 문화시설, 캐이터링, 조주업
운 송	여행대리점, 항공회사, 철도, 선박회사, 버스, 택시, 트럭, 통관업, 창고업
관 광	관광시설, 오락시설, 유원지, 문화시설, 미술관, 박물관, 동식물원, 예술, 연극, 영화, 음악회
기 타	은행, 병원, 방송국, 전신전화,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잡지

자료 : 김충호, "관광도시 형성을 위한 컨벤션 유치방안", 경기대학교, 사회과학편, 제 17집, 1985, 12, P. 473.

19) 국제관광협회, 일본 국제회의준비の手引, 1995년, pp. 1~2.

20) 한국관광공사, 상계서, p. 15.

파급효과를 잘 보여주고 있다.

넷째, 國家弘報的 側面에서의 효과이다. 국제회의는 그 규모나 성격면에서 통상 수십개국의 대표들이 대거 참여하므로 개최국의 홍보를 전세계로 擴散할 수 있는가 하면, 국제회의 참가자는 각 分野에 있어 影響力있는 고위 지도급 人士들이기 때문에 개최국의 국제지위 향상, 문화교류, 민간차원의 외교, 나아가서는 국제외교차원에서 도 弘報효과를 거둘 수 있다.²¹⁾

특히 회의 개최지가 수년전에 결정되어 참가하는 각국 대표들은 개최국에 관한 자료나 정보를 사전에 蒐集하게 되며 總會 前後觀光(Pre & Post Tour)를 통해 개최국 고유의 문화, 전통, 풍습 등을 알게 되므로 이를 잘 이용한다면 개최국의 관광홍보에 큰 효과를 보게 된다. 그리하여 일단 개최국을 다녀간 사람들은 진정한 친우, 이웃으로서 바른 정보를 전달하는 親善使節(goodwill Ambassador)로서의 효과가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²²⁾ 이외에도 國際會議를 유치함으로써 派生되는 諸효과로서는 ① 情報蒐集·情報交換의 기회 ② 도시의 弘報 ③ 지역에서의 經濟的 效果 ④ 지역주민의 居住環境의 整備效果가 있다.²³⁾

이상과 같이 국제회의 산업은 관광진흥 발전을 爲한 綜合産業으로서 대규모 觀光客 유치를 誘發시키고 觀光關聯業體들에게 經濟乘數 效果 창출과 이익을 가져다 주는 同時에 관광의 基本理念인 世界平和 구현에 活力이 되는 중요한 산업이다.

3. 國際會議産業의 收益性

국제회의 분야가 하나의 산업으로 가장 먼저 정착한 곳은 유럽지역이다.

국제기구본부의 65%가 소재하고 있는 유럽은 전세계 국제회의의 약60%를 개최하는 등 세계 컨벤션산업의 중심지가 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컨벤션산업이 高附加價値

21) 李勳求, 전계논문, p. 69.

22) John D. Hunt, The Seoul Olympics : Approaches to Tourism Development and Promotion, "Image of Korea and its Neighboring Countries, 韓國觀光公社, 1985. P. 128.

23) 韓國觀光公社, op. cit., pp. 18~19.

의 신중사업으로 부상함에 따라 세계 각국은 弘報활동을 강화하고 컨벤션 센터를 건립하는 등 自國으로의 국제회의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특히 아시아지역 국가들은 국제회의 뿐만 아니라 MICE(Meeting, Incentive, Convention, Exhibition)라 하여 같은 범주에 속하는 각국 단체나 외국기업들의 해외 개최회의, 인센티브 관광, 전시·박람회 등의 유치에도 전력을 기울이고 있어 새로운 컨벤션 개최지역으로 급격히 부상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국력신장 및 국제화에 따라 여러 국가들과 각 분야에서의 교류확대와 항공망, 숙박시설 및 회의시설의 확충, 컴퓨터 예약시스템 등 國際會議 관련산업의 발전으로 국제회의를 비롯한 전시회, 이벤트등 국제행사의 개최건수가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고부가가치산업으로 대두된 국제회의산업의 收益性을 보면 먼저, 주최자의 입장에서 보면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무대가 되는 것이다. 국제회의는 국·내외 관계자들이 각자의 지식·정보·연구결과를 가지고 모여 이를 발표하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므로 궁극적으로는 주최국의 학술 진흥, 산업발전에 기여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국제회의산업은 종합적인 서비스 산업으로 회의장, 숙박시설, 음식점, 운송업체, 관광업체 등을 비롯한 사회 각 산업분야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매우 크다 하겠다. 즉 국제회의는 개최지에 소득증대, 고용증대, 세수증대를 가져다 주어 경제전반의 활성화에 기여하게 되는 것이다.

뿐만아니라 국제회의는 외국인과의 직접적인 교류를 통한 개최지 주민의 국제감각 함양 등 국제화의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국제회의 유치, 기획, 운영의 반복은 개최지의 기반시설을 확충시키고 다양한 기능을 향상 시킬 뿐만 아니라 개최지의 이미지를 향상시키고 국제무대에서의 위상을 제고하는 데도 이바지 한다 하겠다. 실제로 미국의 컨벤션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기구로서 미국 워싱턴 D.C에 소재한 CLC(Convention Liaison Council)가 1994년도 미국에서의 컨벤션 개최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 하였다.

CLC 는 Conventions, Exposions, Meetings, Incentive Travels 참가자, 단체, 전시자, 기업이 각종 세금을 제외하고 직접 지출한 총액인 직접 소비액과 직접 소비액에 의

해 창출된 일자리수 (Full-time job 기준)인 직접 고용증대효과와 직접 소비액으로부터 발생하는 연방세, 주세, 지방세의 합산액이라 할 수 있는 직접 세수를 조사 분석하였다. 이 조사에 의하면 1994년 한해동안의 직접 소비액은 828억\$인데 1993년도 GDP에 대한 기여도는 807억\$로 산업 부문별 순위에서 22위를 차지하였으며 157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직접 고용 증대 효과를 얻었다. 그리고 123억\$의 직접 세수 효과를 나타냈다.

〈표2-1〉 세수효과

구 분	1991년	1994년	증가율(%)	비고
직접소비액	U\$ 759억	U\$ 828억	9.5	
직접고용증대효과	U\$ 154만개	U\$ 157만개	2.0	
직접세수효과	U\$ 105억	U\$ 123억		
-연방세	U\$ 58억	U\$ 71억		
-주 세	U\$ 30억	U\$ 33억		
-지방세	U\$ 17억	U\$ 19억		

* 1위 : 부동산업 2위 : 소매업 3위 : 도매업 4위 : 건강서비스업 ---
 22위 : 컨벤션산업 23위 : 출판업 24위 : 운송·보관업
 자료 : 국제회의산업의 수익성, 한국관광공사, 1996.

위와같은 내용을 세부적으로 구성하면 다음과 같다

〈표2-2〉 각 산업에 대한 직접 소비액 현황

(단위 : U\$)

산 업 별	'94년 직접소비액	구성비 (%)	'94년 부문별 직접 소비액		
			Convention & Expositions	Meeting	Incentive Travel
호텔 및 회의장업	268.9	32.5	184.0	74.1	10.8
항 공 업	192.6	23.3	100.1	84.6	7.9
식 당 업	99.8	12.1	56.5	38.1	5.2
육 상 교 통 업	72.0	8.6	47.0	24.4	0.6
소 매 업	55.5	6.7	36.1	18.1	1.3
비즈니스서비스업	54.9	6.6	54.9	-	-

(단위 : U\$)

산 업 별	'94년 직접소비액	구성비 (%)	'94년 부문별 직접 소비액		
			Convention& Expositions	Meeting	Incentive Travel
유 흥 업	37.6	4.5	12.5	24.6	0.5
장 비 임 대 업	5.2	0.6	5.2	-	-
유 램 선 업	2.9	0.4	-	-	2.9
판 촉 업	2.3	0.3	-	-	2.3
광 고 업	2.1	0.3	2.1	-	-
부 대 경 비	24.3	2.9	24.3	-	-
기 타	10.1	1.2	-	6.5	3.6
계	828.3	100	-	270.4	35.1

자료 : 국제회의산업의 수익성, 한국관광공사, 1996.

第 3 章 國際會議產業에 관한 脈絡과 課題

第 1 節 濟州道の 脈絡과 課題

1. 觀光產業의 現況과 觀光開發

(1) 제주지역 觀光산업 현황

제주도의 산업중 근간이 되는 것은 1차 산업과 3차 산업이라 할 수 있다.

우선 산업별 취업자 수를 보더라도 1995년말 현재 전체 취업자 수 25만7천명 가운데 1차 산업 종사자는 8만1천명(31.5%), 3차 산업 종사자는 16만3천명(63.4%)으로 전체 취업자 중 무려 94.9%가 1차 산업과 3차 산업에 종사하고 있다. 이 가운데 3차 산업의 한분야인 觀光收入은 1996년말 현재 1조179억4,500만원으로 제주도내 觀光수입이 사상 처음으로 1조원을 돌파 觀光객 1인당 평균 24만5,000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²⁴⁾

이제 觀光은 제주도의 比較優位產業으로 지역개발을 위한 유력한 수단이다. 통계상으로 봤을 때 1961년 1만천명의 觀光객이 제주를 찾아 2천3백만원의 觀光수입을 얻은 이래 30여년이 흐른 1991년의 觀光객 및 觀光수입은 3백2십만5천명에 5천1백여 억원으로 그야말로 기하급수적으로 觀光산업이 성장해 명실공히 濟州의 根幹產業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 앞서 서술했듯이 濟州의 觀光은 1961년을 기점으로 움트기 시작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과 더불어 동반 성장해 왔다. 특히 1990년대 들어서는 해외여행의 자유화현상에도 불구하고 제주지역은 국민관광지로서 꾸준한 觀光객 유치와 觀光수입증대 현상을 보였다.

24) 제주일보, 1997. 1. 20.

〈표3-1〉 관광객 및 관광수입 현황

구 분	관광객수(천명)	관광수입(억원)
1990년	2,992	4,319
1991년	3,205	5,132
1992년	3,422	7,970
1993년	3,464	8,516
1994년	3,693	8,895
1995년	3,997	9,814
1996년	4,144	10,179

자료 : 주요 행정총람, 제주도, 1997.

이같이 꾸준한 관광산업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관광객 유치는 90년대이후 전체 관광객의 10%미만으로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음을 알수 있다.

〈표3-2〉 내도 관광객 분류

(단위 : 천명)

구 분	내국인	구성비(%)	외국인	구성비(%)
1990년	2,757	91.48	235	8.52
1991년	2,929	90.62	275	9.38
1992년	3,179	92.36	243	7.64
1993년	3,187	91.28	278	8.72
1994년	3,470	93.58	223	6.42
1995년	3,775	93.53	242	6.47
1996년	3,935	94.95	209	5.05

자료 : 주요 행정총람, 제주도, 1997.

특히 외국인 관광객 가운데도 일본인 관광객이 차지하는 비율이 1995년말 현재 무려 63.11%를 차지해 아직까지 제주지역의 海外 觀光客 유치는 일본을 비롯한 동남아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이루어 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3-3〉 외국인 국적별 내도현황

구분	'90	'91	'92	'93	'94	'95	'96
계	235,073	275,371	242,276	277,359	222,442	241,884	209,253
교포	30,824	24,085	12,224	23,891	31,180	20,323	21,610
일본	140,454	181,962	161,983	189,535	156,900	152,672	128,529
미국	10,573	8,048	5,420	9,299	5,344	3,163	3,800
대만	36,290	39,739	43,033	28,668	19,587	29,471	25,778
영국	845	1,117	1,835	2,564	648	346	254
독일	886	806	1,255	1,542	535	480	462
홍콩	9,974	14,166	13,595	16,229	4,294	28,020	18,447
기타	5,227	5,448	3,231	5,631	3,954	7,409	10,373

자료 : 주요 행정총람, 제주도, 1997.

이와같이 꾸준한 관광객 유치 증가에도 불구하고 高附加價値 관광객이라 할 수 있는 외국인 관광객과 신혼부부 관광객의 감소현상은 현재 제주도의 觀光産業이 안고 있는 한 단면을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표3-4〉 내도 관광객 분류 (단위 : 명)

구분	'95	'96	증가율(%)
계	3,996,884(100%)	4,143,955(100%)	4
일반단체	771,873(21)	806,693(20)	5
수학여행	652,056(9)	443,494(11)	26
신혼부부	381,658(10)	347,588(8)	△9
개인(기타)	2,249,373(60)	2,336,927(56)	4
외국인	241,884(6)	209,253(5)	△14

자료 : 주요 행정총람, 제주도, 1997.

한편 지난 1996년도 우리나라 국민의 해외여행객은 2백여만명 으로 '95년대비 46.1%의 증가추세를 보임에 따라 향후 신혼부부 뿐만 아니라 씀씀이가 큰 내국인 관광객을 제주지역으로 유치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다.

〈표3-5〉 목적별 출국 현황(1996년도)

구분	관광	사업	천지방문	유학	취업	기타
인원	2,138,915	915,401	489,448	303,537	27,604	761,159

자료 : 법무부 출입국 관리소, 1997.

그런가하면 지난 1996년 濟州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은 우리나라 전체 입국 외국인의 5% 수준에 불과하다. 우리나라를 방문한 外國人 관광객은 지난 1993년 3백33만 1천여명, 94년 3백58만여명, 95년 3백75만3천여명, 96년 3백68만여명으로 해마다 2%에서 7%가량의 신장률을 보인 반면 제주의 入道 외국인 수는 전체 외국인 관광객수와 비교 했을 때 1993년 8.3%, 94년 6.2%, 95년 6.4%, 96년 5.6% 등 점유율이 극히 낮은 실정이다.

〈표3-6〉 외국인 입국 현황

년도	1993년	1994년	1995년	1996년
인원	3백33만1천여명	3백58만여명	3백75만3천여명	3백68만여명

자료 : 한국국제회의산업 현황, 한국관광공사, 1997.

〈표3-7〉 외국인 관광객 전국 對比 제주지역 점유율

년도	1993년	1994년	1995년	1996년
점유율	8.3%	6.2%	6.4%	5.6%

자료 : 제주일보, '97.3.12.

(2) 제주지역 관광개발

濟州道開發에 대해서는 1960년대 이전에도 국가 혹은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논의가 있었다. 그러나 본격적인 논의와 개발은 한국의 經濟開發計劃과 발맞추어 1960년대 부터 시작되었다. 제주개발계획은 綜合的인 성격의 것과 제주도내 개별지역과 개별

산업을 대상으로 한 것이 있지만 그 주요 내용은 크게 다음의 세가지로 압축될 수 있다.

첫째, 국제자유지역계획은 1963년의 자유항 설정구상을 시발로 하여 1975년 특정자유지역개발구상, 그리고 1983년의 국제자유지역조성을 중심으로 한 종합개발계획으로 계속 제기되어 왔다.

둘째, 觀光開發計劃은 제주개발을 主導해 온 분야이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제주도가 한국경제의 고도성장을 보조하기 위하여 관광산업을 分業的으로 떠 맡은 것으로, 특히 국제관광지로서의 성격이 강조된 계획들은 관광을 수출 전략산업으로 중시되고 있다.

셋째, 산업개발계획은 관광개발을 위한 補助的 성격을 띠고 있다. 한국의 경제 및 지역개발이 不均衡成長論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제주도의 산업개발도 균형적인 발전을 지향하지 않고 관광관련산업에 편중되어 육성되고 있는 것이다.²⁵⁾

요컨대, 제주개발계획은 국가주도하에 국제자유지역화를 염두에 두면서 관광산업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종합적 성격의 개발계획은 1963년 政府에 의해 "濟州道建設開發硏究會"가 설치되어 제주의 자유지역화를 구상·검토한 것이 始發이다. 그후 1964년 "제주도건설종합계획"이 수립되면서 부터 개발의 기본방향을 관광에 두고 據點開發을 지향함으로써 향후 제주도 개발의 기초를 이루게 되었다. 또한 1966년에는 濟州全域이 특정지역으로 지정·고시됨으로써 정부의 특별지원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 특정지역계획은 건설 정비의 목표를 관광지 조성,수자원개발,교통시설 확충,농업 개발,수산개발등 5개 分野에 두었는데, 이러한 목표는 제주도 기반시설을 위한 투자의 기본지침이 되고 있다. 1960년대에 관광개발은 特定地域指定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제주도를 국제관광지로 성장시키기 위한 기반조성에 중점을 두었다.

관광개발을 위한 기반조성이 계속된 1960년대의 일련의 계획들은 1973년 "濟州道 觀光綜合開發計劃"의 수립으로 한 단계가 마무리 되었다. 이 계획은 개발기본방향을

25) 이상철, "제주사회 변동론 서설", 사회과학 연구, 제8권, 제3호,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87, pp. 30~40.

관광개발의 據點化를 통한 파급효과를 提高하는 한편, 관광자원을 조화있게 개발하여 국제수준의 관광지를 조성하고, 모든 산업을 觀光主導型으로 육성·발전시킴으로써 국민소득증대와 국제경제발전에 기여하는데 두고 있다. 이 계획에 의거하여 공항과 주요 항만의 확장, 부산·목포·완도 등에 카페리 취항, 간선도로의 개설·포장·확장, 용수 및 통신 등 기반시설이 확충·정비됨으로써 당초 계획했던 目標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였으나 濟州觀光은 어느 정도의 收容能力을 갖추게 되었다. 1983년 정부는 제주도의 自由地域構想을 재추진하기 위해 "特定地域濟州道綜合開發計劃 試案"을 마련 했는데, 당시 국내의 개발여건이 불투명한데다 自由地域으로서의 발전가능성 희박, 투자효과의 불확실성 등의 이유로 최종 확정단계에서 自由地域의 도입을 보류하고 1984년 國民觀光을 기반으로 해서 국제관광지로 개발하기로 개발방향을 조정하였다. 이후 이 계획을 國土開發研究院이 전담하여 대폭 축소·수정작업을 한 것이 1985년 확정된"特定地域濟州道綜合開發計劃"이다. 종래의 여타 開發計劃과 비교해 볼 때, "特定地域濟州道綜合開發計劃"은 국가계획인 특정지역계획과 지방계획인 도건설종합계획의 2원적 계획체제 성격을 갖고 있다.

제주도개발의 先導部門(leading sector)인 관광개발은 특정지역계획에 포함되고 있으나 觀光開發計劃을 수용·지원하는 관광기반 및 생산기반시설의 확충, 생활환경개선 등의 지역개발 부문은 제주도건설종합계획에 포함되어 있어, 종전계획들이 지녔던 관광개발위주의 지역개발을 보완,사회개발과의 조화에도 상당한 관심을 두고 있다. 계획의 내용은 觀光團地·觀光地區가 濟州道 전역에 분포되고 있음에 비추어 濟州全域을 관광지화하는 것이라 하겠다. 관광개발의 핵심적 사업내용은 觀光團地·觀光地區의 개발인데 3개단지·14개 지구를 개발하고, 13개 관광지를 제주도計劃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觀光團地·觀光地區개발의 목표는 ① 관광활동의 다양화 유도 ② 사계절 관광의 정착화 ③ 장기체류형 관광지로의 전환 등 세부분으로 설정되고 있다. 그 후 1989년 "濟州道綜合開發計劃"을 재검토, 濟州道 開發을 위한 특별법의 필요성을 건의하였고, 1990년 "特定地域濟州道綜合開發計劃"을 보완하여 지표조정, 관광지구시설보완, 관광지구 추가지정등이 이루어졌다. 1991년에는 "濟州道開發特別法"이 제정되었고, 1993년에는 관광산업을 수출산업차원에서 적극 육성하기 위해

濟州道를 觀光特區로 지정하였으며, 1994년에는 "濟州道開發特別法"의 입법정신 및 제3차 국토계획의 기본목표를 수용하여 濟州道 開發의 기본방향과 비전을 제시하는 "濟州道綜合開發計劃"이 확정되었다.

21세기를 지향하는 이 계획은 지역소득의 創出 및 最大化를 비롯, 쾌적한 생활 및 복지사회구현, 개발혜택의 均衡性提高 등의 目標을 실현하기 위해 1차산업 및 관광산업의 집중육성을 통한 지역산업구조의 조정, 자연경관 및 환경보전체계의 확립, 사회간접자본 및 생활편익시설의 확충, 지역주민의 기본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생활권의 조성 및 개발혜택의 地域化를 추진전략으로 삼고 있다.

濟州道綜合開發計劃은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하여 제주도민이 主體가 되어 제주도의 향토문화를 창조적 계승 발전시키고 자연자원을 보호하며, 농업·임업·수산업·축산업등 기타의 산업을 보호 육성함과 동시에 쾌적한 생활환경 및 관광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제주도민의 복지향상에 이바지 함을 目的으로 하고 있다.

濟州道綜合開發計劃은 환경적으로 건전하고(environmentally sound) 지속 가능한 성장(sustainable development)을 기본이념으로 시장개발에 대응하는 농업의 경쟁력 확보, 관광거점확대로 국제수준의 관광지 조성, 개발과 보전이 조화된 지역 및 산업 발전, 독특한 향토문화 창달과 도민의식 선진화를 목표로 1994~2001년까지 8개년간 공공 40,061억원, 민간 42,083억원등 모두 8조2,441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같은 종합개발계획 가운데 관광분야를 살펴보면 국제수준의 관광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3개 종합관광단지과 돈내코, 만장굴, 봉개, 송악산, 묘산봉, 함덕, 남원, 용머리, 교래, 세화·송당등 10개 관광지구를 특성있게 개발하도록 하고 있다.

〈표4-1〉 종합관광단지

구 분	목 적	면 적
중 문	종합휴양단지	126만평
성 산 포	해양관광단지	37만평
표 선	민속관광단지	16만평

자료: 제주도종합개발계획, 제주도, 1996.

〈표4-2〉 관광지구 및 사업시행 예정자

구	분	목	적	면적	사업시행 예정자
돈	내	코	청소년 수련지	5만평	(주) 유 로 공 영
만	장	굴	문화위주 관광지	71만평	만 장 굴 문 화 원
봉		개	산림휴양지, 노인휴양촌	41만평	(주) 한 국 국 토 개 발
송	악	산	역사 유적 관광지	51만평	
묘	산	봉	종합레저 스포츠 시설	141만평	(주) 룯 데 건 설
합		덕	해양휴양관광지구	14만평	(주) 신 성 리 조 트 합 덕 리
남		원	영화박물관등 특수교양시설	6만평	(주) 금 호 개 발
용	머	리	화훼단지 조성	8만평	
교	래	농	어촌휴양지	15만평	(주) 교 래
세	화,	송	당온천지구	72만평	(주) 제 주 온 천
			온천종합휴양지		

자료 : 제주도 종합개발계획, 제주도, 1996.

이처럼 3개 단지 10개 관광지구를 지정, 개발 추진되고 있으나 서부권 등에 관광지가 지정되지 않아 지역 균형 발전에 장애요인으로 등장하여 지난 '95. 8. 30일 서부권 등에 신규 관광지를 지정하기 위하여 시·군 의견을 수렴한 결과 서부권을 포함한 21개의 신규 관광지를 추가, 요청 하였다. 이에 濟州道開發特別法에 의하여 공청회 등 주민 의견 수렴과 종합개발계획심의회 심의 및 도의회 등의 및 대통령의 승인 등을 거쳐 西部圈을 중심으로 신규 관광지로 추가 지정되었다.

한편 사업시행자가 결정된 관광단지 및 지구에 대해서는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하여 환경영향평가, 경관영향평가 등의 절차를 이행한 업체는 본격적인 開發을 착수 하고 있다.

2. 觀光産業 및 觀光開發의 課題

(1) 관광산업의 과제

제주관광의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여러 가지 要素중 한가지를 제기하면 제주관광의 침병 역할을 하고 있는 관광안내원 제도의 고질적인 병폐에 있다 하겠다. 제주에는 국내여행 안내원 자격증 소지자가 '97년 2월 현재 3,701명이 있으나 이들중 단지

11.5%인 355명만이 정상적인 취업으로 안내활동을 하고 있는 반면 약 100여명의 무소속 안내원이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들 관광안내원 자격이 없는 예들들어 여행사 직원, 렌트카 기사 또는 소속이 없는 관광안내종사원 자격증 소지자에게 관광행사를 委託하는데 있다. 이들은 비정상적인 코스로 안내하여 관련 업소로 부터 부당금품 또는 수수료를 收受하는 등 부실한 관광 안내를 하는데 있다. 한편 제주도의 관광 관련 업소를 보면 여행업은 289개 업체, 숙박업은 670개 업체, 이용 및 편의 시설업은 349개 업체, 그리고 교통관련업은 6,973대의 각종 교통 편의시설이 있다.

<표5-1> 관광관련 업소 현황('96년 12월현재)

1. 여행업

구 분	계	일 반	국 내	국 외	일반여행업 영업소
업체수	289	11	194	32	52

2. 이용 및 편의시설업

구 분	총 계	시설관광지	사진·비디오업	농 원	관광기념품업	승마장업	유람선업
업체수	349	12	89	34	184	18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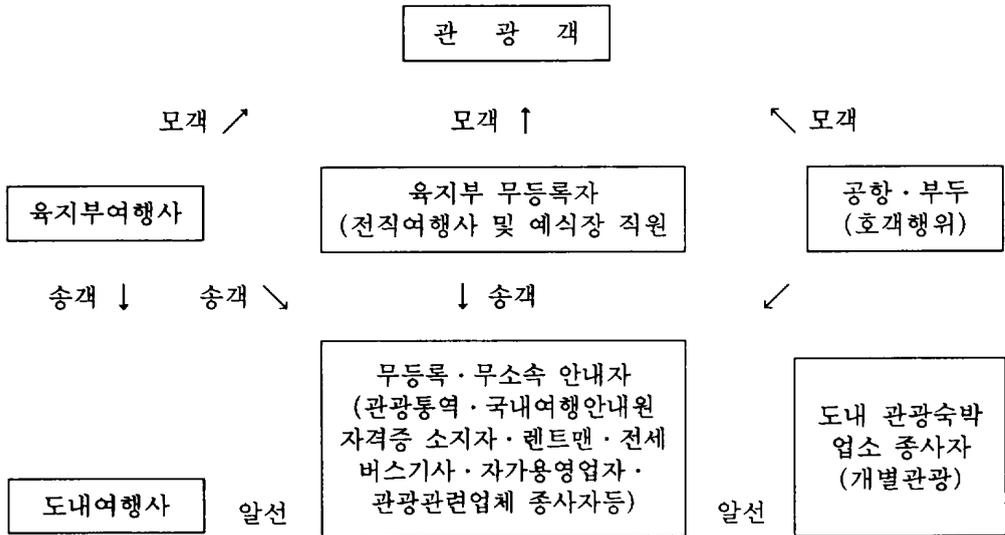
3. 교통관련업

구분	전 세 버 스		렌 트 카		개 인 택 시		법 인 택 시	
	업체	대수	업체	대수	대수	인원	업체	대수
수치	18개사	872대	17개사	2,676대	1,877대	1,877명	35개사	1,548대

자료 : 제주도 관광진흥과, 1996.

이처럼 제주도 관광의 부조리 현상은 관광산업이 광범위하고 서로간 구조적으로 連繫되어 있을 뿐 만 아니라 여행업체, 무등록(무소속) 안내원, 운전기사와 업체간의 부당 수수행위가 陰性的으로 이루어지는 등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제주관광 영업 체계도



매 개 체

안내원·운전기사·판매원·여행사·숙박업체 종사자 등을 통한 전국망 구성, 유인 ⇒ 개별 관광객을 호객 또는 특정업소 안내 (운전기사, 안내원이 관련업소로부터 수수료 수수)

* 자료 : 제주도 관광진흥과, 1996.

이밖에 濟州道 관광의 실태를 살펴보면 제주도내 여행사는 국내여행업과 일반여행업으로 나누어져 영업을 하고 있는데 연도별 旅行社 증가율을 보면 '90년이전에 75개의 여행사가 있었는데 '92년(24%), '94년(22%), '95년(26%), '96년(14%)로 계속 증가해 亂立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가 하면 '97년 2월 현재 제주도내에는 190개소의 여행사가 있는데 설립기간이 5년미만인 업체가 163개소(85%), 10년이상 업체가 3

개소(2%)이며 여행사의 종사원 고용형태도 5인이하 45개사(29%), 6~10인이하 92개사(60%), 20인이상 3개소(2%)로 제주도내 여행업체의 零細性和 亂脈상을 알 수 있다.

〈표6-1〉 제주도내 여행사 실태

1. 연도별 여행사 증가율

년 도	'90년 이전	'92년	'94년	'95년	'96년
증 가 율	75개업체	24%	22%	26%	14%

2. 설립기간별 여행사

설 립 기 간	5년미만	6년이상~10년미만	10년이상
업체수(점유율)	163개소(85%)	24개소(13%)	3개소(2%)

3. 여행사 종사원 현황

종 사 원	5인 이하	6~10인 이하	20인 이상
업체수(점유율)	45개사(29%)	92개사(60%)	3개소(2%)

4. 여행사당 관광객 유치실적

연 도	'92	'94	'95	'96
인원(백명)	4,998명	3,593명	3,052명	2,730명

자료 : 제주도 관광진흥과, 1996.

마지막으로 제주관광의 核心이라 할 수 있는 신혼부부의 관광실태를 살펴보면, 2박3일을 기준으로 정기관광상품인 경우 관광호텔 숙박을 기준으로 80만원에서 90만원인데 서울 등 육지부 여행사가 항공료, 숙박요금을 해당 업체에 일괄 납부하고 송객 수수료 각각 10%를 징수한다. 제주도의 여행사인 경우 송객 수수료 10% 공제후에 委託 운영하고 있다. 즉 제주도내 여행사는 지상비 25,000~50,000원선에서 운영하고 있다. (*렌트맨인 경우에는 지상비 전액을 무료로 위탁운영) 따라서 위탁받은 제

주도내 여행사들은 농원, 토산품, 사진, 비디오 등으로 수수료(150,000~200,000원)를 징수하면서 選擇 觀光을 실시하고 있다. 이처럼 그동안 高成長을 구가해 오던 제주 관광이 '90년을 기점으로 관광안내원의 고질적인 병폐로 인한 제주지역 이미지 훼손은 저성장 쇠퇴기로 접어든 제주지역 觀光産業 자체가 위협받고 있다 하겠다.

그동안 "개발이나 보전이나"를 놓고 도민적 역량까지 소모하면서 마련한 제주개발 특별법을 기반으로 제주 관광개발의 청사진을 마련해 사업에 착수하고 있지만 急變하는 관광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란 그리 만만치 않다. 과거 두 자리수의 고성장을 계속해 오던 제주관광이 沈滯期를 맞고 있다 하겠다. 이같은 제주 관광의 景氣는 제주도를 찾는 관광객의 증가율을 통해 알 수 있다. 지난 '81~'86년 14.5%, '86~'90년 19.2%로 두자리 이상의 높은 성장율을 보이던 것이 89년 해외여행 전면 자유화 조치 이후 성장세가 낮아지면서 급기야 '90~'93년 4.9%, '93~'95년 7.4%대로 계속 하향 곡선을 긋고 있다

〈표6-2〉 제주도를 찾는 관광객 성장률 추세

구 분	'81~'86	'86~'90	'90~'93	'93~'95
성 장 율	14.5%	19.2%	4.9%	7.4%

자료 : 주요 행정 총람, 제주도, 1996.

특히 성향별 고부가가치의 관광객인 신혼부부 여행객이나 외국인 관광객의 감소는 더욱 심하다 하겠다. 지난 91, 92년까지만 하더라도 제주를 찾은 신혼부부 관광객은 연간 53만5천명, 54만8천명을 훨씬 웃돌 정도였으나 3년전부터 내리막길로 들어서 '93년 46만3천명, '94년 42만4천명, 그리고 '95년에는 38만1천명, '96년에는 34만7천여명으로 줄어 들었다. 이처럼 "제주는 신혼여행지의 메카"라는 인식이 사라져 감을 알 수 있다.

〈표6-3〉 신혼부부 여행객 추세

구 분	'91	'92	'93	'94	'95	'96
인 원	53만5천명	54만8천명	46만3천명	42만4천명	38만1천명	34만7천명
증감율(%)		2.42△	15.51▽	8.42▽	10.14▽	9▽

자료 : 주요 행정 총람, 제주도, 1997.

이와더불어 외국인 관광객인 경우 '91년 27만5천명이던 것이 지난 '96년에는 20만9천여명 선으로 감소했으며 전체 관광객중 외국 관광객이 차지하는 비율도 '91년 8.5%에서 지난 '96년에는 5.0%대로 떨어졌다.

이상과같이 관광객의 유치목표는 초과할 지라도 實益이 없다면 제주 관광산업에 대한 근본적이 문제점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과거 20여년 이상 획일적이고 단편적으로 정형화된 관광코스과 관광상품 그리고 불친절 및 바가지관광, 관광지 제반 편의시설, 부실한 교통안내판 등과 같은 여건에 대한 點檢이 있어야 할 것이다. 세계 관광산업 성장률 9.5%, 우리나라 국민관광 성장률 17.9%, 해외여행 증가율 25.4%의 성장폭과 비교하면 제주 관광산업의 성장력은 관광시장의 치열한 경쟁 대열에서 점차 그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다.

(2) 관광개발의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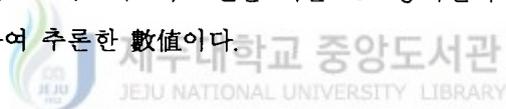
현재 제주지역은 제주도개발특별법을 근거로 관광개발이 이루어 지고 있다. 관광개발의 핵심은 민자유치를 통한 3개 관광단지 와 10개관광지구를 중심으로 이루어 지고 있는데 대부분의 관광지 개발이 滯留型을 목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다. 그러나 민자유치를 통한 제주도 관광개발의 긍정적인 측면을 떠나 문제점을 든다면 다른 지역의 관광개발과 차별성을 유지되도록 開發性格을 부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관광개발은 콘도미니엄과 골프장이 주종을 이뤄 다른 지역과 차별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중복투자와 난개발로 인한 환경 파괴 위험마저 우려된다. 골프장인 경우 현재 운영 중 인 4개의 골프장외에 오는 2000년까지 신규 9개소에 2백34홀이 증설될 것으로 예상된다.

〈표6-4〉 제주도내 건설중(예정)인 골프장 현황('97.1.20.현재)

골프장명	홀수	위치	면적	추진상황(공정율%)	사업주체
남제주CC	24	남제주군 남원읍	29만평	36%	동서산업
뉴제주CC	18	북제주군 조천읍	30만평	환경영양평가	재일교포사업가
동서CC	27	제주시 봉개동	47만평	"	동서관광
서귀포CC	36	서귀포시 색달동	54만평	사업승인임박	롯데관광
서제주CC	24	남제주군 안덕면	32만평	15%	제주개발공사
신성CC	24	북제주군 조천읍	30만평	87%	신성
제주프라자CC	27	북제주군 애월읍	31만평	환경영향평가	한화국토개발
탐라CC	27	북제주군 애월읍	48만평	"	L G 건설
핀코스CC	27	남제주군 안덕면	38만평	20%	재일교포사업가

자료 : 월간모던골프, 97년1월호, p11.

그런가 하면 숙박시설의 하나라 할 수 있는 콘도미니엄의 예에서도 나타 나듯이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의 宿泊施設 수요 전망에 따르면 가족호텔을 포함한 숙박시설은 2001년까지 2,394실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 나고 있다. 이 수치는 '95년 현재의 제주지역의 숙박시설은 670개소에 16,558실을 기준으로 용역단이 숙박시설 이용 형태를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추론한 數值이다.



〈표6-5〉 제주지역 숙박시설 현황

'95년 현재

구분	호텔		유스호스텔	콘도미니엄	여관	여인숙	계
	관광	일반					
1995년	4,692	3,253	113	216	6,207	2,092	16,558

자료: 제주도 보건위생과, 관광진흥과 통계자료, 1996.

그 이후 家族단위 관광객이 많이 내도하는 추세라서 상황이 달라졌다는 변화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1만여실에 육박하는 콘도미니엄 시설계획은 당초 예정 객실 수의 5배수에 달하는 것으로 필연적인 공급 過剩을 부를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표6-6〉 콘도미니엄 시설 계획

단 지 · 지 구	콘도객실수	단 지 · 지 구	콘도객실수
표 선 단 지	200실	오 라 지 구	400실
성 산 단 지	200실+?	강 정 지 구	200실
중 문 단 지	466실 (1단지 216실 2단지 250실)	곽 지 지 구	?
		미 천 굴 지 구	220실
송 악 산 지 구	1,000실	우 보 악 지 구	500실
남 원 지 구	500실	재 룡 지 구	?
함 덕 지 구	392실	차 귀 도 지 구	?
돈 내 코 지 구	200실	원 등 지 구	1,249실
봉 개 휴 양 립 지 구	200실	금 악 지 구	400실
세 화 · 송 당 지 구	?	수 망 지 구	1,100실
묘 산 봉 지 구	?	신 흥 지 구	875실
교 래 지 구	?	토 산 지 구	303실
총 3 개단지 14개 지구 8,755실 (미확인 6개지구와 유원지 시설내 콘도는 제외)			

자료 : 종합계획안 + 실시계획 + 보완계획 + 신문자료

* 콘도미니엄 총수 = 8,755실 + ? = 1만실(추정)



이는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 있어 자본을 투자하는 자본가에게 투자의 매력요인을 높여 주기 위해 콘도미니엄 허가를 각 지구마다 내주므로써 예상되는 문제이다.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투자에 대한 이익을 생각했을 때 투자의 우선 순위에 있어 다른 시설에 우선하여 콘도미니엄 공사 착수가 예상된다.

왜냐하면 콘도미니엄인 경우 공사 착공 후 공사의 공정율에 따라 分讓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약 각 기업이 분양 공고 후 미 분양되었을 때를 假定했을 때 콘도미니엄 공사는 물론이고 그 외 시설사업에 投資할 것이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예상 했을 때 濟州道의 가장 수려한 경관지역에 개발되고 있는 관광시설은 골조만을 세워놓고 공사는 중단 된 채 흉물로 방치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의욕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은 실패로 끝나고

제주도의 관광산업은 회생불능이 되지 않을까 싶다.

따라서 각 觀光地區의 투자 순서를 조정하여 계획에 근거한 모든 기반 시설을 갖추고 난 후 마지막으로 콘도미니엄 공사를 착수할 수 있도록 하는 行政力의 지혜가 필요하다 하겠다.

3. 濟州道의 構想으로서의 國際會議產業과 컨벤션센터 建立

'95년도 국제회의를 개최한 지역을 보면 서울이 전체 184건중 143건을 개최하여 77.72%를 점유함으로써 여전히 서울 집중현상을 보이고 있다. 한편 濟州는 경주와 더불어 10건의 국제회의를 개최하여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관광지로서 뿐만 아니라 국제회의 개최도시로서의 면모도 과시하고 있다. 이어서 부산, 충청, 경상남,북도는 각 5건의 국제회의를 개최하였다.

〈표7-1〉 시·도별 국제회의 개최현황

구 분	개 최 건 수				구 성 비(%)			
	'92	'93	'94	'95	'92	'93	'94	'95
제 주	3	6	3	10	2.16	4.00	2.05	5.43
서 울	107	117	103	143	76.98	78.00	70.55	77.72
부 산	0	0	3	5	0.00	0.00	2.06	2.72
경 주	1	5	3	10	0.72	3.33	2.06	5.43
경 기	12	6	13	5	8.63	4.00	8.90	2.72
강 원	2	0	4	0	1.44	0.00	2.74	0.00
충 청	9	12	14	5	6.47	8.00	9.59	2.72
전 라	3	0	0	1	2.16	0.00	0.00	0.54
경 상	2	4	3	5	1.44	2.67	2.05	2.72
계	139	150	146	184	100.00	100.00	100.00	100.00

자료 : 한국국제회의산업 현황, 한국관광공사, 1996.

이같은 數値를 놓고 볼 때 비즈니스 기능중심의 서울이 국제회의를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으며 국제공항과 수준급의 국제회의장 시설을 갖춘 특급 호텔의 지속적인 개

관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산과 대덕 과학기술관련 연구소가 밀집되어 있는 대전의 국제회의 開催頻度가 늘어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편 '95년도 제주지역에서 치러진 국제회의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모두 10건의 국제회의와 6건의 국제행사를 개최하여 모두 7,510명의 외국인이 참석했다.이 가운데 濟州청년회의소가 주관한 '95 JCI 제주 아시아 태평양대회는 '95년도에 이루어진 國內 국제회의 가운데 제 78차 라이온스 세계대회에 이어 두 번째로 규모가 큰 국제회의임을 알 수 있다. 한편 '95년도 제주지역에서 열린 국제회의의 月別 개최 현황을 보면 4월에 3건, 6월에 1건, 8월에 3건, 10월에 2건, 12월에 1건등 대부분의 국제회의가 동절기인 12월, 1월, 2월,을 제외한 다른 계절에 개최됨을 알 수 있다. 이같은 현상은 '95년도 전국적으로 개최된 국제회의의 월별 현황을 보더라도 10월에 가장 많은 31건이 개최되어 5년 연속 수위를 차지하고 있고 8월과 5월에 각각 26건, 9월에 22건, 11월에 21건등 상위 5개월간에 개최된 국제회의 건수가 전체의 68.49%를 차지한 반면 동절기인 12월, 1월, 2월에 개최된 국제회의는 전체의 5.97%에 불과하였다.

〈표7-2〉 '95년도 제주지역 국제회의 개최현황

기 간	회 의 명	장소/주최	참 가 자			
			참 가 국 수	외 국 인 참가자수	전 체 참가자수	전시업 체 수
4/17-22	한·중산업협력위원회	제주신라호텔/ 대한항공	3	16	52	
4/23-29	통일에 있어서 해외동포의 역할증진 방안 모색	프린스호텔/ 한국공항공단	5	12	42	
4/30-5/4	제5차 국제공항협회 태평양 지역총회	제주신라호텔/ 한국공항공단	31	209	339	3
6/1-4	'95 JCI 제주아시아 태평양대회	그랜드호텔/ 제주청년회의소	28	5,000	12,000	
8/28-9/2	제22차 화합물 반도체국제학술대회	제주신라호텔/ 한국진공학회	21	200	300	
8/30-9/1	제3차 아시아system소프트 웨어 공급사 회의	서귀포칼호텔/ ATES	4	22	30	
8/31-9/2	한국전사실업국제포럼	서귀포칼호텔/ 한국전자공업진흥회	8	100	150	

기 간	회 의 명	장소/주최	참 가 자			
			참 가 국 수	외 국 인 참가자수	전 체 참가자수	전시업 체 수
10/17-21	제3차 아시아해양지질학 국제학술대회	서귀포칼호텔/ 한국해양연구소	17	106	206	
10/24-28	'95범아주도시가스회의	제주신라호텔/ 대한도시가스	3	60	100	
12/2-5	아시아축구연맹분과회의	제주신라호텔/ 대한축구협회	21	34	39	

자료 : 한국국제회의산업 현황 자료 요약, 한국관광공사, 1996.

<표7-3> 전국 및 제주도의 월별 국제회의 개최현황 비교

구분	제 주 도		전 국	
	건수	구성비(%)	건수	구성비(%)
1			1	0.54
2			3	1.63
3			7	3.80
4	3	30	12	6.52
5			26	14.13
6	1	10	16	8.70
7			12	6.52
8	3	30	26	14.13
9			22	11.96
10	2	20	31	16.85
11			21	11.42
12	1	10	7	3.80
계	10	100.00	184	100.00

자료 : 한국국제회의산업 현황 자료 요약, 한국관광공사, 1996.

따라서 國際會議 개최를 통해 겨울철 관광 비수기때의 외국인 유치요인으로는 무리임을 알 수 있다.

그런가하면 '95년도 濟州에서 개최된 국제회의에서 외국인 참가규모의 측면에서 봤을 때 100명미만의 회의가 6건으로 60%, 101명~ 299명 규모의 회의는 3건 30%, 1000명 이상의 대규모 회의는 1건으로 10%를 나타냈다. 이같은 數値를 전국의 외국인 참가자들과 평균 했을 때 100명미만인 회의가 133건으로 전체회의의 72.28%, 100명~ 299명 규모의 회의는 37건으로 20.11%를 차지한 반면 1000명 이상의 대규모 회의는 3건에 불과하였다. 지난 '91년~'94년간 외국인 참가규모가 300명이하인 회의가 전체회의의 90%이상을 차지함으로써 국내에서 개최되는 회의의 대부분이 소규모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95년 우리나라에서 개최된 國際會議은 평균 참가 外國人數가 220명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표7-4〉 '95년도 제주도 및 전국 외국인 참가 규모별 현황 비교

구 분	제 주 도		전 국	
	건수	구성비(%)	건수	구성비(%)
50명미만	4	40	95	51.63
50~99	1	10	38	20.65
100~299	4	40	37	20.11
300~499			7	3.81
500~999			4	2.17
1,000명이상	1	10	3	1.63
	10	100.00	184	100.00

자료 : 한국국제회의산업현황 자료 요약, 한국관광공사, 1996.

이밖에 國際會議을 제외하고 '95년도 제주지역에서 개최된 國際行事は 모두 6건으로 1,751명의 외국인이 행사에 참가했다.

〈표 7-5〉 '95년도 제주지역에서 개최된 국제행사

기 간	회 의 명	장소/주최	참가국 및 참가자수		
			C	O	T
4/16-17	제1회국제시민마라톤대회	제주시/ 제주도관광협회	3	900	1100
5/3~8	1회 FICC 아시아 태평양지역캠프대회	비자림야영장	5	77	231
7/13-17	'95제주국제트라이애슬론대회	오리엔탈호텔/ 한국관광공사	11	300	550
7/14-18	'95제주프레비엔날레	기담미술회관/ 제주도청	7	35	60
8/16-19	제1회국제관악제	제주해변공연장/ 제주도청	7	339	1467
11/2	제2회 제주국제친선수렵대회	제주/ 제주도관광협회	3	100	150

주) C : 참가국수 O : 외국인 참가자 T : 전체참가자
 자료 : 한국국제회의산업 현황 자료 요약, 한국관광공사, 1996.

한편 濟州지역인 경우 비록 1,000명 이상의 대규모 회의장은 없다 하더라도 전국적으로 비교해 올 때 서울을 제외한 다른 大都市에 비해 많은 회의장을 확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7-6〉 제주지역 국제회의 시설현황

시 설 명	회의장수	수 용 인 원		비고
		대회의장	전체회의장	
신 라 호 텔	3	900	1,080	동시통역 " " " "
그 랜 드 호 텔	4	800	1,330	
오리엔탈호텔	4	700	1,230	
제 주 칼 호 텔	9	630	893	
하얏트리젠시제주	1	400	400	
프 린 스 호 텔	3	350	675	
서귀포칼호텔	3	250	340	
호텔그린빌라	1	200	200	

시 설 명	회의장수	수 용 인 원		비고
		대회의장	전체회의장	
홀리데이인호텔	1	200	200	
라곤다호텔	1	120	120	
계(10개시설)	30	4,550	6,468	

자료 : 한국국제회의산업현황 자료 요약, 한국관광공사, 1996.

주) 수용인원 : 수용인원은 극장식배열을 기준으로 하였음.

단, 고정석일 경우는 좌석수로 계산함.

이와같이 제주지역에서 국제회의 및 국제행사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2000년 ASEM의 濟州 유치 노력에따른 영향으로 제주도민의 國際會議産業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달라지면서 제주도에서는 제 3 섹터 방식으로 국제회의의 기반시설(infra-structure)이라고 할 수 있는 컨벤션센터 建立을 추진하고 있다. 地方自治團體인 제주도가 구상하고 있는 컨벤션센터의 기본 골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컨벤션센터의 규모와 위치에 있어서는 1997년 가을에 착공, '99년말 완공을 목표로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 2단계 사업 지구내 3만2천700여평의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1만6천400평 내외로 5천명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건설되며 컨벤션센터내에는 회의실과 위락시설 및 쇼핑센터등 각종 시설을 설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둘째, 사업주체와 소요사업비 규모 그리고 출자방식은 제주도가 사업시행 主體가 돼 민간자본을 유치, 추진하게 되는데 출자방식은 컨벤션센터의 경우 제주도와 도내 4개 시·군, 한국관광공사 그리고 在外도민을 포함한 민간이 공동 출자하는 "民·官 출자방식"을 택하게 된다. 소요 사업비는 건설비용 1천8백6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셋째, 건립재원 조달은 컨벤션센터인 경우 소요 재원중 濟州道와 4개 市·郡등 자치단체가 4백50억원을 부담하고 관광공사가 토지출자로 1백41억원, 민간에서 6백9억원을 출자하고 나머지 6백6억원은 용자등 차입금으로 충당한다는 복안을 갖고 있다.

넷째, 민간부문 출자에 있어 도민주의 충당방법은 道民株 공모를 통해 모집을 하는데 1주당 5천원, 2천4백만주를 발행할 예정이다. 청약한도는 개인은 최저 10만원

최고 60억원, 법인은 최저 1천만원에서 최고 180억원, 자치단체인 경우 최저 1천만원에서 최고 360억원으로 두고 있다.

〈표 7-7〉 컨벤션센터 시설개요

구 분	부 지	시설규모	수용인원	비 고
	3만2천700여평	1만6천400평	5천명	지하1층,지상4층

자료 : 연구자 작성.

〈표 7-8〉 건립재원 중 도민 부담액

구 분	지방자체단체	도 민 주	차 입 금	계
금 액	450억원	609억원	606억원	1,665억원

자료 : 연구자 작성.

이밖에 컨벤션센터의 활용방안은 2000년 서울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지역 지도자회의(ASEM) 및 2002년 월드컵 대회와 관련한 국제회의는 물론이고 세계관광협회(WTO), 아시아·태평양지역 관광협회(PATA), 미주여행업 협회(ASTA)총회 및 국제관광박람회 등을 유치할 계획을 갖고 있다.²⁶⁾

이상이 지방자치단체인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컨벤션센터 건립의 개괄적인 복안이라고 할 수 있다.

〈표 7-9〉 제주도의 컨벤션센터 건립 추진일지

월	추진내용
'96. 3월	· ASEM 제주 유치 신청(3/28)
4월	· ASEM 제주유치 위원장 선출 - 김영옥(4/15) · ASEM 제주유치 설명회 - 신구범 지사(4/24) · ASEM 제주유치 건의 - 의회와 공동보조(4/26)
5월	· 한국관광공사 컨벤션센터 부지 출자(5/6) · 컨벤션센터 금호서 건립(5/16)

26 서울신문, '96. 10. 신구범 지사 신문 인터뷰.

월	추진내용
6월	· ASEM 서울개최 확정(6/4)
7월	· 제주지역 컨벤션센터 시설 민·관 공동 출자 추진(7/24) · 컨벤션센터·관광호텔 건립투자 설명회 - 일본(7/29)
8월	· 컨벤션센터 본격 추진 - 제3섹터 방식(8/12) · 컨벤션센터 타당성조사 용역 - 한국관광연구원 및 산동회계법인(8/20) · 컨벤션센터 건립설명회 시작 ('96/8/30~'97/3) - 135회
11월	· 컨벤션센터 용역 중간보고회(11/2) · 컨벤션센터 호텔 분리 추진(11/19) ·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97 지방채 발행 승인(내무부)
12월	· 컨벤션관련 도민의식 조사(12/10) · 컨벤션 도민주 주식회사(12/20) · 컨벤션센터 건립 출자금 '97 예산 확보 : 101억원(도 80, 시·군 21억원) · 제주도 컨벤션센터 건립추진본부장 선출 - 강지순(12/28)
'96. 12월 ~ '97. 2월	· 컨벤션건립 추진·지원위원회 및 추진본부 구성 - 지구별 추진(지원)위원회 : 5개지구(제주, 서울, 부산, 도쿄, 오사카) 11개 재외도민회 중심 - 추진본부 : 관계 전문가 등 민·관합동 구성 14인(공무원 9인, 민간인 5인)
'97. 3월	· 제주지역 컨벤션센터 시설 민·관 공동 출자 추진(7/24) · 컨벤션센터·관광호텔 건립투자 설명회 - 일본(7/29)

자료 : 제주도 및 제민일보 보도자료 요약.

4. 컨벤션센터 建立에 대한 濟州道民의 認識과 課題

수년전 부터 핵심산업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관광산업의 미래 청사진을 펼침에 있어 제주지역이 국제회의산업의 최적지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²⁷⁾

이러한 잠재적인 상황에서 지난 1996년 3월, 2000년 ASEM 회의에 대한 개최지 선정을 둘러싸고 지방자치단체의 유치 경쟁을 시발점으로 제주지역에서도 국제회의 산업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의 시발점이 되었다. 제주지역 3개의 일간 신문중 제주일

27) 韓昌榮, " 국제회의 개최 최적지로서의 제주도", 1990.6. 제주도지, 제 88호, 참조.

보는 '96. 3. 20.자, 제민일보는 '96.3.28.자, 그리고 한라일보는 '96.4.11.자 기사를 통해 "ASEM 제주유치"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표명하기 시작했다. 그 이후 지난 1996년 한해동안 제주지역 3개의 일간지는 모두 384건(제주일보 131건, 제민일보 141건, 한라일보 112건)의 ASEM유치 및 컨벤션센터에 관한 기사를 다루고 있다.

〈표8-1〉제주도내 3개 일간지 ASEM 및 컨벤션 관련기사 건수(1996년도 3월-12월)

구 분	일 간 지			계
	제주일보	제민일보	한라일보	
스트레이트	71	64	53	188
스케치	9	16	6	31
가 섭	8	26	11	45
사 설	9	10	6	25
해 설	13	10	7	30
기획·연재	8	6	14	28
인터뷰	2	6	7	15
논단·컬럼				
독자투고	11	2	5	18
좌담·대담		1	3	4
기 타				
합 계	131	141	112	384

자료 : 연구자 작성.

이러한 제주도내 일간지의 보도내용 중 각 신문의 성향을 알아볼 수 있는 사실 및 해설의 보도를 분석해 보면 제주일보는 22건, 제민일보 20건, 한라일보 13건을 다루고 있으며 제주일보는 22건의 사실 및 해설 중 긍정 11건, 중립 5건, 부정 6건, 제민일보는 20건중 긍정 9건, 중립 1건, 부정 10건, 한라일보는 13건중 긍정 7건, 중립 7건, 부정 2건의 기사로 분석되고 있다.

〈표 8-2〉제주도내 3개 일간지 ASEM 및 컨벤션 관련 사설 및 해설 월별 보도 성향

1996년도

구분	제 주 일 보			제 민 일 보			한 라 일 보			계
	긍정	중립	부정	긍정	중립	부정	긍정	중립	부정	
1월										
2월										
3월										
4월	3			1			4			
5월	8			7			3			
6월		4			1			3		
7월				1				1		
8월		1	1						1	
9월									1	
10월			2			2				
11월						5				
12월			3			3				
계	11	5	6	9	1	10	7	4	2	

자료 : 연구자 작성.



이처럼 제주지역의 여론의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신문의 해설 및 사설의 보도성향은 '96년 3월이후 4월부터 7월까지의 대부분의 신문들은 ASEM 제주유치에 대한 적극적 이면서도 긍정적인 보도성향을 보이고 있는 반면 ASEM 제주유치의 실패이후 제주도민의 주도하에 컨벤션센터 건립에 대한 보도성향은 신중하면서도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다. 즉 이것은 제주도민 스스로의 힘에 의한 컨벤션센터 건립에 대한 여론의 공감대가 아직까지도 성숙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현상이라 하겠다.

이러한 제주도의 컨벤션센터 건립과정의 과제를 생각해 보고자 한다.

첫째, 제주도민의 여론수집을 통한 共感帶가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조급한 일정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자세이다. 컨벤션센터 건립을 통한 활용의 目標가 단기적으로 2000년의 ASEM과 2002년 월드컵대회가 되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이미 2000년의 ASEM은 서울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확정되었고 월드컵대회의 경기지역으로서도 회

박한 상황에서 굳이 1999년말을 完工 목표로 무리하게 추진하는 데는 문제가 있다 하겠다.

ASEM과 월드컵 관련 국제회의가 아니더라도 전세계적으로 지난 '95년 한해 동안 8,800여건의 각종 國際會議가 개최되었다. 따라서 향후 다양한 종류의 국제회의를 유치한다는 나름대로의 목표를 설정한다면 당장의 컨벤션센터 건립 못지 않게 제주도 민들에게 현재 관광산업의 문제점과 국제회의의 유치 필요성 그리고 컨벤션센터의 운영방안 등 나름대로의 비전(Vision)을 제시하면서 제주도민의 공감대를 얻는 것이 급선무라고 할 것이다. 왜냐하면 컨벤션센터 건립에 소요되는 자금 중 1,600여억원은 直·間接적으로 제주도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관광연구원에서 마련한 제주도 컨벤션센터 건립 타당성 조사에서 나타난 收益性 분석에 대한 충분한 검증도 필요하다 하겠다. 왜냐하면 用役에서 제시한 수익성 분석은 內國人을 주 고객층으로 짜여져 있기 때문이다.

〈표8-3〉 중간용역의 분석에 이용된 주요 예측지표

단위 : 천명

구	분	2000	2006	2010
관 광 객	계	5,152	6,591	7,554
	내국인	4,794	6,045	6,862
	외국인	358	546	692
컨벤션센터 사용자수	계	96.6	442.8	703.2
	컨벤션센터	91.0	377.0	632.0
	기타시설	5.6	65.8	71.2

자료 : 제주도 컨벤션센터 건립 타당도 조사, 한국관광연구원, 1996.

이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제주도의 전체 방문자 중 9.3%가 컨벤션 목적으로 방문할 것으로 진단하고 있으며 회의 참가자 중 內國人 과 外國人의 비율이 74.4%, 25.6%로 내국인 위주로 짜여져 있다.

둘째, 전국 최초로 民·官 합작 자본으로 설치되는 컨벤션센터가 附帶施設의 수익을 통해 운영할 방침이라고 한다면 문제가 심각하다 하겠다. 왜냐하면 제주도가 한

국관광연구원과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부대시설 확대를 통한 收益을 전제로 타당성을 검토했기 때문이다. 제주도의 용역 지침서를 보면 컨벤션센터 내에 대규모 쇼핑센터 및 면세점, 대형카지노 등을 시설해 민·관 합작 법인체에 운영을 맡기는 방식의 수익사업 방안을 강구 하도록 했다. 한국관광연구원의 수익성 분석자료에 따르면 제주도 컨벤션센터는 완공해인 2000년에 총 매출액이 228억원, 2006년 643억원, 2010년 992억원으로 예견하고 있다.

〈표8-4〉 제주도 컨벤션센터 중간용역의 수익성 분석

구 분		2000년	2006년	2010년
면세점	이용자수(천명)	34	136	201
	매출액(억원)	68	366	654
카지노	머신게임수입(억원)	6	18	23
	테이블게임수입(억원)	4	10	15
	총수입(억원)	10	28	38
영상시설	A형 이용자수(천명)	854	1,231	1,511
	B형 이용자수(천명)	641	923	1,133
	총수입(억원)	84	122	149
아울렛	입대수입(억원)	10	14	14
제주쇼	입장객수(천명)	150	308	378
	매출액(억원)	52	108	132
세미나실 임대	매출액(억원)	4	5	5

자료 : 제주도 컨벤션센터 건립 타당도 조사, 한국관광연구원, 1996.

이처럼 컨벤션센터 건립에 따른 용역의 전제 조건으로 부대시설 사업의 타당성에 중점을 두고 건립할 것이라면 굳이 1,600여억원이라는 제주도민 자본을 투자하면서 까지 컨벤션센터를 건립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의문이 생기게 된다.

컨벤션센터는 세계 각국에서 열리는 國際會議를 유치하기 위한 하드웨어(hardware) 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컨벤션센터 건립 이후의 유치전략과 다른 국가와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방안에 대한 확고한 비전 제시가 급선무라고 하겠다. 즉 세

계를 대상으로 우리의 장·단점을 냉철히 分析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단순히 2010년 680만여명의 內國人和 69만여명의 外國人 수치를 갖고 수익성을 분석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다. 다시말해 국제회의 참석자인 경우 경비가 일반 관광객의 3배에 할 정도로 회의산업은 고부가가치 산업이므로 우선 誘致 전략을 외국인 위주로 확고히 세우고 유치에 필요한 人的資源의 확보가 시급하다 할 것이다.

이러한 소프트웨어(software) 전략에 따른 국제회의 유치의 성공은 자연스럽게 부대시설 이용을 통한 收益 창출과 직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가 하면 제주도가 6백9억원 상당의 도민주 공모 가운데 상당 부분을 일선 공무원을 대상으로 모집하겠다는 계획도 문제가 있다 하겠다. 왜냐하면 在外 또는 海外道民의 참여에 앞서 본토 도민의 공감대 형성을 통한 응집력이 급선무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컨벤션센터 건립에 따른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全無한 상태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전세계적으로 컨벤션센터는 社會間接資本시설로 분류해 유·무형의 지원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유독 제주도민의 자존을 내걸고 무리한 일정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컨벤션센터와 전시장은 국제회의, 전시회 및 각종 학술대회 등 이벤트의 개최를 통하여 선진기술 및 산업정보의 교류가 이루어지는 산업기반 시설이다. 그러나 막대한 투자 소요와 낮은 收益性으로 인하여 민간부문의 자발적인 투자는 말할 것도 없고 公共部門마저 기대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하여 대다수 외국의 경우 컨벤션센터와 전시장에 대한 투자는 직접적인 운영 수익보다는 이의 건립과 운영을 통한 호텔, 관광, 운송 등 관련산업을 위한 파급효과와 지역경제에 대한 기여도를 중시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또한 國家的인 차원에서 건립과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대외무역법령에 의거 무역전시장에 대해서는 국가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으나 실질적인 지원 사항은 미비된 실정이다. 또한 현행법상 컨벤션센터와 전시장의 토지와 건물이 일반 부동산으로 분류되어 부동산 관련 제세를 과중하게 부담하고 있으므로 민간부문의 자발적인 투자가 어려운 상황이다. 즉 컨벤션 시설정비나 컨벤션 담당조직의 운영등 컨벤션센터를 운영해 나가는 재원의 대부분을 제주도민이 맡는다고 하

면 그 재원을 어디에서 확보하는가가 문제가 된다. 앞서 서술했지만 컨벤션 시설만의 운영수지가 흑자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예를 들면 과거 일본의 고베시(神戸市)의 포트아일랜드에 건설한 컨벤션시설의 경우에는 1억엔 정도의 적자가 발생하여 그것을 포토피아 박람회 수익금으로 보충한 적이 있다. 이것은 기타 국내외의 실태를 봐도 그렇다²⁸⁾ 이러한 상황에서는 그 재원을 세수에서 염출해야 하지만 현재의 지방세 제도나 교부세 제도하에서는 기대되는 세수효과를 얻는 것은 어렵고 미국의 라스베이가스시와 같이 호텔세에 의해서 컨벤션도시를 운영해 나가는 것도 불가능하다. 이러한 점에서 컨벤션과 관계되는 재정운영은 구상추진에 필요한 투자와 컨벤션 개최에 수반되는 지역의 경제적·사회적 파급효과의 총체적인 수지균형적 측면에서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2000년 ASEM 서울 개최를 계기로 일기 시작한 정부 차원의 관심이 표면화되고 여건이 성숙한 이후 사업착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다.

第 2 節 國內的 脈絡과 課題

1. 우리나라 國際會議產業



우리나라의 국제행사 개최건수는 국제화, 개방화에 따라 각 分野별로 꾸준히 증가해 오고 있다. '95년 국내에서 개최된 국제행사는 전년도보다 8.76% 증가한 335건으로 국제회의의 184건, 전시회 96건, 기타 스포츠 이벤트가 55건 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95년 國際行事に 참가한 외국인은 총 299,310명으로 '94년 대비 45.22% 증가하였는데, 이는 제 78차 국제 라이온스 세계대회와 제 2 회 세계문화체육대전등 대형 국제행사 개최에 기인한 것으로 分析된다. 분야별 외국인 참가자 수는 국제회의의 40,437명, 전시회 124,559명 그외 스포츠, 이벤트 부문 134,314명으로 전년도 보다 이벤트 부문에서 급격한 신장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28) 우동기, '컨벤션도시구상의 과제와 전략', 지방자치, '96.5. p. 76

〈표 9〉 국내 국제행사 개최현황

구 분	개최건수	성장율(%)	외국인 참가자수	성장율(%)
1986	224	4.67	64,524	-3.43
1987	211	-5.80	55,137	-14.55
1988	216	2.37	91,479	65.91
1989	218	0.93	107,220	17.21
1990	220	0.92	109,872	2.47
1991	225	2.27	115,173	4.82
1992	252	12.00	115,308	0.12
1993	276	9.52	212,107	84.67
1994	308	11.59	206,107	-3.21
1995	335	8.76	299,310	45.22

자료 : 한국국제회의산업 현황, 한국관광공사, 1996.

주) 국제행사 : 국제회의, 전시회, 스포츠, 이벤트 등.

(1) 개최건수 및 참가 외국인 수

'95년도 국내에서 개최된 학술회의 및 심포지움 등을 포함한 國際會議은 모두 184건으로 '94년도에 비해 26.03%가 증가하였으며, 참가 외국인수는 40,437명으로 '94년도 대비 21.01%의 높은 증가 실적을 보였다. 이러한 증가는 제 78차 라이온스 세계대회, JC 제주 아시아·태평양 대회 및 '95 세계 선교대회 등 대규모 국제행사의 개최에 따른 것으로 分析되고 있다.

지난 10년간의 개최 현황을 보면 외국인 참가자수는 개최건수의 증·감보다는 그 시기에 유치된 국제회의의 大·小규모에 따라 큰폭의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고 있는데 '95년도와 국제 로타리 서울대회등 다수의 대규모 회의가 개최되었던 '89년도 국제 정형외과 외상학회 19차 총회, 제 32차 동양 및 동남아 라이온스 대회가 있었던 '93년도에 특히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진다.

〈표10-1〉 국제회의 개최건수 및 외국인 참가현황

구 분	개최건수	성장율(%)	참가외국인수	성장율(%)
1986	109	21.11	13,819	-32.17
1987	109	0.00	13,350	-3.39
1988	102	-6.42	13,478	0.96
1989	108	5.88	41,120	205.09
1990	145	34.26	25,802	-37.25
1991	110	-24.14	9,226	-64.24
1992	139	26.36	13,972	51.44
1993	150	7.91	24,689	76.70
1994	146	-2.67	19,164	-22.38
1995	184	26.03	40,437	211.01

자료 : 한국국제회의산업 현황, 한국관광공사, 1996.

(2) 월별 개최현황

'95년도의 월별 국제회의 개최 순위를 살펴보면 10월에 가장 많은 31건이 개최되어 5년 연속 수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8월과 5월에 각각 26건, 9월에 22건, 11월에 21건 등 상위 5개월간에 개최된 국제회의의 件數가 전체의 68.49%를 차지한 반면 동절기인 12월, 1월, 2월에 개최된 국제회의는 전체의 5.97%에 불과하였다.

'95년 국제회의의 참가 외국인수는 7월, 5월, 6월, 8월, 9월 순으로 많아 비교적 큰 규모의 국제회의가 5~9월에 개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0-2〉 월별 국제회의 개최현황

월별	'92		'93		'94		'95			
	건수	구성비(%)								
1	1	⑩0.72	1	⑩0.67	2	⑩1.37	1	⑩0.54	10	⑩0.02
2	1	⑩0.72	3	⑩2.00	3	⑩2.05	3	⑩1.63	105	⑩0.26
3	4	⑨2.88	5	⑨3.33	4	⑨2.74	7	⑨3.80	431	⑨1.07
4	14	④10.07	8	⑤5.33	7	⑤4.79	12	⑦6.52	565	⑤1.40

월별	'92		'93		'94		'95			
	건수	구성비(%)	건수	구성비(%)	건수	구성비(%)	건수	구성비(%)	건수	구성비(%)
5	14	④10.07	16	⑤10.67	17	④11.65	26	②14.13	7,382	②18.25
6	13	⑥9.35	15	⑥10.00	14	⑥9.59	16	⑥8.70	5,744	③14.20
7	10	⑧7.19	10	⑦6.67	17	④11.65	12	⑦6.52	16,522	①40.8
8	21	②15.11	17	③11.33	12	⑦8.22	26	②14.13	3,578	④8.85
9	18	③12.95	17	③11.33	20	③13.70	22	④11.96	2,320	⑤5.74
10	30	①21.58	31	①20.67	25	①17.12	31	①16.85	2,005	⑥4.96
11	11	⑦7.92	22	②14.67	23	②15.75	21	⑤11.42	1,499	⑦3.71
12	2	⑩1.44	5	⑨3.33	2	⑩1.37	7	⑨3.80	276	⑩0.68
계	139	100.00	150	100.00	146	100.00	184	100.00	40,437	100.00

자료 : 한국국제회의산업 현황, 한국관광공사, 1996.

주) ㉠안의 숫자는 순위임

그런가 하면 '95년도에 우리나라에서 개최된 國際會議을 외국인 참가규모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100명 미만인 회의가 133건으로 전체 회의의 72.28%를 차지하였고 100~299명 규모의 회의는 전년 보다 약간 증가한 37건으로 20.11%를 차지한 반면 1000명 이상의 大規模 회의는 3건에 불과 하였다. 지난 4년간 외국인 참가규모가 300명 이하인 회의가 전체회의의 90% 이상을 차지함으로써 국내에서 개최되는 회의의 대부분이 小規模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대규모 회의를 치를 수 있는 컨벤션 센터, 숙박시설 등의 부족으로 경쟁국에 비해 유치 여건이 좋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95년 우리나라에서 개최된 國際會議은 평균 참가 외국인 수가 220명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표10-3〉 외국인 참가규모별 현황

참가규모	개 최 건 수				구 성 비(%)			
	'92	'93	'94	'95	'92	'93	'94	'95
50명미만	87	89	84	95	62.59	59.33	57.53	51.63
50~99명	17	18	23	38	12.23	12.00	15.75	20.65
100~299명	23	30	26	37	16.55	20.00	17.81	20.11
300~499명	7	4	5	7	5.03	2.67	3.43	3.81
500~999명	5	7	3	4	3.60	4.67	2.05	2.17
1,000명이상	0	2	5	3	0.00	1.33	3.43	1.63
계	139	150	146	184	100.00	100.00	100.00	100.00

자료 : 한국국제회의산업현황, 한국관광공사, 1996.

2. 國內 國際會議產業의 課題

우리나라에는 아직까지 전문적인 컨벤션 센터가 없는 관계로 주로 특급호텔의 연회장에서 國際會議가 개최되고 있으며 그밖에 규모나 성격에 따라 대학 및 기업체 회의장, 전시장, 공연장, 체육시설이 회의장으로 이용되고 있다. 통념상 국제회의 시설이라 할 수 있는 시설은 모두 80개소로 전체 수용인원은 약 14만9천명 가량이 된

〈표11-1〉 대회의장 수용규모로 본 국제회의 시설현황('96.8월 기준)

구분	500명 이하	501~1,000	1,001~1,500	1501~2,000	2,001명이상	계
서울	11	8	10	3	5	37
부산, 경남	6	4	1	-	-	11
대구, 경북	4	5	1	2	-	12
인천, 경기	1	1	-	-	--	2
광주, 전라	1	1	-	-	--	2
대전, 충청	1	1	1	1	-	4
강원	1	1	-	-	-	2
제주	6	4	-	-	-	10
계	31	25	13	6	5	80

자료 : 한국국제회의산업 현황 요약, 한국관광공사, 1996.

다. 그러나 그중 46.3%가 서울에 위치하고 있으며 단일 회의장중 2,000명을 넘게 수용할 수 있는 대규모 회의시설은 5개소에 불과한데 그나마 모두 서울에 집중되어 있다. 이와같은 기반시설의 서울 집중현상과 회의시설의 부족한 것 이외에도 국내 국제회의산업의 과제로는 국제회의 전문인력 양성을 들 수 있다. 國際會議의 유치, 기획, 준비, 운영 등의 국제회의 관련업무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능력을 요한다. 우리나라는 비교적 컨벤션 역사가 짧고 지금까지 국제회의 부문에 대한 인식 부족, 체계적인 국제회의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연수제도 부재로 노하우가 축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전문 인력의 양성을 위해서는 PCO(Professional Convention Organizer)를 중심으로 컨벤션 관계자들에 대한 정기적인 연수 실시, 그리고 우리 실정에 맞는 컨벤션 관련 노하우(Know-how)를 메뉴얼화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PCO사업이 발전할 수 있는 좋은 사업적 조건이 있는 나라이면서도 반대로 불리한 조건을 갖춘 양면성의 사회라고 볼 수 있다.²⁹⁾

첫째, PCO의 발전 가능성을 보면, 우리나라는 영어가 약한 나라로서 국제행사라고 하면 自信心을 잃은 경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주최측에서는 전문 국제회의 용역체를 찾고 그에 의존하려는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최근에는 민간부문에서의 국제적 행사가 활발하여 규모가 작은 사회단체에서 국제행사 개최가 늘어나고 있어 수요시장은 넓어지고 있다.

둘째, 불리한 조건으로는 한국사회에서 “用役”이라는 인식이 약하여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경비를 절감하고 성공적 결실을 기하려는 생각을 갖는 사람이 아직은 많지 않으며 불신까지 겹쳐 자신이 직접하는 것으로 안심을 하려는 경향이 높은 사회이다. 다시말하면 국제행사 전문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식을 하는데 용기가 없는 것이 우리나라의 실정이다. 여기에 PCO업계의 형편을 보면 이러한 현실적 여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소위 수용태세가 갖추어지고 있는나도 한 번은 생각해 볼 부문이다.

특히 용역사업의 특징은, 다른 생산업과 달리 “公信力”의 확보인 것이다. 생산업은 가시적인 생산품을 통해서 수요 속의 소비를 창출해 낼수 있는 것이나, 용역업이란 “보이지 않는 상품”을 판매해야 하기 때문에 공신력이란 바로 用役업의 생명인 셈이

29) 국제회의의 용역업체 실무 책임자 교육자료, 한국관광공사, 1995.

다. 따라서 한국의 PCO는 바로 이러한 전문업으로서의 공신력을 어떻게 쌓아 가느냐가 당면 과제라 할 것이다. 공신력을 갖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사업의 영세성을 탈피하고 전문적인 지식의 축적과 고급인력의 확보, 첨단기자재의 확보 및 관련정보망 구성, 가용자원의 폭넓은 활용체계 구축, 대외 공신력의 재고 등을 꾀할 수 있을 것이다.

1987년 관광진흥법의 개정으로 국제회의 용역업이 관광사업으로 법제화되었을 때만 해도 2개 업체에 불과했던 국제회의 용역업은 그 동안 우리나라 국제회의 산업의 발전과 더불어 그 규모가 커져 96년 현재 25군데에 이르고 있다.

〈표11-2〉 우리나라 용역업체 현황

순서	업체명	순서	업체명	순서	업체명
1	고려여행사	10	원-월드프로덕션	19	유니스토리아
2	서울항공여행사	11	한진관광	20	한주여행사
3	코리아컨벤션서비스	12	롯데관광	21	세방여행사
4	인터내셔널컨벤션 서비스	13	세일여행사	22	한통
5	코오롱 고속관광	14	아주관광여행사	23	오리콤
6	인터코리아 맨파워	15	한국종합전시장(KOEX)	24	코벤인터내셔널
7	인터킵	16	티·엠·케이	25	노보콤
8	두립컨벤션	17	서한기업	26	
9	이케이맨파워	18	동부고속		

자료 : 한국국제회의산업현황, 한국관광공사,1996.

한편 '93년 PCO의 용역 제공 건수는 9개 업체가 제공한 33건으로 '92년의 25건보다 8건이 증가 했다. 이중 13개 회의만이 전체용역을 제공한 회의이고 기타 회의에 대해서는 관광, 장비임대, 숙박 부분에 대해 부분적으로 용역이 제공되었다. 이러한 수주 현황의 부진으로 인해 대부분의 PCO가 순수한 국제회의 용역업만 취급하지 못하고 23개의 PCO중 11개 업체가 여행업을 兼業하는 등 행정서비스, 인력사업 등 기타 부대사업을 병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수주 현황의 부진은 국제회의 개최기관이 PCO에 대한 認識이 부족하고 또 대부분 공공기관이므로 준비와 운영요원 동원에 커

다란 어려움을 겪지 않기 때문이다.

앞으로 국제회의 시장의 개방에 대비해 정부기관은 PCO 육성 지원에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PCO는 전문화를 위한 자구책을 마련해 야 할 것이다.

따라서 현재 한국 국제회의 용역업의 문제점과 그 대책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제회의 절대 數 부족 및 계절에 따른 수요변동의 문제이다. 국내개최 국제회의의 물량 부족 및 봄, 가을 편중으로 PCO의 업무량 확보 곤란의 문제점을 위한 개선 대책으로는 국제회의 유치단 파견 등에 따른 출입국 통관등 편의 제공과 관광 비수기에 개최되는 국제회의에 각종 지원을 우선 배정하는 등의 고려할 수 있다.

둘째, 컨벤션 전문요원 자격기준 不在로 컨벤션 전문요원 양성이 시급한 문제로 대두 되고 있으며 용역업체의 생명인 공신력의 문제와도 직결되는 것이다. 이에 대한 문제는 국제회의 전문 교육기관 설립 또는 국내의 전문 교육기관의 교육참여 기회 부여를 위해 재정보조 등의 지원책을 마련할 수 있으며 외국의 전문인을 초빙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다. 또한 연수 등을 통해 국제회의 선진 주체국에서 개최되는 국제회의 현장에서 직접 배울 수 있는 교육의 기회도 바람직한 방법이다.

셋째, PCO 지위 보장의 문제로서 동시 통역사, 속기사, 번역사 등 컨벤션 관련 전문인력에 대해 교육 훈련 및 자격증 제도의 도입으로 수준 향상 및 공신력을 제공하고 PCO의 지위를 법적으로 보장해 주어야 한다.

넷째, PCO의 영세성 및 인식 부족으로 인하여 대규모 국제행사 유치 및 수주 능력이 미약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 국제회의 전문용역업체의 관광사업자 지정 및 PCO 협회 설립 등 업계 활동의 통합 조정 기능 강화로 對정부 건의 용역 수주에 따른 기준 마련 등 권익 신장, PCO 활동 지원을 위한 재정 보조 혹은 대규모 국제회의 유치단 파견 등에 PCO참여 지원을 해야 한다.

第 3 節 아시아的 脈絡과 課題

국제회의 개최에 있어 유럽, 미주지역에 이어 대륙별 순위에서 3위를 차지한 아시아 지역은 '95년도에 1,195건의 國際會議을 개최하여 전년도의 1,181건에 비해 1.18%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대륙별 점유율은 전년도의 13.15%에서 13.72%로 소폭 증가하였다. 국가별로는 일본이 229건 개최로 아시아내 점유율 19.16%, 싱가포르가 140건 개최로 11.71%를 보여 아시아 지역에서 6년간 연속 1위, 2위를 고수하고 있다.

한편 중국은 '94년에 비해 24건을 싱가포르를 22건을 그리고 한국은 17건을 더 개최하여 높은 신장세를 기록하였다. 특히 중국은 '97년 7월에 홍콩을 흡수했기 때문에 일본과아시아 1위를 다투는 주요 국제회의 개최국으로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시별 순위에서는 싱가포르와 홍콩이 각각 140건과 102건을 개최하여 5년 연속 1위와 2위를 지키고 있으며 북경이 66건 개최로 전년도(53건)에 비해 급성장하여 4위를 차지하였다. 한국은 82건 개최로 아시아지역 국가중 7위를 기록했으며 서울은 이 가운데 70건을 개최하여 아시아지역 都市중 3위로 떠올랐다.

〈표12-1〉 아시아 지역 주요국가 국제회의 개최현황

1995년			1994년		1993년		1992년		1991년	
순위	국가명	건수	순위	건수	순위	건수	순위	건수	순위	건수
1	일 본	229	1	228	1	240	1	248	1	239
2	싱가포르	140	2	118	2	116	2	112	2	110
3	홍 콩	102	5	91	3	108	4	86	3	102
4	중 국	94	7	73	5	94	5	71	5	78
5	이스라엘	94	4	95	6	83	6	60	7	57
6	인 도	83	3	98	4	105	3	104	4	100
7	한 국	82	8	65	7	68	12	31	11	32
8	태 국	60	6	78	8	61	8	51	6	66
9	필 리 핀	51	10	42	10	45	11	34	9	38
10	인도네시아	47	11	38	11	44	10	39	10	37

자료 : UIA, 1996.

〈표12-2〉아시아지역 주요도시 국제회의 개최현황

1995년			1994년		1993년		1992년		1991년	
순위	국가명	건수	순위	건수	순위	건수	순위	건수	순위	건수
1	싱가포르	140	1	118	1	116	1	112	1	
2	홍콩	102	2	91	2	108	2	86	2	
3	서울	70	5	55	4	59	10	28	10	
4	베이징	66	7	53	5	55	5	41	5	
5	예루살렘	55	4	56	8	48	9	37	8	
6	도쿄	55	5	55	3	90	3	74	3	
7	뉴델리	43	8	47	6	52	4	51	6	
8	방콕	38	3	69	7	50	5	41	4	
9	요코하마	33	11	26	12	28	12	23	N/A	
10	쿠알라룸푸르	30	9	37	9	41	7	40	8	
11	교토	30	10	30	11	31	8	39	N/A	

자료 :UIA, 1996. N/A : not available.

1. 아시아국가의 국제회의산업

국제교류의 증대로 국제행사는 날로 늘어나고 있으며, 亞·太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개최건수가 크게 증가하여 새로운 국제행사 개최지역으로 떠오르고 있다. 편 국내적으로는 세계화 분위기에 힘입어 컨벤션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며, 지방자치제 실시로 地方의 國際會議 유치 여건도 호전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중국, 일본 등 인근 국가 및 동남아 국가들과의 국제회의 및 대형 이벤트 유치경쟁은 나날이 深化되고 있는데 국내의 국제회의 시설 및 전문인력, 숙박 및 교통시설 등 수용태세는 상대적으로 미흡하고 국내 물가상승으로 인해 국제회의 참가비용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표12-3〉아시아 주요국 컨벤션센터 시설현황

국 가	명 칭	소 재 지	수용인원	설립년도
홍 콩	Convention & Exhibition Center	홍콩	2,600명 이동식	88
일 본	Pacifico Yokohama	요코하마	5,000명 고정식	91
	Okinawa Convention Center	오키나와	4,000명	87
싱 가 포 르	Int'l Convention & Exhibition	싱가포르	12,000명	95/준공
말 레 이 시 아	Putra world Trade Center	쿠알라룸푸르	이동식	85
태 국	National Convention Center	방콕	5,700명 이동식	91
대 만	국제컨벤션센터	타이페이	3,100명 고정식	89
필 리 핀	Philippine International	마닐라	4,500명	76

자료 : 매일경제신문, 94. 5. 7, 9면.

한편 아시아 각국의 국제회의 전담기관과 업계를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일본은 도시단위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협력체인 CVB(Convention & Visitors Bureau)를 그리고 동남아 국가는 정부 관광기구내에 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그리고 우리나라인 경우는 한국관광공사 국제협력처에서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세계 각국의 전담기관과 업계의 역할은 구미주에서는 PCO(Professional Congress Organizer)등 업계가 유치활동을 주도하고 CVB는 컨벤션 개최지로서의 자국 또는 개최도시의 이미지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일본은 지자체 CVB에서 유치활동을 주도하며, JNTO는 전체홍보 및 여건조성에 주력하고 동남아 국가들은 CVB가 업계와 긴밀한 협력하에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우리나라의 경우는 업계의 활동이 미약한 반면 한국관광공사가 유치활동을 주도하고 있다.

〈표12-4〉 아시아 주요 국가들의 국제회의 유치활동

국명	국제회의전담기구	주요시설	유치활동 및 육성정책
일본	○JNTO내 국제회의 유치센터 ○지자체 CVB	○Pacifco Yokohama (5,000명 수용) ○Tokyo Int'I Forum (5,000명 수용)	○컨벤션 지원법 제정 · 2000년에 500건 개최목표 · 45개 국제회의 도시 지정 · 국제회의 개최시 재정지원 · JNTO 조직강화(뉴욕, 런던지사에 현지인 전문가 각 3명 배치)
싱가포르	○STPB내 컨벤션 뷰로	○Singapore Int'I Convention & Exhibition Center (1,200명 수용)	○국제회의, 전시회 참가 외래객에게 재화용역세 면세 ○관광유관시설 건립시 세제 혜택 ○대대적 컨벤션 유치 캠페인 전개 (Meet In Singapore)
홍콩	○HKTA내 컨벤션 뷰로	○HongKong Convention & Exhibition Center (4,500명 수용)	○업계 공동 유치활동 전개 ○대대적 유치 캠페인 전개 (Wonders Never Cease) ○신공항 건설('98년 완공예정)
중국	○CNTA내 전담부서	○Beijing Int'I Convention Center (4,500명 수용) ○China International Convention Center (3,500명 수용)	○베이징, 상하이 등 대도시와 공동 유치활동 전개 ○'95 세계 여성대회 등 대규모 회의 유치 ○"베이징 2000"추진(기반시설 장기종합 개발계획)
한국	○한국관광공사내 국제협력처	○컨벤션센터 없음 (KOEX내 전시장 임시 사용할 때 5,320명 수용) ○2000년 ASEM 대비 대규모 컨벤션 센터 건립예정 (10,000명 수용)	○국제회의 산업육성 지원법 제정 추진

주) 시설 수용규모는 대회의장의 극장식 수용인원 기준임.
 자료: 국제회의현황, 한국관광공사, 1996.

2. 아시아국가의 국제회의산업 과제

컨벤션도시 구상을 위해서는 범지역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지역의 일반 주민은 물론 각계각층이 컨벤션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협력을 필요로

하는 것은 당연하다. 따라서 다양한 형태의 홍보활동의 전개가 필요하며 컨벤션도시 구상 추진의 첫걸음은 여기서 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컨벤션도시가 '都市' 그 자체를 상품으로써 판매한다는 점에서 來訪客들로부터 쾌적함과 감동을 주는 도시, 혹은 걸어나다니면서 즐길 수 있는 도시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도시환경의 창출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지역고유의 자원을 도시환경의 연출 자원으로 활용하고 어메니티 타운(amenity town)으로 정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앞으로 정보화가 급속히 추진되는 가운데 제3의 미디어로서 컨벤션이 가지는 의의가 높아지면 '사람이 모인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의 컨벤션기능은 '사람, 물건, 정보가 교류하는 도시의 터미널'로서 도시기능의 하나로 평가받게 될 것이다. 따라서 아시아지역에서의 國際會議産業의 성패 여부는 모든 컨벤션 시설을 갖추고 편안하고, 안전하게, 만족감을 느끼면서 會議를 할 수 있다는 이미지를 심어주는 것이 중요한 要素라고 할 것이다. 즉 아시아를 세계에 알리는 해외홍보 활동 및 적극적인 시장개척 전략이 필요하다 하겠다.

현재 국제행사에 팜플렛이나 나눠주는 식의 弘報로는 국제회의산업의 부흥이라는 기대에는 문제가 있다 하겠다. 이제는 과학적이고 적극적으로 국제홍보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한가지 방법으로 제안 한다면 아시아 국가를 3S의 국가 (The Country of Sweet, Safety, Satisfactions)으로 즉 안락하고, 안전하고, 만족한 이미지를 주는 지역으로 국제회의를 관장하는 각종 團體 및 專門雜誌에 먼저 알리는 것이다.

〈표13〉 국제회의 및 보상관광 전문잡지 현황

지역별	매 체 별	매체성격	발행부수	발간주기
미 주	Meeting & Convention Center	국제회의 관련매체	80,000부	월간
	Corporate Meeting & Incentives	국제회의 관련매체	45,000부	월간
	OMFG	국제회의 및 보상관광 관련	15,000부	연2회
구 주	Tagung and Wirtschaft	국제회의 및 보상관광관련	16,000부	연8회
	Incentive Travel	보상관광 단련	15,000부	격월간

지역별	매 체 별	매체성격	발행부수	발간주기
구 주	Meeting & Incentive Travel	국제회의 및 보상관광 관련	14,000부	연10회
아 주	Asian Meeting & Incentive	국제회의 및 보상관광 관련	12,000부	격월간
	Congress & Convention	국제회의 및 전시박람회 관련	70,000부	계간
	Nikkei Events	국제회의 및 전시박람회 관련	17,000부	월간
	PIN - Asia/Pacific	여행업계 및 보상관광관련	13,000부	월간

자료: 국제회의산업, 한국관광공사 국제협력부, 1996.

그런가하면 뉴미디어 도입을 통한 컨벤션 유치 전략도 필요하다 하겠다. 즉 아시아에서의 컨벤션 개최에 따른 다양한 편의제공에 대한 데이터베이스(Date Base)의 작성이 마케팅 세일즈의 효율화에 도움이 된다. 즉 효율적인 판촉활동을 추진하기 위해서 컨벤션 스케줄의 데이터뱅크를 구축하여 우편홍보를 위한 발송이나 영업계획의 입안에 활용할 수 있는 기반정비이다. 이것은 컨벤션 관계자에게 있어서도 가치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된다.

다음으로 컨벤션 유치의 의사결과 관계되는 관계자를 중심으로 한 인재 데이터뱅크를 구축함으로써 신규이벤트, 컨벤션의 발굴, 기획, 공동개최시의 인재활용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또 컨벤션 서비스 관련기업, 인재와 관계되는 데이터를 입력한 컨벤션서비스 데이터 뱅크를 구축하여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컨벤션산업의 진흥과 연결시키는 것이다. 또한 영업활동에 역점을 두기 위해서는 미국에서 일반화되고 있듯이 예약컴퓨터의 도입에 의해서 수년후 까지 예약을 신속하게 실행할 수 있는 시스템의 도입도 중요하다. 이외에 내방객을 위한 정보제공 서비스도 다양하게 구성해야 한다. 비디오텍스를 통해 정보의 영상화를 실시하여 다양한 지역관련 정보도 얻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이러한 점을 종합해 볼 때 정보의 핵심요소는 우리들이 지니고 있는 내면요소를 담고 효과적으로 그리고 면밀한 전략적 차원에서 弘報해야 할 것이다. 그런면에서 볼 때 아직까지도 전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회의/

인센티브 시장은 北美市場이다. 미국인들과 캐나다인들 사이에는 북미지역을 벗어나 좀 더 異國的인 목적지를 찾으려는 경향이 점점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인센티브 산업이 발전하고 국제화됨에 따라 이국적인 인센티브 프로그램의 개발도 증가되고 있다.

북미인들은 주로 어느 곳으로 인센티브 그리고 컨벤션여행을 떠나는가? 왜 더 많은 북미인들이 아시아지역을 목적지로 하지 않는 것인가? 북미인들의 해외여행은 통상 인접국이나 카리비안 등 가까운 곳에서 시작하여 나중에는 유럽을 목적지로 하는 패턴(pattern)을 보이는 데 이것이 바로 아시아가 극복해야 할 첫 번째 障壁인 것이다. 대부분의 북미인들에게는 유럽이 어느지역보다도 魅力的인 곳으로 인식되어 있다. 그러면 아시아 국가들이 더 많은 북미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점에 着眼하여야 하는가?

첫째, 친근감을 심어 주어야 한다.

대다수의 북미인들은 아시아가 편안한 旅行을 즐길 수 있는 지역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 아시아를 여행하면 색다른 음식이나 풍물을 경험하게 됨은 물론 다른 언어와도 부딪히게 되는데, 특히 언어장벽에 대해서는 상당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영어는 유럽에서 보다는 아시아에서 더 많이 쓰이기 때문에 언어에 관한 한 실제로는 아시아지역이 유럽보다 더 편할 수 있다. 바로 이점을 認識시켜야 한다. 아시아의 학교에서는 영어를 필수 외국어로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상당히 놀랄 것이다. 이처럼 일단 언어장벽에 대하여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문화와 음식에 대한 關心이 더 증대될 것이다.

둘째, 아시아는 物價가 싸다는 점을 강조하여야 한다.

1990년대에 들어 북미인들은 유럽에서 가장 많은 觀光外貨를 소비하고 있다. 거의 모든 부문에서 아시아는 유럽보다 가격이 싸다. 일본을 제외한 모든 국가들이 물가가 싼편인 데 이러한 강점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아시아의 인센티브여행 공급업자들은 그들이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여행 프로그램을 반드시 그 가격(단위 : US \$)과 함께 제시할 필요가 있다.

셋째, 거리가 멀다는 先入見을 불식시켜야 한다.

아시아 국가들은 그 위치를 알려야 하며, 멀다는 선입견에서 올지도 모르는 부정적 요인을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미국 학교에서는 지난 30년간 지리에 대하여 가르치지 않았다. 따라서 아시아 국가들이 지구상에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가? 그들 국가끼리는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 그리고 북미에서 아시아까지는 얼마나 걸리는가 등에 대하여 특히, 成人들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는 것이다. 유럽이나 아시아나 하루가 걸리기는 마찬가지라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유럽과 거의 비슷한 시간대에 도착할 수 있고 價格이 싸고 異國的이며 친근감있는 아시아 여행을 즐길수 있다는 점을 弘報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북미지역의 회의 및 인센티브시장 개척을 위해 밝아야 할 단계를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1. 自國에 대한 홍보를 먼저 실시한다.

호텔업자, 호화 유람선업자, 항공업자, 여행업자들은 그 직종에 관계없이 자국 홍보에 우선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자국의 정부관광기구등 인센티브 여행 관련 공공기관과 공동 프로모션 활동을 전개하면 효과적이며, 북미지역의 언론인들과 독특한 협력관계를 맺으면 큰 도움이 된다.

2. 홍보물에는 地理에 대하여 설명한다.

북미의 관문도시들로부터 아시아의 주요 관문까지는 얼마나 걸리는 지를 알릴 필요가 있다. 정확한 축소판 지도를 실으면 효과적인 데 이 때에 거리는 미터법 단위보다는 마일(mile)로 표기하는 것이 좋다.

3. 아시아를 처음 여행할 북미인을 겨냥하여 아시아는 서구적 요소도 갖추고 있어 편안한 여행을 즐길 수 있는 곳임을 강조한다. 여러 요소중에서 言語가 특히 중요한 부분이다. 아시아에서 영어가 얼마나 널리 쓰이고 있는 지를 설명해야 하며 많은 학교에서 영어를 필수 외국어로 채택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는 것도 좋다.

4. 安全에 대하여 강조한다.

실제로 아시아는 북미지역보다 범죄율이 상당히 낮은 편이다. 직설적인 표현보다는 누구나 24시간 언제라도 거리를 산책하거나 윈도우 쇼핑을 즐길 수 있다는 식의 표현이 좋을 것이다.

5. 색다른 점을 강조한다.

방문국의 文化를 경험하고 싶다는 것이 북미인들의 중요한 여행 목적 가운데 하나인데, 대부분의 아시아 문화는 모든 사람들에게 낯설다는 強點을 지니고 있다. 음식이 이국적이지만 그 재료는 북미인들에게 친근한 것을 사용한다는 점과 유럽식의 스포츠 행사를 볼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특히 문화가 오랜 歷史에 바탕을 두고 이루어졌다는 점을 강조하여야 한다.

6. 실제로도 그렇지만, 아시아가 자랑하는 세계 제일의 서비스 수준에 대하여 강조한다.

7. 각국의 특징에 대하여 강조한다.

많은 미국인들은 아시아의 모든 국가가 일본이나 중국과 大同小異 할 것이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다. 일본과 중국에 대해서는 언론매체를 통해서 아주 강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보통은 否定的인 것이다. 따라서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는 다른 그 나라 특유의 이미지를 加味하여 방문해 보고 싶다는 關心을 불러 일으켜야 한다.

8. 북미시장의 지역별 고유특성에 대하여 熟知하여야 한다.

영어가 공용어이긴 하지만 다른 언어가 더 많이 쓰이는 지역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북미는 지역에 따라 문화가 매우 독특하다. 뉴욕지역에서는 성공적이었던 판촉활동이 애틀란타에서는 완전히 실패로 끝날 수도 있는 것이다.

9. 現地 요원을 확보한다.

시장 특성을 잘 알고 있는 현지 요원을 확보하여 최신 정보와 마케팅활동의 지원을 받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北美人들이 유럽여행에서 기대할 수 있는 것을 아시아에서도 얻을 수 있다는 認識을 심어줌으로써 아시아 지역에 대한 관심도를 높여야 한다. 지리에 관한 사항을 알려주어야 하고 향수를 느낄 경우에 대비하여 미국에서 처럼 패스트푸드 체인망이 갖추어져 있다는 점도 알리면 좋다. 아시아지역 여행을 통해서 친근감있는 요소와 이국적인 요소가 調和를 이룬 관광매력을 경험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야 한다.³⁰⁾

30) SITE University 참가 결과보고, 한국관광공사, 1992, pp. 46-47.

第 4 節 世界的 脈絡

국제회의산업의 세계적인 맥락은 기반시설인 컨벤션센터를 통해 소규모 연회, 신상품 소개회, 교역전으로 부터 국내회의, 소규모 회의와 전시회를 수반하는 國際機構 회의에 이르기까지 각종 행사의 개최장소로 소화하고 있다. 컨벤션 센터가 이와같이 다양한 형태의 행사를 성공리에 유치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컨벤션 센터가 회의, 연회, 전시회에 필요한 모든 시설을 한 지붕밑에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컨벤션 센터는 대형회의와 전시회를 동시에 수용할 수 있을 만큼 대규모이며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있다. 즉 하나의 團地안에 회의장과 전시장은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개의 전시실과 회의실을 별도로 갖추고 있다. 컨벤션 센터 덕분에 국제기구들은 국제회의 개최시 대규모 전시회를 並行 개최할 수 있게 되었다. 전세계에서 의사결정권자들이 參觀하는 전시회를 개최할 경우 여기서 얻은 이익금으로 국제회의를 개최하는데 드는 비용을 상쇄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대형 행사는 세계적으로 보편화 되어가고 있는데 전시회와 회의개최에 필요한 전문적인 실무지식을 제공받아 이러한 대형 행사를 한 장소에서 치루는 것은 컨벤션 센터에서만 가능한 일이다.

컨벤션 센터는 어떤 규모의 회의도 수용할 수가 있다는 強點을 지니고 있다. 컨벤션 센터는 충분한 공간과 부속시설, 기술인력과 장비를 갖추고 있으므로 회의, 전시회, 그 밖의 많은 행사를 그 규모에 관계 없이 同時에 수용할 수 있다. 컨벤션센터는 회의를 준비하고 운영하는 데 전문적인 능력을 갖추고 있는데 바로 이러한 능력이 컨벤션 센터의 실적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컨벤션 센터의 또 다른 강점은 대량 처리 능력이다. 예를들면 대부분의 컨벤션 센터에서는 트럭을 전시장으로 몰고 들어가 트럭들을 그대로 놓아둔 상태로 그 주위에 테이블을 설치할 수 있다. 대량 처리능력은 신속도 측면에서도 마찬가지다. 20명분이든 2,000명분이든 그 양에 관계없이 고급 음식의 대량주문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으며 높은 수준의 서비스 제공도 가능하다. 오찬을 결들인 세미나장을 晚餐場으로 재배치 하는 것과 같이 행사장을 단시간

31) Meeting & Conventions지 Asia/Pacific판 1993년 제 2 호
(홍콩에서 발간되는 국제회의 전문지).

내에 행사내용을 맞추어 전환시키는 능력 또한 컨벤션 센터가 갖춘 매우 중요한 능력이다. 그런가 하면 컨벤션 센터는 대규모 단체만을 위한 것은 아니다. 소규모 단체의 특별메뉴, 비품, 장식, 특수 분위기 조성등과 같은 여러 가지의 요구도 쉽게 처리할 수 있다. PCO의 주문사항이 점점 세련되어 감에 따라 컨벤션 센터는 고객의 다양한 요구에 대한 처리 능력 배양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 최첨단 비디오, 음향·시청각 기자재 제공, 회의장이나 전시장 공간의 탄력적 활용, 좌석의 재배치, 트럭이나 기계류와 같은 대형 물품의 신속하고 용이한 반입 등 많은 부문에서 전문 능력을 갖추게 되었는데 이러한 능력은 각 행사의 준비 및 철수에 소요되는 시간을 크게 절감시켜 주고 있다. 이처럼 모든 시설을 한 지붕밑에 갖추고 있는 세계 주요 국가의 컨벤션센터의 시설을 보면 수용 규모면에서는 최소 2,500명에서 최대 15,000명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를 지니고 있다.³¹⁾

〈표14〉 세계 주요국 컨벤션센터 시설현황

국 가	명 칭	소 재 지	수용인원	설립년도
독 일	International Congress	베를린	5,000명 고정식	79
	Messe Zentrum Nuremberg	뉴렘베르크	5,000명	91
프 랑 스	아크로폴리스 컨벤션센터	니스	2,500명	85
미 국	Jacob K. Javits Convention Center	뉴욕	3,600명	86
	McCormic Place	시카고	15,000명이상	60
스 위 스	Kongress Zentrum Messe Bzsel	바젤	9,400명 고정식	84
캐 나 다	Montreal Convention Center	몬트리얼	6,000명 고정식	83

자료 : 독일 Tagungs-Wirtschaft Convention Industry, 92.11 및 매일경제,94.5.7.,9면.

1. 세계 주요 국가의 국제회의산업

국제협회연합(UIA)의 발표에 따르면 1995년 세계에서 개최된 국제회의 件數는 모두 8,802건으로 '94년도에 비해 2.94%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大陸別로는 대부분

지역에서 개최건수가 감소했지만 아시아·대양주 지역에서만 소폭의 증가를 보였는데 특히 아시아지역은 국가적인 컨벤션 진흥정책에 힘입어 최근 몇 년 동안 지속적인 증가를 기록하고 있다. 대륙별 개최 순위는 ①유럽 ②미주 ③아시아 ④아프리카 ⑤대양주로 지난 5년간 변화가 없으나 유럽의 점유율은 '92년 61.42%, '93년 59.76%, '94년 58.95% , '95년 58.61%로 점차 감소하고 있는 반면 아시아 지역의 占有率은 '92년 11.80%에서 '95년 13.72%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15-1〉 세계 국제회의 개최건수

구분 \ 연도	1991	1992	1993	1994	1995
개최건수	8,251	8,703	88,71	9,069	8,802
증감율(%)	-3.59	5.47	1.93	2.23	-2.94

주) 개최지 미확인 국제회의 건수가 포함된 수치임.
 자료 : 세계국제회의산업 현황, 한국관광공사, 1996.

〈표 15-2〉 세계 국제회의 개최현황

월별	1991		1992		1993		1994		1995	
	건수	구성비(%)								
아프리카	368	4.49	399	4.63	446	5.05	470	5.23	435	4.99
미 주	1,547	18.88	1,762	20.42	1,802	20.44	1,825	20.32	1,746	20.04
아시아	985	12.02	1,018	11.80	1,138	12.91	1,181	13.15	1,195	13.72
대양주	187	2.28	149	1.73	162	1.84	211	2.35	230	2.64
유럽	5,107	62.33	5,299	61.42	5,269	59.76	5,294	58.95	5,106	58.61
계	8,194	100.00	8,267	100.00	8,817	100.00	8,981	100.00	8,712	100.00

주) 개최지 미 확인된 국제회의는 통계에서 제외됨.
 자료 : 세계국제회의산업 현황, 한국관광공사, 1996.

그리고 '95년 국가별 국제회의 개최건수 상위 5 개국은 전년과 동일하게 ① 미국 (1,004건, 점유율 11.52%) ② 프랑스 (728건, 8.35%) ③ 영국 (637건, 7.31%) ④ 독일 (512건, 5.87%) ⑤ 이태리 (387건, 4.44%) 순이었다. 이들 상위 5개국의 국제회의 개

최건수는 3,268건으로 '94년 3,382건보다 114건이 감소하긴 하였으나 아직도 전체의 37.51% 라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상위 10개국의 개최현황을 살펴보면 미국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유럽국가들로서 이들 10개국에서 개최된 국제회의가 전세계 국제회의의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95년도에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인 나라는 호주, 싱가포르, 홍콩, 중국, 한국 등으로 아시아·대양주 국가들이 새로운 국제회의 개최국으로 대거 등장하고 있다. 한국은 전년의 65건에 비해 무려 26.2%나 증가한 82건의 국제회의를 '95년도에 개최하여 개최순위가 전년도 33위에서 26위로 크게 뛰어 올랐다.

〈표15-3〉 주요국가 국제회의 개최현황

1995년			1994년		1993년		1992년		1991년	
순위	국가명	개최건수	순위	개최건수	순위	개최건수	순위	개최건수	순위	개최건수
1	미 국	1,004	1	1,005	1	1,018	1	982	1	880
2	프 랑 스	728	2	786	2	745	2	789	2	761
3	영 국	637	3	645	3	633	3	577	3	660
4	독 일	512	4	561	4	535	4	544	4	546
5	이 태 리	387	5	385	5	380	7	359	7	304
6	네델란드	318	6	349	6	347	6	380	5	385
7	벨 기 에	292	7	301	7	312	8	323	9	289
8	오스트리아	282	8	288	10	263	11	244	8	294
9	스 위 스	279	9	256	9	272	9	271	6	313
10	스 페 인	247	10	245	8	300	5	417	10	264
11	일 본	229	12	228	11	240	10	248	11	239
12	캐 나 다	226	11	240	12	218	12	224	12	183
13	허 주	179	14	144	19	115	19	106	15	130
14	싱가포르	140	17	118	18	116	18	112	19	110
15	핀 란 드	139	16	137	14	134	14	148	14	152
16	덴 마 크	132	13	170	13	174	13	196	13	158
17	노르웨이	131	15	142	17	124	22	99	17	123
18	스 웨 덴	126	18	117	15	126	15	129	16	124

1995년			1994년		1993년		1992년		1991년	
순위	국가명	개최건수	순위	개최건수	순위	개최건수	순위	개최건수	순위	개최건수
19	홍콩	102	23	91	20	108	25	86	22	102
20	중국	97	31	73	23	94	26	71	25	78
21	이스라엘	97	21	95	28	83	30	60	30	57
22	체코	94	24	85	31	70	17	120	21	103
23	남아공화국	94	27	81	36	51	50	22	N/A	15
24	헝가리	89	21	95	16	125	21	100	18	113
25	인도	83	20	98	21	105	20	104	23	100
26	한국	82	33	65	32	68	42	31	40	32
27	폴란드	81	31	73	22	101	29	62	33	52
28	러시아	74	30	75	25	89	33	57	20	105
29	아일랜드	73	19	103	24	91	23	89	29	58
30	브라질	73	24	85	29	82	16	121	24	90
31	포르투갈	69	19	103	24	91	23	89	29	58
32	그리스	69	26	83	27	84	24	88	30	57
33	아르헨티나	66	34	62	30	75	28	63	30	57
34	멕시코	62	28	80	26	87	27	64	27	61

주) N/A : not available.
 자료 : UIA.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한편 '95년 도시별 순위에서는 파리가 332건을 개최하여 예년과 다름없이 1위를 차지했다. 상위 10위권에는 유럽지역의 6개 도시가 포함되었으며 아시아 지역에서는 싱가포르와 홍콩이, 미주 지역에서는 뉴욕과 워싱턴이 각각 포함되었다. 상위 10개 도시의 점유율은 18.82%에 달해 국제회의는 여전히 몇몇 도시에서 집중 개최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95년도에 새롭게 10위권내에 진입한 도시는 워싱턴, 홍콩이 있으며 20위권에 진입한 도시로는 몬트리올, 서울,북경이 있다. 서울은 '94년도의 55건에 비해 27.3%가 증가한 70건을 개최하여 세계 26위에서 세계 18위의 국제회의 개최 도시로 부상하였다.

〈표15-4〉 주요도시 국제회의 개최현황

1995년			1994년		1993년		1992년		1991년	
순위	국가명	개최건수	순위	개최건수	순위	개최건수	순위	개최건수	순위	개최건수
1	파 리	332	1	358	1	355	1	407	1	349
2	비 엔 나	200	3	203	4	163	4	161	3	230
3	런 던	192	2	205	2	191	2	185	2	244
4	브뤼셀	174	4	182	3	164	3	184	4	184
5	제네바	168	5	124	5	145	6	138	5	178
6	싱가포르	140	6	118	7	116	8	112	7	110
7	뉴욕	114	10	97	18	68	21	60	20	58
8	암스텔담	110	7	112	9	103	7	115	9	106
9	워싱턴	108	12	95	12	95	9	109	13	86
10	홍콩	103	13	91	8	108	14	86	10	102
11	베를린	93	8	106	6	117	11	101	6	166
12	코펜하겐	88	9	100	10	99	12	100	12	89
13	몬트리올	85	29	49	24	52	17	74	24	53
14	로마	82	15	78	15	89	23	58	17	66
15	마드리드	80	14	89	16	87	5	159	11	100
16	프라하	76	18	66	37	42	16	81	18	60
17	스트라스부르크	73	10	97	12	95	13	95	8	107
18	서울	70	26	55	20	59	53	28	48	30
19	부다페스트	67	15	78	11	97	15	85	15	82
20	베이징	66	28	53	21	55	35	41	28	46
21	스톡홀름	65	21	61	19	67	22	59	23	54
22	헬싱키	63	18	66	22	54	24	57	18	60
23	바르셀로나	62	21	61	16	87	9	109	16	77
24	더블린	62	47	33	48	34	33	44	28	46
25	샌프란시스코	59	31	45	31	48	26	51	27	47
26	예루살렘	55	25	56	31	48	43	37	46	32
27	멜버른	55	N/A	N/A	N/A	N/A	N/A	N/A	N/A	N/A
28	도쿄	51	26	55	14	90	17	74	14	84
29	시드니	51	33	42	54	32	48	31	37	37
30	오슬로	48	23	60	28	49	24	57	24	53

자료 : UIA N/A : not available.

그런가 하면 세계에서 개최되는 國際會議를 참가자수의 측면에서 보면 1,000명이
 하의 회의가 대부분이며 1,000명이 넘는 회의는 전년도 보다 다소 증가하여 13.33%
 를 차지한 것으로 集計되었다. 한편 세계에서 개최된 국제회의의 평균 회의기간은 4
 일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15-5〉 국제회의 참가자 규모별 분포

구 분	1995년(%)	1994년(%)	1993년(%)	1992년(%)	1991년(%)
100명미만	14.19	15.50	14.57	13.11	16.82
100~500명	55.88	56.54	58.42	59.40	58.71
501~100명	16.60	15.54	14.47	14.80	14.41
1001~3000명	10.10	9.22	9.72	9.85	8.05
3001명이상	3.23	3.20	2.82	2.84	2.01

자료 : UIA.

그리고 '95년도 국제회의 중 전시회와 함께 개최된 국제회의는 전체 회의의
 12.52%로 '94년도의 12.29%에 비해 약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95년중 국제회의
 가 가장 많이 개최된 時期는 예년과 같이 9월, 10월로 전체의 26.19%의 국제회의가
 개최되었으며, 동절기인 12월과 1월이 국제회의 개최 시기로는 가장 인기가 없는 것
 으로 나타났다.

2. 세계 주요국가의 컨벤션센터 운영

세계 주요 선진국가에서는 컨벤션시설의 대부분을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건설하고
 운영은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위탁하는 형태를 띠는가 하면, 제3섹터 방식의 官·
 民 공동투자 법인체를 설립하여 그로 하여금 건설과 운영을 맡도록 하는 경우와 공
 의 법인체를 설립하여 건설과 운영을 맡도록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표16-1〉컨벤션시설 운영형태

운영주체	지방자치단체	제3섹터	공익법인체
사례	· 일본 - MaKuhari Messe의 전시장 부분/Nagoya Port Messe · 대만 - Taipei WTC 전시장	· 일본 - Pacifico Yokohama/MaKuhari Messe의 국제회의장 및 이벤트 홀	· 영국 - 버밍햄국제컨벤션센터 · 독일 - 베를린ICC · 미국 - McCormic Place Complex 및 Jacob K. Javits 전시장

자료 : 세계국제회의산업 자료 요약, 한국관광공사, 1996.

이처럼 地方自治團體나 제3섹터, 공익법인체등이 主體가 돼 설립 및 운영을 한다 하더라도 컨벤션시설의 건립 및 운영에 있어 모든 경우 정부차원의 토지를 無償으로 공여하고 건설비용도 직접 건설과 공익 법인체를 설립하는 경우는 전액 또는 건설비용의 일부를 보조해 주고 있다.

〈표16-2〉 컨벤션 시설 지원 사례

구분	토지 무상 공여	전액 보조	일부 보조
사례	모든 경우	· 미국 - McCormic Place Complex 및 Jacob K. Javits	· 일본 - Pacifico Yokohama/MaKuhari Messe의 국제회의장 및 이벤트 홀 부분

자료 : 세계국제회의산업 자료 요약, 한국관광공사, 1996.

그런가 하면 모든 경우에 있어 각종 稅制를 면제해 주거나 減免해 주고 있으며 운영 수지 보전을 위하여 위탁 대행 수수료나 지원금 등의 정부 보조금을 제공해 주고 있다. 심지어 일본의 Pacifico Yokohama 와 Makuhari Messe 국제회의장 및 이벤트 홀 지원을 위한 "민간 사업자의 능력 활용을 통한 특정 시설 정비 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 그리고 미국의 McCormic Place Complex 지원을 위한 "Metropolitan Pier & Exposition Authority ACT" 및 Jacob K. Javits 전시장 지원을 위한 "1979 Act" 등과 같은 컨벤션시설 지원을 위한 임시조치법까지 마련하고 있다.

이밖에 직·간접적인 문화·경제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컨벤션 및 무역 관련 전시 시설의 건설, 유지 및 운영비용의 지원 차원에서 컨벤션시설로 부터 혜택을 받는 호텔 등의 숙박시설에 대해 특별소비세를 부과 한다든지 (예: Hotel/Motel Tax Legislation(Title 67 RCW- Chapter 67.40 Convention and Trade Facilities), 호텔 숙박료에 일정 금액을 부과 징수하는 사례(WASHINGTON D.C 소재 법인의 법인세(9%) 해당 금액에 10%의 부가세를 추가로 징수하여 그 반액(0.45%)을 컨벤션센터 기금으로 운용)에서도 볼 수 있듯이 세계 각국은 컨벤션센터를 社會間接資本施設 분류해 지원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3. 세계 주요 국가의 국제회의산업 유치 전략 -인센티브관광

세계 주요 국가들은 규모에 구애 받지 않고 작지만 質이 높은 컨벤션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것은 컨벤션의 테마나 내용이 좋으면 참가자가 많이 모이게 되고 그 컨벤션은 성공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성공 경험의 축적이 컨벤션 도시로 변신해 나가는데 있어 추진력이 되며 여러 가지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세계의 국제회의 개최건수는 앞으로 분명히 대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시점에서 지금까지와 같이 대도시만으로는 증가하는 국제회의 개최에 대응할 수 없게 되어 세계 지방도시도 일부분을 담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 지역의 입장에서 국제회의의 촉진이라는 측면에서의 국제회의 유치에 대한 기대 또한 매우 크다. 그러나 실제로 국제회의를 개최하는 데는 시설 이나 설비, 인재 등의 부족 현상으로 인해 지방 중소도시에서 개최하는 데는 많은 문제가 있다. 따라서 세계 각국은 국내적인 컨벤션을 목표로 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제적 컨벤션 개최의 능력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이라고 믿고 있다. 미국의 보상관광자 협회(SITE : Society of Incentive Travel Executive)에서는 인센티브 여행을 "目的이나 目標를 달성한 중

사원(특히 판매원),대리점,고객들에게 관광이라는 형태로 보상하므로써 그 動機를 부여하기위한 현대 경영의 道具”라고 정의하고 있다.³²⁾

한편 일본의 관광용어 사전에 의하면 인센티브 여행이란 기업이 자사 제품의 대리점, 판매점 중에서 판매 매출액이 높은 회사를 보상하기 위해 초대하는 여행을 칭하지만 현재에는 좀 더 협의의 범위를 확대해서 기업이 대리점에 대해 세일즈 프로모션을 위해 실시하는 것을 포함한다.³³⁾ 그런가 하면 윤태순 교수는 그의 저서 『여행사 경영론』에서 인센티브여행을 “보상관광”이라 정의 하였다.³⁴⁾

이상과 같이 인센티브여행의 정의를 나열해 보았는데 본 研究에서는 한국 관광공사에서 발간한 “Convention & Incentive Travel Marketing Report”의 정의를 따른다.

인센티브 여행은 기업이 일정한 목표달성에 대하여 고객, 판매원 및 기타 고용원에게 여행의 형태로 보상함으로써 士氣를 진작시키는 일종의 마케팅 관리 수단이다.

또한 과거의 전형적인 인센티브 프로그램은 기업체가 우수한 판매사원을 선정하여 여행을 실시하는 것이었으나 최근 기업들은 판매원 뿐만 아니라 그 외의 고용원에게도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심지어 소비자에게 까지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그리고 일부 기업에서는 판매원들의 활동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時差制에 의한 개인 인센티브를 많이 이용하고 있으며 인센티브 프로그램에 세미나를 포함하는 기업이 있고 가족을 중시하여 어린이를 여행에 동반하는 기업도 있으며 기획이 더욱 복잡한 등급별 프로그램과 多目的地 여행이 있다. 이는 많은 여행 참가자들이 개인적으로 여행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향을 반영하는 것이다.³⁵⁾

인센티브 여행은 매우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으며 대개가 비수기에 실시되고 여행단체가 전문적인 서비스를 요구함으로써 취급업체에 보다 많은 利得을 가져다 준다. 인센티브 여행은 補償으로써 제공되는 만큼 그 규모 및 내용이 특이해야 하고 기본적인 여행경비를 기업이나 스폰서가 부담하므로 일반여행에 비해 消費性이

32) SITE , Incentive Travel FACT Sheet, 1987, p. 1.

33) 현대관광용어사전, 일본교통공사, 1984, p. 13.

34) 윤태순, 「여행사 경영론」,기문사, 1988, p. 55.

35) 한국관광공사, C & IT Market Report, 1990, 3, p. 5.

높다.

인센티브를 물질이나 재화 등 상품의 형태로 제시되었던 것이 점차 여행 형태로 변화하는 기업이 증가하고 있으며 수혜대상도 초장기에는 세일즈와 관련있는 직원들만이 주 대상이 되었으나 이제는 일부 부서의 직원들에게 까지 확대되고 프로그램의 내용면에서도 참가자 본인 이외에 배우자 및 자녀들까지 포함되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다양한 목적지의 여행(Multi-tired programs and Multiple destination trips)으로의 경향을 보이고 있다.³⁶⁾ 그러므로 企業은 의미있고 추억에 남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고위 간부들이 최종 결정에 참여하고 여행에 동반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인센티브 여행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³⁷⁾

첫째, 인센티브 여행은 중요한 고객 및 종사원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고위 간부들의 관심의 대상이다. 개최지 선정에 있어서 주요 목적지의 시찰과 여행 프로그램의 세부적인 답사에 직접 참여하기도 한다.

둘째, 인센티브 여행은 전반적인 관리나 마케팅 프로그램의 일부이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통해 계획하고 설문 등을 통한 소비자나 여행자의 선호도를 충분히 반영한다. 그러나 그 대상 및 인원은 여행실시에 압박하여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셋째, 인센티브 여행은 기업에 따라 同性끼리 여행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배우자를 동반하는 추세로 그 규모에 있어 100명이상의 대규모이다.³⁸⁾

넷째, 단체 인센티브 여행은 각종 테마파티 및 최종연회를 실시하며 기업은 마케팅 테마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독특한 행사 및 서비스를 요구한다.

이상과 같은 인센티브 여행의 특성으로 인해 취급업체는 명확한 계약 및 취소조건과 더불어 보증된 요금을 제시하여야 하며 기업에 대하여 홍보 간행물, 천연색 전광판넬, 선물 등을 제공하므로써 기업이 관심을 갖도록 유도하고 구체적인 목적지와 취급업체를 부각 시키는 계기를 조성해야 한다.

36) 한국관광공사, C & IT Market Report, 1989, 10, 부록, pp. 3-4.

37) 한국관광공사 전계리포트, pp. 7-15.

38) 대한항공사, 국내 인센티브 및 세미나 수요 현황, 1991-1993년.

한편 인센티브 여행의 유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다섯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판매원 인센티브 여행은 판매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포상 여행으로 기업은 일정한 판매목표를 달성했거나 거래 갱신고객의 만족, 판매수익 등의 실적을 성취한 판매원에 대한 보상으로 여행을 제공하고 있으며 포상여행의 경향은 단체여행이 일반적인 형태이고 개별여행도 점증하고 있다.

둘째, 대리점 인센티브 여행은 대규모 도매 및 소매망을 확보하고 있는 기업에서 보편적으로 행해지고 있으며 대부분 단체 여행의 형태로 실시된다. 그 主 對 象은 판매원(대리점장 등)이지만 판매 카운터 직원에게 까지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여행은 단순여행보다는 판매 촉진 會議 형태로 이루어지며 기업과 유통업자간의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셋째, 비판매 고용원 인센티브 여행은 판매원 대상보다는 덜 중시되는 경향이 있지만 레크레이션 프로그램과 함께 각종 훈련 세미나를 포함한다. 통상 워크샵, 노사 세미나 등으로 표현되며 참가자는 생산직과 사무직으로 구성된다. 소규모 단체 여행 이면서도 여러 次 數로 나누어 실시된다.³⁹⁾

넷째, 소비자 인센티브 여행은 경마, 콘테스트 경품, 애용자에 대한 답례, 고가의 상품판매를 위한 소비자 弘報에 주로 이용된다. 이는 소비 촉진을 위한 여행이라고 할 수 있으며 소비자의 관심을 유발시키기 위해 質이 높은 단체 인센티브 여행이 무색할 정도로 공을 들여 기획을 하기도 하고 타기업과는 특별한 경쟁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상의 4가지 인센티브 여행은 주로 단체여행에 해당된다. 그러나 기업에서는 단체 여행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인센티브 여행에 참가할 수 있다. 이와같이 개별적인 참가여행을 개별 인센티브 여행이라 부른다.

다섯째, 개별 인센티브 여행은 기업의 대다수가 판매원, 대리점, 비판매 고용원 및 소비자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많은 인원이 한 번에 참가할 수 없는 소규모 기업에서 실시되고 있다.

39) 제주 프린스호텔, 94영업전략회의 보고서, 서울사무소, 1994, p. 7.

40) 한국관광공사, 1992, SITE University 참가 결과보고, 1992. 6, p 46-47.

〈표17〉 개인별/단체별 인센티브 여행의 장점

개 인 별	단 체 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광목적지 선택의 폭이 넓음 - 소수의 인원선정으로 인센티브 여행의 수행이 용이함 - 가족 동반이 가능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취된 결과에 따라 적절한 수준의 인센티브 여행상품을 제공함 - 교육적 정서적 효과가 고양됨 - 자상상품의 만족효과가 배가됨 - 구성원간의 동지에 및 인간적인 분위기를 성숙시킴

자료: SITE University 참가결과보고, 한국관광공사, 1992, 6, p.47.

오늘날 컨벤션과 가장 밀접한 관련 업종이 호텔산업으로 이에 대한 긍정적인 활성화 方案이 더욱 모색되어야 하는데 즉 컨벤션을 호텔 마케팅의 대상이 되는 한 상품으로 보고 대처상황 및 대상 소비자들의 분석 그리고 시장의 세분화 작업을 통해 목표시장을 찾아내어 나름대로의 독특한 이미지를 定立시킬 수 있어야 함은 물론 상품 형성에 수반되는 제품, 가격, 유통, 촉진활동 측면에서의 효과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더불어 이러한 마케팅 믹스체제를 바탕으로 觀光商品으로서의 한 몫을 담당하고 있는 인센티브 컨벤션 관광의 戰略상품으로 살펴 보면,

가. 사교행사의 개발

- 연회장소와 연회부서의 활성화(각 국 고유한 음식을 가미한 음식 개발)
- 다양한 문화행사의 실시
- 해양 스포츠 등에 관련된 부대시설 확보 및 활용
- 참가대상 성향에 맞춘 동반자 행사 개발

나. 회의 前後 관광의 활성화

- 컨벤션 관광 수용태세 확보와 컨벤션 특성에 맞는 관광상품 開發
- 골프 등 스포츠를 비롯한 참가자 選好度를 반영한 특별기호관광(SIT)상품 개발
- 패키지 호텔 여행상품 개발
- 관광지 호텔과의 체인화를 통한 패키지 상품 개발

· 신시장 개척을 위한 다각적인 연계 노력

· 이벤트 상품의 接木을 통한 시장성 추구

이와같은 상품을 구성, 판매함에 있어 시장환경에 따라 신축성 있는 마케팅 수단을 개발해 나가고 있으며 세계 각국은 능동적인 상품 마케팅 전략을 수립해 인센티브 및 컨벤션 고객 창출을 誘導해 나가고 있다.



第 4 章 濟州地域 國際會議產業의 可能性 摸索

第 1 節 21세기의 濟州道

1. 21세기 제주의 모습

제주지역 국제회의산업의 부흥은 단순한 컨벤션센터 완공에 의해서가 아니라 21세기 제주도가 국제회의산업을 유치할 역량을 갖추고 있는가 하는 점을 점검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국제회의산업이 본격화되는 21세기 제주의 모습을 그려볼 필요가 있다. 즉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제주도의 개발모형은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해 지난 1994년부터 진행되고 있는 제주도 개발의 모습은 21세기의 서막을 알리는 2001년이 되면 그 윤곽을 드러내게 된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제주도 개발의 기조는 주민들의 실질적인 참여와 지역적 특성을 존중하는 바탕 아래 제주도가 보유하고 있는 각종 자원을 합리적, 효율적으로 개발·보존하여 지역현안을 해결하는 한편 장래의 여건 변화에 적절히 대처 할 수 있도록 정책방향과 지침을 설정함으로써 2000년대 제주도민 생활의 안정성, 쾌적성, 균형성을 재고 시키는데 있다.

즉 자연과 인간 그리고 개발이 상호 조화된 지역사회를 구현하고 지역간, 산업간, 계층간의 균형발전을 통하여 지역 통합성을 도모하고 있다. 그리고 제주도민들의 생활 환경 개선과 향토문화의 계승·발전을 통하여 「삶의질」을 향상시키며, 주민참여의 보장으로 사회적 형평을 도모하고 개발이익의 지역화를 실현하려 하고 있다. 이러한 기초하에 제주도 개발이 이루어졌을 때 21세기 제주도의 총 인구는 회귀분석과 조성법에 의한 추계결과를 토대로하여 관광객 변화를 포함한 제주도 지역경제구조 및 규모의 변화에 따른 영향을 고려한 후 추계하였는데, 1990년의 515천명의 인구가 1997년 557천명, 2001년에는 578천명으로 전망된다. 연평균 증가율은 1990~2001년 기간 동안 1.09%가 되며, 제주도 총 인구의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990년 1.19%에서 2001년 1.22%로 경미하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18-1〉 전국 및 제주도 총인구

(단위 : 천명, %)

구 분	1990	1997	2001	연평균증가율 (1990~2001)
전 국(A)	42,869	45,642	47,150	0.87
제주도(B)	515	557	578	1.09
B/A(%)	1.19	1.22	1.22	

주: 1990년 통계치는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1993) 자료임.
 자료 : 제주도종합개발계획, 제주도, 1996.

그리고 제주도 지역경제규모는 관광산업의 성장과 지속적인 농업생산 증대에 의하여 1990년 1조6,637억원에서 1997년 3조9,810억원, 2001년에 6조6,560억원에 달하며 1990~2001년 기간동안 연평균 성장률 13.4%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별 생산을 보면 1차산업부문은 대규모 집중투자에 의한 지속적인 생산증대로 1990년 6,009억원에서 1997년 1조990억원, 2001년 1조5,510억원을 달성하여 1990~2001년 기간동안 연평균 성장률 9.0%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나, 제주도 전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 36.1%에서 1997년 27.6%, 2001년 23.3%로 낮아질 전망이다.

2차산업은 자연적 및 지리적 입지조건의 특성에 의하여 그 증가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이나 지역의 농수산물 투입형 및 지역산업의 집중육성에 의하여 1990년 913억원에서 1997년 2,010억원, 2001년 3,160억원을 달성하여 1990~2001년 기간동안 연평균 성장률 12.0%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2차 산업의 전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 5.5%에서 1997년 5.0%, 2001년 4.7%로 전망된다.

3차산업은 지속적인 관광산업의 성장에 힘입어 1990년 9,716억원에서 1990~2001년 기간동안 연평균 성장률 15.6%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전산업에서 차지하는 구성비도 1990년 58.4%에서 1997년 67.4%, 2001년에는 72.0%로 높아져 점차 3차 산업중심으로 구조전환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1차산업 및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대규모 집중투자가 실현될 때 1인당 도민소득(GRP)은 1990년 3,274천원에서 1997년 7,147천원, 2001년에는 11,516천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표18-2〉 제주도의 지역총생산(GRP)의 전망

(단위 : 억원)

구분	1990	1997	2001	
GRP	억원	16,637	39,810	66,560
1차	(억원) (%)	6,009 (36.1)	10,990 (27.6)	15,510 (23.3)
2차	(억원) (%)	913 (5.5)	2,010 (5.0)	3,160 (4.7)
3차	(억원) (%)	9,715 (58.4)	26,810 (67.4)	47,890 (72.0)
1인당GRP	(천원)	3,274	7,147	11,516

주 : 경상가격 기준

자료 : 제주도종합개발계획, 제주도, 1996.

한편 사회문화 및 생활환경지표는 제주도의 인구와 경제지표를 바탕으로 국가발전과 전국의 사회 문화 및 생활환경 관련 지표를 준용하여 부문별로 설정되어 있다. 부문별 지표는 상하수도, 주택, 전화, 도록, 의료부문으로 분류하여 다음과 같이 설정되었다.

〈표18-3〉 사회문화 및 생활환경지표

구분	1990	1997	2001
주택보급율	78.3	86.5	93.0
상수도보급율(%)	99.9	100	100.0
1인당 급수량(1일 리터)	259	347	421
하수도 보급율(%)	23.6	54	70.0
도로포장율(%)	63.6	79	91.0
차량보유대수(천대)	43	134	152
전화가입대수(천대)	155	193	231
의료시설(인구 천명당 병상수)	2.8	4.4	6.0

자료 : 제주도종합개발계획, 제주도, 1996.

이처럼 21세기 제주의 모습은 3차 산업을 중심으로 한 쾌적한 도시로 변모해 나갈 것을 예견 할 수 있다.

2. 제주도민의 정체성 확립

제주도민들은 한반도와는 다른 자연환경과 독특한 문화 속에서 생활해 오는 동안 육지와는 다른 그 무엇을 가지게 되었다. 하지만 지난 1960년 이후 개발시대를 맞아 제주도민 만이 간직했던 정체성이 많이 퇴색되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중의 하나는 제주도민의 정체성 확립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제주도민은 누구인가?>, <제주도민은 무엇인가?>, <제주도에 특이한 것 또는 독특한 것은 무인인가?>, <제주도 다운 것은 무엇인가?> 등에 대한 제주도민의 재인식이 필요하다 하겠다.

正體性(identity)이란 "변화나 相異性으로 부터 구별되는 同一性이며" "다양한 실례다". 이 正體性이란 용어는 同一性, 連續性, 소속감 및 一體感을 의미하는 포괄적인 말이다. 따라서 제주도민의 정체성은 제주도민으로서의 소속감과 일체감이며 제주도민이라는 집단성에 대한 주관적인 감각과 집단환경과 지속하는 것이다. 제주도의 언어, 민속, 문화, 정치, 경제 영역에서 제주도적인 특성을 찾아 내고 각 영역별로 나타나는 자아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이다.

언어면에서는 音頭, 어휘, 형태에 나타나는 제주도 언어의 특성을 살려야 할 것이며, 의식주와 공동벌초와 같은 민속의 정체성, 그리고 가족, 친족, 혼인의 경우 分家主義 같은 사회·문화적 측면의 정체성, 그런가 하면 가까운 이웃 사람을 삼촌과 조차라고 부르는 것과 같은 공동의식체 같은 정체성 확립도 시급하다 하겠다. 평등의식의 경우 전통적인 제주도 농촌에서는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의식주에 거의 차이가 없는 평등사회 였다는 점. 가치관의 경우 삼무정신과 조냥정신, 강인과 검소, 자립심과 고난극복의지 및 독립심 등에 대한 제주도민의 정체성을 다시한번 음미해야 할 것이다. 이처럼 自我에 대한 정체성으로 제주도민으로서의 강한 긍지를 느끼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스럽게 이야기 할 수 있으며, 제주도에 살기를 바라며, 후손들에게도

자랑스럽게 제주도민임을 심어 줄 수 있는 제주도민의 自我 正體性 확립이 시급하다 하겠다.

第 2 節 濟州地域 國際會議產業의 可能性 摸索

1. 국제회의산업도시의 모델 - 오키나와컨벤션센터

국제회의산업도시로서 도약하려는 제주도의 입장에서 보면 세계의 수많은 컨벤션 도시중에서 제주도와 여건이 비슷한 일본 오키나와 컨벤션을 모델로 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 하겠다. 오키나와는 일본의 최남서단에 위치한 현으로 琉球列島가 그 영역이다. 유구열도는 북위 24도~27도, 동경 122도~131도에 걸쳐 큐우슈우 남단에서 대만에 이르는 1,300Km에 이르는 해상에 위치한 크고 작은 60여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다. 오키나와는 세계 2차대전후 27년간 미국의 지배하에 있었지만 1972년 5월 15일 일본에 귀속됐다. 오키나와의 면적은 2,254.52km이고, 인구는 121만1천486명, 행정구역은 10市 15町 28村이다. 오키나와는 그 지정학적 위치와 섬이라는 특성 때문에 일본 본토와는 다른 독특한 역사와 문화를 가지고 있다. 아열대성 해양섬으로 특이한 자연 및 인문경관을 비교적 있는 그대로 보존하고 있다. 이국적인 정서가 풍기는 남국의 바다, 수려하게 펼쳐진 거대한 산호초군 등이 그 풍광을 자랑하고 있고 西表국립공원, 오키나와 戰蹟國定公園, 오키나와 海岸국정공원, 久米島 縣立자연공원 등 많은 공원이 자리잡고 있다. 특히 아열대적 기후 특성으로 인하여 오키나와 이외의 지역에서는 볼 수 없는 동식물이 수없이 분포하고 있다. 오키나와는 중국과 동남아시아의 영향을 받아 독특한 문화를 발전시켜 왔고 島嶼라는 점 때문에 일본 본토에서는 이미 자취를 감춰버린 고대언어를 비롯한 고대 민속문화가 거의 원형대로 이어 내려오고 있다. 특히 오키나와 언어에 '마씨'라는 어미가 남아 있는 바, 이는 濟州語와 관련 많은 것을 시사해 준다.

海神祭, 豊年祭, 그물끌기 등 많은 민속행사가 연중 되고 있으며, 오키나와 독자의 풍토를 기초로 일본본토, 중국, 조선, 동남아 등과 오랜 교류협력을 통해 형성된 다양

한 전통공예품이 있으며, 특산품도 다채롭다. 이와같은 독특한 자원을 바탕으로 오끼나와 관광업이 발전하고 있는데, 현재 오끼나와의 관광의 매력은 크게 4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① 제2차 세계대전의 격전지로서 오끼나와를 그리는 이른바 전적지 ② 오끼나와의 생활실상을 한눈에 볼 수 있는 美 군사기지 ③ 유구왕조 시대부터 전승돼 오면서 일본과 중국, 동남아의 문화가 한데 섞인 독특한 문화 ④ 수려한 南國的 풍광을 바탕으로 한 리조트 등이 그것이다. 오끼나와의 문화관광은 고난에 찬 오끼나와의 역사와 고대로 부터 내려온 중국, 한국, 동남아 등 인접지역과의 문화교류를 살필 수 있게 해준다.

오끼나와의 국제관광 관문은 오끼나와의 정치·경제·문화의 중심지인 나하에 위치한 나하 국제공항이다. 일본 본토의 東京, 大阪, 名古屋, 廣島, 福岡 등 주요도시에 서 직항편이 운항되고 있고 아직 국제정기항공편은 개설되어 있지 않다.

〈표19-1〉 오끼나와 국제항공노선

항 공 노 선	운 항 횟 수	비 고
로스앤젤레스	주 2편	
괌	주 4편	
홍콩	주 2편	
서울	주 2편	
대만	매일 2편, 3개 항공사 주 8편	

자료 : 오끼나와 컨벤션센터 소개 자료 요약, 1997.

이러한 오끼나와의 일반적인 개황을 바탕으로 오끼나와컨벤션센터를 살펴보고자 한다. 오끼나와 컨벤션센터는 지난 1979년 1월 상공회의소와의 간담회에서 지사의 시책사항으로 발표하여, 縣의 중점사업으로서 추진하게 되었다. 1979년에 컨벤션홀을 건설하기 위하여 구상계획을 작성할 목적으로「오끼나와컨벤션홀건설구상조사」가 실시되었다. 1980년도에는「오끼나와컨벤션홀건설기본계획조사」를 기초로 1982~1983년도에 시설규모, 기능, 배치 등의 기본계획이 마련 되었다. 이러한 계획을 바탕으로 1984년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가 1990년까지 단계적인 완공을 보게된다.

〈표19-2〉 오끼나와컨벤션 건설 공정

구 분	년 도	시 설
제1기공사	1984~1987	전시장 겸 체육관, 회의실
제2기공사	1987~1989	극장, 회의실, 관리실
	1990	전관

자료 : 오끼나와 컨벤션 소개 자료 요약, 1997.

오끼나와 컨벤션센터는 16,834평의 대지에 5,000명 수용규모의 회의실과 전시장, 극장 등을 갖추고 있으며 건설비용은 99억2천8백만엔이 투자되었다.

〈표19-3〉 오끼나와컨벤션센터 시설현황

구 분	면 적	비 고
건 설 연 면 적	5,843평	
전 시 장	2,261평	
회 의 실	717평	
대 회 의 실	500명 수용	1실
중 회 의 실	50~100명 수용	1실
소 회 의 실	30명 수용	2실
극 장	2,864평	
관 리 공 용 부 분	100평	사무실, 회의실

자료 : 오끼나와 컨벤션 소개 자료 요약, 1997.

오끼나와컨벤션센터의 건설 재원은 國庫 23억1천7백만엔, 起債(70%) 66억8천5백만엔, 일반 9억2천6백만엔이 조달 되었다. 한편 1990년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 오끼나와컨벤션센터는 연간 운영자금 5억엔이 소요 되는데 임대료 수입으로 1억6천만엔, 현보조 3억4천만엔으로 충당되고 있다.

이처럼 제주지역과 지정학적으로 유사한 즉 "섬"인 일본 오끼나와 컨벤션센터 건설에서 보듯이 관광의 틀을 확고히 한 후 중앙정부와의 보조를 맞춰 단계적으로 추진했다는 점은 음미해 볼만한 대목이라 할 것이다.

2. 컨벤션센터를 겸한 리조트형 호텔의 건립

국제회의 국내유치에 가장 큰 제약 요소중의 하나가 전문 국제회의 센터의 不在라는 것이 관련업계의 공통된 지적이다. 그러나 컨벤션 센터의 건립에는 많은 재원이 필요하고 또한 일정기간은 운영에 따른 赤字를 면키 어렵다. 따라서 컨벤션 시장의 수요, 시설규모 및 구조, 입지조건, 건립 주체, 운영 방법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 져야 한다. 일반적으로 컨벤션 센터는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또는 제3섹타에 의해 건립, 이들에 의해 스스로 운영 또는 위탁 운영된다. 컨벤션 센터는 公益性을 기반으로 하는 非營利 公共施設로 자립운영이 될 때 까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赤字를 보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⁴¹⁾ 현재 지방자치단체인 제주도가 주체가 돼 추진하고 있는 컨벤션 센터의 청사진은 公益性의 차원을 넘어 收益性 사업을 전제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제주도민의 자분을 축으로 인해 이루어지는 만큼 컨벤션 센터 건립이후 국가나 지자체가 운영에 있어 赤字를 보전할 만한 財源 지원이 全無한 상태에서 과감한 진로 수정도 필요하다 하겠다. 왜냐하면 서울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컨벤션센터 이외에도 경기도 고양시 일산에 15만평 규모의 초대형 국제전시장과 호텔, 테마파크등 위락단지가 오는 2001년까지 건립될 계획이다.⁴²⁾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국제전시장 건설 소요비용은 총 1조6천억원(토지매입비 2천1백82억원)으로 토지는 경기도와 고양시가 확보하고, 전시장 건설비는 국비 50%, 지방비 20%, 민자 30%씩 나눠 조달하기로 했다 한다. 이와 더불어 국제전시장을 관통하는 수도권 순환철도를 건설하고 영종도 인천 국제공항과 연결하는 도로도 건설하는 등 주변 인프라도 함께 건설한다. 일산 국제전시장의 주요 시설은 국제종합전시장, 국제회의장, 본부동과 지원동, ITC(국제무역센터), 실내스포츠 콤플렉스, 오피스텔, 백화점, 할인점, 레저 콤플렉스, 호텔등 이다.

이처럼 濟州地域과 경쟁관계에 있는 서울과 京畿地域에 대규모 컨벤션 센터가 건립되는 마당에 현재 5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단순한 컨벤션 센터의 건립보다는 수

41) 전해연, "국제회의의 유치전략과 활성화 방안"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95. 2. p. 57.

42)조선일보, '97.3.11.

용 규모를 2,500여명(국제기준의 최소 수용 단위)으로 줄이며 동시에 컨벤션 센터를 겸한 리조트형 호텔을 세계 우수 호텔과 체인을 맺어 建立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국회의 개최도시로의 접근성과 관광목적지로서의 매력성 뿐 아니라, 회의 개최에 가장 필요한 장비를 들 수 있다. 이제까지는 호텔,회의장, 전시장이라는 국제회의의 세가지 시설이 지역적으로 흩어져 있는 편이었으나 요즘은 국제회의 사업을 인식해서 세가지 시설을 한군데에 모아 국제회의 유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다른 지역과의 경쟁력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컨벤션형 리조트 호텔 건립으로 진로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 하겠다. 왜냐하면 최근 미국에서는 대도시의 한정된 컨벤션센터나 일류호텔에서 개최되던 대규모 컨벤션과는 달리 활기차고 혼 혼한 정이 감도는 분위기의 中規模 컨벤션이 인구 15만~30만명 전후의 地方 中小都市에서 빈번하게 개최되고 있다. 이것은 大都市와 비교해서 호텔비를 비롯한 물가가 싸다는 점도 있지만 참가자들은 대도시의 魅力보다는 지방 중소도시가 자지는 個性, 알맞은 도시성과 田園性, 人情味, 溫和함과 같은 것에 더욱 매력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⁴³⁾

리조트 호텔이란 관광지 호텔로 保養, 휴양 또는 레크레이션을 목적으로한 호텔로 해양이나 경치좋은 곳에 있는 별장식 호텔을 말한다.⁴⁴⁾

리조트 호텔은 대부분이 산악지대, 해변, 온천장과 같은 휴양지 또는 관광지에 위치하며 호텔을 이용하는 고객 대부분이 휴양 혹은 관광을 목적으로 찾아 오는 호텔이기 때문에 관광대상(Tour Objectives)으로써 관광자원이나 관광상품(Tourist Products)은 관광객에 대하여 誘引性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⁴⁵⁾

리조트 호텔은 계절적인 영향으로 이용율의 저하, 경영비용의 상승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따라서 계절성을 극복하기 위한 신상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착안한 것이 컨벤션 유치 전략인데 실제로 리조트 호텔이야말로 각종 컨벤션이나 행사를 치

43) 우동기 '컨벤션도시 구상의 과제와 전략', 지방자치, '96. 5. p. 73.

44) 안종윤, 「관광용어사전」, 법문사, 1985, p. 558.

45) 김재민, 「관광경영론」, 일신사, 1990, p. 196.

루기에 적절한 장소이며, 실용적인 회의장소로서도 가장 알맞은 곳이다.⁴⁶⁾

따라서 세계의 국제회의 내용을 면밀히 分析해 봤을 때 서울 및 경기지역과의 차별성을 두면서 회의산업을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濟州地域의 지리적, 환경적 특수성을 십분 이용한 컨벤션 센터(2,500명정도 수용규모)를 겸한 리조트형 호텔 건립이 다른 지역과의 차별성에 있어 효과가 있다 하겠다.

〈표20-1〉 세계의 컨벤션 개최 실태

구 분	참가자수	월별개최	평균회의기간	비 고
내 용	평균 1000명 이하가 86.67%	9,10월 가장 인기(26.19%) 12,1월 가장 인기없음	4일	

자료 : 연구자 작성.

회의의 종류는 성격에 따라 규모가 달라 질수가 있는데 사람들은 多目的 회의보다는 특정요구에 부합하는 회의를 선호하기 때문에 기업들은 소규모 단기 지역회의를 많이 개최하며, 이러한 회의의 小規模화 경향은 數年동안 계속되어 왔고 또한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⁴⁷⁾ 그러나 단체들의 경우는 소규모 지역회의의 뿐만 아니라 대규모 회의도 많이 개최하고 있다. 소규모 회의 시장의 증대는 기업문화와도 관련이 있다. 오늘날 기업은 시간과 예산부족으로 직원들을 각 지역으로 보낼 수가 없기 때문에 소규모의 단기회의를 통하여 메시지를 전달하는 효과적인 방법을 택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1992년에는 많은 회의가 해외에서 개최되어 꾸준한 지구촌화의 움직임을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해외 개최회의는 순수 인센티브여행이나 순수 회의의 독립된 형태에서 인센티브여행과 회의를 結合한 형태로 바뀌어 가는 경향이 증대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기업들은 이러한 결합형태를 훨씬 생산적인 것으로 보고

46) Gerald W. Lattin, Motel and Hotel management, Sanfrancisco, W.H.Freeman Company, 1977, pp. 40-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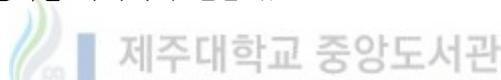
47) 컨벤션/인센티브관광시장정보 통권 제 15호, 한국관광공사, 1993.

있다. 따라서 회의 기획자들은 목적지와 회의장소 선정에 들어가는데 우선 目的地를 선정할 때는 호텔 객실의 確保 가능성을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으로 꼽았으며 다른 주요 고려사항은 호텔 서비스 수준, 목적지에서의 전반적인 서비스 수준, 호텔 객실료, 안전성, 항공좌석 확보 가능성 순으로 꼽았다. 일단 목적지가 확정되면 기획자들은 호텔 선정에 들어가는데 절반이상의 기획자들은 회의 유치에 관심을 보인 호텔들 중에서 체인호텔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이들 체인 호텔중 가장 인기 있는 5개 체인은 Marriott, Hyatt, Hilton, Sheraton, 그리고 Holiday Inn 이다.

〈표20-2〉 이용빈도에 따른 체인호텔 순위

순 위	호 텔	비 고
1	Marriott	
2	Hayatt	
3	Hilton	
4	Sheraton	
5	Holiday Inn	

자료 : Successful Meetings 지, 1993년 7월호.
(미국에서 발간되는 국제회의 전문지)



그리고 호텔 선정시 레저 활동별로 골프, 헬스크럽/온천, 테니스, 수중스포츠, 카지노 등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표20-3〉 호텔 선정시 레저활동별 중요도

구 분	단 체	기 업
골 프	3.12	3.54
헬스크럽/온천	4.56	3.40
테 니 스	2.35	2.74
수 중 스포 츠	2.60	2.76
카 지 노	2.37	2.56

* 중요도 : 1~5 (숫자가 클수록 중요)

자료 : Successful Meeting지, 1993년 7월호.

이와 더불어 훌륭한 인센티브 호텔이란 좋은 평판을 유지하고 가격이 너무 비싸지 않으며 상상력을 자극하는 목적지내에 위치하고 그 外觀 자체가 매력적이며, 좋은 행사장을 갖추고 있고 그 행사장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창의력을 지니고 있으며, 가장 멋들어진 연회를 연출해 낼 수 있고, 인센티브에 대하여 잘 아는 직원들을 보유하고 있는 호텔을 의미한다고 한다.⁴⁸⁾

즉 이제까지는 호텔, 회의장, 전시장이라는 국제회의의 세가지 시설이 지역적으로 흩어져 있는 편이었지만 국제회의사업을 인식해서 세가지 시설을 한 군데에 모아 국제회의 유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호텔을 말하고 있다. 특히 회의시설은 서비스보다도 더 유형적이기 때문에 회의시설 속성은 다른 경쟁호텔과 차별화 시킬 수 있는 변수라 할 것이다.

따라서 위와같은 내용을 종합해 봤을 때 제주지역 特性상 쾌적한 會議과 안락한 休息을 동시에 취할 수 있게 중규모(2,500명 수용) 컨벤션센터와 호텔을 겸하면서 세계 유수의 호텔과 체인화된 컨벤션호텔 建立이 필요하다 하겠다.

3. 接近을 強化하기 위한 方向提示

제주도라는 거리의 핸디캡을 극복하기 위해 교통체계 정비라는 하드웨어(hardware)면에서의 시책 전개도 필요하다. 컨벤션이 정보의 터미널 기능이라고 한다면 컨벤션에 사람들을 모으기 위한 교통 터미널 기능이 도시기능으로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공항과 항만 등 시간적 지근성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또한 교통체계의 정비 특히 항공과 관련해서는 국토계획적 단계가 아니라 국제사회라는 세계적인 네트워크 속에서 검토해 나가야 한다.

(1) 항공편 개선

제주도의 첫 번째 과제는 섬으로서의 결점을 보완하는데 있다. 즉, 관광객들이 어

48) Incentive Asia지, 1993년 5월호

떠난 방법으로 제주도에 도착하느냐 하는 육지부와의 連陸交通手段이 원활히 이루어져야 된다. 현재의 수송능력(제주도민 포함)을 보면 선박편이 겨우 15%인데 비해 항공편이 85%를 차지하고 있어서⁴⁹⁾ 관광객들이나 도민들이 교통이용도가 고급화 추세이며 이러한 현실은 앞으로 더욱 증대될 전망이어서 航空便의 증편과 좌석 공급수의 확충이 곧바로 관광객의 내도 인원을 늘리는 척도가 될 것임은 확실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는 제주국제공항 항공기 처리능력을 2001년까지 현재의 연간 8만회 수준에서 11만3천회 수준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발표 했었다.⁵⁰⁾

이에 덧붙여서 항공편과 관련되어 개선되어야 할 점은 많다.

첫째, 공항서비스의 고급화이다. 그리고 항공기 안전운항의 확보이다. 이러한 서비스는 제주도처럼 접근을 항공기에 대폭 의존하고 있는 경우 매우 중요한 것이다. 항공기 사고는 많은 관광객의 흐름을 위축시키기 때문이다. 지난 '94년 8월에 있었던 제주국제공항의 항공기 착륙사고같은 것은 제주를 찾는 관광객에게 심리적인 위축을 가져다 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항공단의 경우는 항공 안전운항에 필수적인 활주로 확장이나 첨단 관제장비 등의 도입보다는 청사나 계류장, 터미널, 주차장 등 수익성 부대시설 확충에만 주력하는등 지방공항에 대한 투자는 전혀 이뤄지고 있지 않아서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⁵¹⁾

둘째, 장기적인 측면에서의 대안은 국제공항의 이전이다. 제주도의 관광축을 서귀포지역으로 분산하고, 서귀포와 제주시를 균형개발하며, 항공기 처리능력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제주국제공항을 이전해야 한다. 공항은 인접도시계획을 고려하여 적절한 곳에 입지해야 되는 것이다.⁵²⁾

빠른 발전을 이루고 있는 도시에서의 공항은 더욱 그 위치가 중요하다. 공항이 도시의 성장을 제약하기 때문이다. 제주시에서 볼 때 제주시를 전체적으로 균형있게 발전시키기 위해서 오래전에 공항을 이전했어야 하는 것이었다.

49) 교통레저신문, "제주도 국제관광휴양지 조성" 1994, 6월2일자, 1면.

50) 교통신문, "14개 공항 관리의 총사령탑", 1994년 7월7일자, 7면.

51) 교통신문, "총사령탑", 1994년 7월7일자, 7면.

52) Clare A. Gunn(1988), op. cit., p.162.

셋째, 제주와 연결되어 있는 직항국제노선의 확대가 필요하다. 일본 및 중국, 동남 아와의 직항노선의 확충이 시급한 것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 북미, 유럽국가 등과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다가갈 수 있는 직항노선이 필요하다.

넷째, 제주지역을 관광자유지역화 혹은 면세특구로 지정하여 세계적인 항공교통의 요충지로 개발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⁵³⁾

다섯째, 공항에는 換乘施設이 있어야 한다. 제주국제공항의 경우 환승시설체계가 미약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버스들이 엇갈림의 문제가 있다. 그리고 시내버스나 교외로 운행하는 좌석버스등은 공항으로 진입을 못하도록 되어 있어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코자하는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따라서 공항의 개선에는 환승시설을 잘 갖추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2) 해양항로 개발

바다교통과 관련한 대안으로서는 外國航路를 개설하는 것과 國內航路를 개설하는 것, 그리고 遊覽船을 운항하는 것 등으로 나눌 수 있다. 현재 제주도와 관련되어 운항되고 있는 항로는 제주-부산, 제주-목포, 제주-완도, 제주-진도, 서귀포-부산⁵⁴⁾ 등이 있다.

첫째, 이들 항로에 덧붙여서 外國航路를 개설해야 한다. 이 바다 항로는 “떠 있는 休養地(floating resort)로서 레크레이션이나 문화서비스, 항구도시의 매력이 있는 한 需要로 충분할 것이기 때문이다.”⁵⁵⁾

외국인 관광객 수요가 늘지 않는 것도 이 외국 항로 특히 일본과의 직항노선을 개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원인 중의 하나가 되고 있다.⁵⁶⁾

이러한 외국항로의 대표적인 예로서는 부산에서 정기적으로 후쿠오카를 취항하고

53) 장세화, “국제 관광진흥에 영향을 미치는 항공정책에 관한연구”,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4, p.76.

54) 제주도, “제주도정백서”, 1994, p 483.

55) . Clare A.Gumn.(1988), op. cit., p. 154.

56) .교통레저신문, “제주, 외래관광객 유치실적 저조”. 1994년 8월 8일자 10면.

있는 [카멜리아호]를 들 수 있다. 이 航路의 장점은 안정성과 항공기보다 값이 싸다는 점이며, 여행객들이 귀중한 시간을 관광여행에 활용하도록 운항 스케줄을 기획하고 있다는 점이다. 양국 모두 오전 9시경이면 그 나라의 관광을 시작할 수 있도록 8시 30분에 입국수속을 밝게 한 것이다.⁵⁷⁾

둘째, 국내항로를 관광항로화하여 개설해야 한다. 국민생활 수준향상에 따라 여행의 형태가 다양해지고 고급화되면서 항로의 고속화와 서비스의 고급화를 요구하고 있다.⁵⁸⁾

특히 인천 국제공항 건설과 맞추어 연간 1억명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에서 제주와 인천항로를 고급화하여 새롭게 상품화하는 것도 시급한 문제이고, 제주와 부산, 제주와 완도 등을 운항하는 항로에 초쾌속성을 취향케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⁵⁹⁾

1994년4월22일 이후 제주-목포간에는 데모크라시 2호가 취항하고 있어서 많은 호응을 받고 있으며,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일조를 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중문관광단지 자체의 관광진흥을 위해서는 서귀포항이나 화순항을 이용할 수 있다. 화순항은 서해안 시대에 대비 오는 2011년까지 신항만으로 중점 개발되어, 접안능력이 대폭 늘어나는 것 뿐만아니라 요트 정박장등 마리나 시설도 들어서게 되어 있어서 이러한 논리는 더욱 설득력이 있을 것이다.⁶⁰⁾

셋째, 서귀포 일대와 중문 대포 앞바다 등은 해안경관이 빼어나므로 중문일대를 운항하는 유람선을 운항할 수 있다. 유람선을 단순히 띄우는 것만이 아니라 그 내부에서 제주민속공연을 프로그램화하여 공연한다든가 바다속을 동시에 볼 수 있는 비디오, 사진전 등을 펼쳐서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유람선으로 만들면 될 것이다. 이 유람선도 서귀포항과 화순항을 왕복하는 것으로 계획하면 될 것으로 보인다.

57) 교통레저신문, "한·일 양국 관광교류의 중추적 역할," 1994년8월1일자, 7면

58) 교통레저신문, "연안교통 고속화시대 열렸다", 1994년5월16일자, 1면

59) 교통레저신문, "초쾌속선 데모크라시 2호 제주-목포 취항" 1994년 5월16일자, 11면.

60) 교통신문, "道內 5개항 전담기능 부여." 1994년6월20일자, 2면.

(3) 서부산업도로와 산록도로 등 主要 道路의 改善

산업도로와 산록도로 등 주요 도로들은 제주 관광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要素이다. 따라서 이들 주요 도로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고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첫째, 工學的인 問題(선형, 기하구조, 편구배 등)도 해결하고 안전시설을 대폭 보강해야한다. 물론 제주도의 주요 도로는 제주도 景觀을 관람하는 경관도로의 기능도 하고 있으므로 안전시설과 경관이 조화를 이루도록 목조 등으로 펜스를 만들 수도 있을 것이다.⁶¹⁾

미국의 경우는 보통 나무나 혹은 금속말뚝으로 되어 있는 펜스를 만들어 사용하기도 한다. 나무는 금속에 비하여 주변지역의 여건에 따라서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어서 잇점이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주변 교통 안전시설들이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제주도의 문화를 반영할 때 도로 그 자체가 관광자원화 될 수 있을 것이며, 중문관광단지까지의 진입로도 더욱 쾌적한 도로로 될 것이다.

둘째, 서부산업도로와 동부산업도로가 國道로 승격⁶²⁾ 되었다고 해도 地方自治團體에서 적극적인 개입을 하여 제주도관광개발에 유익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특히 서부산업도로의 경우는 다른 여타도시의 일반적인 국도와는 다른 기능을 하고 있다.

중문관광단지로의 연결,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도시간 간선도로의 기능, 중산간으로 질주하고 있어서 한라산과 중산간지방 그리고 해안을 동시에 구경할 수 있는 경관도로의 기능을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일반적인 국도로서의 개선이 과제가 아니라 관광지의 여러 기능을 복합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도로로서 기능을 해야 한다. (예를들어 야간 관광 기능까지 겸하게 서부산업도로 전구간에 가로등을 시설하여 야간 드라

61) California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Highway Design Manual, forth edition, 1990, pp. 70-71.

62) 서부산업도로와 동부산업도로는 1994년7월15일 국도로 승격되었다. 국도번호는 각각 95번과 97번이다. 교통신문, "국도 대폭확장키로", 1994년7월18일자, 1면.

이브 관광코스로 개발) 그렇게 되려면 지방자치단체인 제주도가 적극적으로 정부와의 관계를 가지면서 지역특성에 맞게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4) 도로 안내 표식판의 개선과 설치

제주도의 도로 안내표지판의 실태는 아주 劣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도로 안내 표지판은 세가지의 중요한 요소를 가진다. 1) 길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길을 알게 해준다. 2) 연속성이 있어야 한다. 3) 적절한 장소에 설치되어야 하는 것이다.⁶³⁾

그리고 다음과 같은 기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설치 필요성이 보편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2) 운전자의 주의를 끌 수 있어야 한다. 3) 분명하고 단순한 의미 전달이 이루어져야 한다. 4) 도로 사용자의 순응을 확보해야 한다. 5) 지시를 따를 충분한 시간이 주어져야 한다.⁶⁴⁾

그러나 濟州道의 경우는 도로안내표지판을 이 기준으로 충족하되 육지부와 동일하고 획일적인 표지가 아니라 지역과 관광지의 특성에 맞는 독특한 안내 표지판을 만들어야 할 것이며 그 표지판이 통일적이면서도 제주도의 관광지를 잘 설명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觀光案内標識는 교통표지와는 달라 단순히 정보전달을 하는 수단이 아니며 그 자체가 觀光物이 될 수 있다. 더구나 관광안내표지는 여행자가 만나는 최초의 관광물이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더욱 중요성을 떨 것이다.⁶⁵⁾

그 절차는 지방정부가 건설부에 건의하는 방법으로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프로젝트를 통하여 획기적인 개선사업이 필요하다 하겠다.

63) 교통신문, "자동참시대의 교통안내표지판", 1994년 3월 21일자, 2면.

64) 원재무, 최재성, "교통공학". 박영사, 1993, p. 437.

65) 한국관광공사, "지방화시대의 관광정책", 1992, p. 437.

4. 東北亞 海洋실�크로드의 中心축 開發

1970년대 정부는 제주지역을 국제 자유무역항으로 발전 시켜 나갈 구상을 한적이 있다. 그러나 여러 제약 조건 때문에 결국 국민관광지로 전략을 수정 했다.

이러한 정부의 여러 계획중 항만개발은 2011년까지 남제주군 화순항을 신항만으로 건설하고 제주항 외항을 중점개발하는 제주지역 항만기본계획을 마련했다. 이 계획안에 따르면 화순항을 2011년까지 방파제 1천5백30m, 안벽 3천4백70m가 축조된다. 개발이 완료되면 접안능력은 현재 3천톤급 1척에서 21척(최대 2만톤급)으로 늘어나고 하역능력도 연간 9만톤에서 5백94만5천톤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러한 항만 개발계획에 맞춰 21세기를 목전에 둔 시점에서 제주도민이 축이 되어 동북아 해양실�크로드의 중심기지로 건설해 나갈 것을 제안 하고자 한다. 항만개발을 통한 제주도의 물류 기지화 사업을 21세기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항만 건설에 민자를 적극 유치하여 동북아 지역을 비롯한 아시아 지역이 세계 경제의 중심으로 부상하는 것과 발 맞추어 해운·항만 물류 중심 기지화하는 작업이 시급하다 하겠다. 특히 동남아·유럽항로와 미주 쪽 동북아 기간항로를 잇는 중심 축으로 개발해야 할 것이다. 제주도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중국의 주 산업지대인 상해 이북에는 대형 컨테이너 선박이 들어 갈 수 있는 항만이 없기 때문에 제주도가 그런 역할을 하기에 충분하다 하겠다. 신항만 개발은 착수 준비에만 3년이상 소요되고 항만 기본시설의 사전 축조가 필요해 운영 개시까지는 최소한 10년이상 소요 되는 만큼 하루라도 빨리 서두를 필요가 있다. 그런가 하면 선박의 매매·용선·화물의 중개, 선박금융, 해상보험, 해운시장 정보등 해운 관련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software)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최근 들어 일본, 싱가포르, 홍콩, 유럽연합(EU)등 전통적인 해운 강국들도 항만과 자국 선대 확충에 박차를 가하는 등 해운 관련 산업에 집중 투자하고 있는 것은 세계시장에서 제품의 경쟁은 물류비용이 점차 높은 비중을 차지 함을 보여 주는 단적인 예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동북아 지역은 21세기 초에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와 같은 형태의 자유무역지대로 형성됨으로써 본격적인 동북아 공동 운송망이 구축 될 전망이다. 이때 동북아 경제권의 중심에 위치해 중국 동북지역, 일본 서해안과 구

슈(九州)지역 화물의 주요 환적지로 부상해 명실상부한 동북아 물류센터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대대적인 항만개발사업의 투자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항만시설을 근간으로 세계화 추세에 맞춰 물류시설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하겠다. 제주지역의 지리적 여건을 감안해 동아시아 지역의 국제무역 및 관광중심지로 자리매김 하기 위하여 첨단 물류시설을 구축하는 것이다. 전세계의 기업들이 진출해 제주지역을 물류기지로 활용 할 수 있도록 운송, 집·배송, 창고, 그리고 유통업을 할 수 있는 환적센터로서의 기반시설을 마련해 야 할 것이다.

그런가 하면 이러한 항만시설을 바탕으로 자유무역지구화 하여 관세품들의 저장 및 재수출을 위해 광범위한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예를들어 제주지역에 반입된 물품은 시장으로 이송되기 전까지는 어떠한 통관서류 없이도 저장이 가능하며 최소한의 통관 절차만 거치면 가공 혹은 재수출이 손쉽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세계적인 環積센터로서의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 환적 및 재수출 화물에 대해 무료 장치 허용기간이나 항만요금에 대해 특별 우대조치 할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다 하겠다.

5. 새로운 魅力要因 創出



지난 1970년대 부터 시작된 제주 관광의 본질적인 實體는 수려한 자연경관을 바탕으로 이루어져 왔다 해도 과언은 아니다. 과거 해외여행에 대해서는 엄두도 내지 못하던 시절에는 국내 관광객에는 어필이 되었지만 198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해외여행 자유화이후 제주관광은 점차 競爭力을 상실해 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주에 대한 새로운 魅力要因을 창출해 내는 것이다.

제주도는 단순히 자연경관이라는 자원만을 가진 곳이 아니라 지정학적 측면에서의 환태평양의 국제 交叉路요, 한국의 관문으로서 국제적 휴양관광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 하겠다. 그리고 제주도는 島嶼로서의 입지도 지니고 있다. 이 도서라는 입지는 제주도로 하여금 海洋文化를 가지게 했다. 바로 이 해양문화가 서민생활 깊숙한 곳까지 스며들어 있다 하겠다. 이처럼 태평양시대의 관문이자 반도

로 접근하는 관문이고, 도서로서의 입지를 살리는 관광개발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 중 하나를 들자면 테마공원 또는 오락공원(amusement park)의 개발을 들 수 있다. 월드 디즈니랜드, 에프코드 센터(Epcot Center), Sea World 등 많은 主題公園을 갖추고 있는 플로리다 州의 연구결과⁶⁶⁾를 보면 자연 관광자원보다는 오히려 人工관광자원에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濟州道는 우리나라의 최남단에 위치하여 연중 온화한 기후를 보이고, 독특한 자연 환경과 인문환경을 갖추고 있다. 또 4백만명에 달하는 관광객을 이미 확보하고 있어 새로운 체험을 제공할 테마파크 개발의 유리한 조건을 갖고 있다. 월별 입장객의 편차가 적고, 최근 주변 강대국 국가원수들이 잇따라 제주도를 방문 정상회담을 가짐으로서 국제적인 관광지로서 認知度 확산이 테마파크 운영시 유리한 조건으로 작용할 수 있다.

현재 개발된 제주도의 관광시설과 지정된 3개단지, 10개 관광지와 추가 지정될 10개의 관광지구에는 특정계층의 이용시설로 볼 수 있는 골프, 승마, 마리나 등은 계획돼 있으나 남녀노소 불특정 다수의 대중이 동시에 이용 가능한 動的인 시설은 없다. 실제로 제주도를 방문하는 관광객의 45%가 가족단위이며, 수학여행객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므로 가족단위 관광객과 청소년층의 이용가능한 시설건설이 필요하다 하겠다.

제주도의 테마파크 모델로는 자연·인문환경을 고려한 꿈과 환상이 있는 「디즈니랜드」, 해양동물 과학공원 「씨 월드」, 스튜디오 투어 파크「유니버설 스튜디오」, 문화를 주제로한 테마파크「스페인 무라」 등을 삼을만 하다.⁶⁷⁾ 즉 기존의 표선민속촌을 축으로 우리 주변에 흩어지고 유실된 문화유산을 모으고 딱아서 정리하므로써 제주문화의 뿌리찾기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관광자원 활용차원에서 새로운 매력요인을 창출해야 할 것이다. 그런가 하면 "신들의 섬"을 주제로 한 제주를 상징화 할 수 있는 테마파크도 생각해 볼 만하다. 현재 제주를 상징하는 "돌하르방"에 비유될 수 있는 "할망" 즉 오백장군의 어머니인 설문대 할망을 상징화하여 테마파크를 만드는 것도 바

66) 최승이·한광중, 위의 책, p. 468.

67) 허태학, '21세기 관광산업과 제주관광미래' 심포지움, 제민일보, '96. 11. 23.

람적하다 하겠다. 설문대 할망은 거인을 상징화할 수 있기 때문에 제주를 "거인의 섬"으로 부각시킬 수 있을 것이다. 한라산을 베개삼고 누워 바닷물에 물장구를 치는 모습, 관탈섬, 쇠섬, 조천리 영장매코지, 한라산 물장오리에 빠져죽은 전설을 줄거리로 테마파크를 만든다면 새로운 관광 상품화할 수 있지 않나 싶다.

第 5 章 結 論

본 논문의 研究目的은 지난 1970년대 부터 제주의 생존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기존의 관광산업의 틀을 바꿔 보고자 하는데 있다.

지난 20여년간 호황을 누리왔던 觀光産業은 지난 80년대 후반 전 국민 해외여행 自由化와 더불어 경쟁력을 상실하는가 싶더니 90년대들어 세계화 바람과 더불어 이제 관광산업의 탄력을 잃어가고 있다. 이러한 와중에 지난해 'ASEM'이라는 용어가 觸媒가 되어 제주관광의 축을 바꿀수 있는 國際會議産業 즉 컨벤션산업이 濟州觀光의 역동성을 새롭게 제공해 줄 것 이라는 기대를 갖게 했다. 즉 제주지역 관광산업의 지루함을 파괴하고 새로운 도약의 발판이 되리라 믿게 된 것이다. 하지만 컨벤션산업이 高附加價值 산업이라는 것은 누구 나 다 알고 있었지만 그동안 선뜻 추진하지 못했던 것은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만큼 거기에 못지 않게 基盤施設(infrastructure)인 컨벤션센터와 운영의 노하우(know-how)가 필요한 産業이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이처럼 요원하게 만 느껴지던 컨벤션산업의 기반이라 할 수 있는 컨벤션센터 건립이 自治團體의 주도로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지방정부의 경영수익사업의 일환으로 구상된 컨벤션센터 사업이 과연 수익성을 보장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점에서는 다시한번 濟州道民의 이해와 공감대를 도출해야 할 것이다.

外國 대부분의 컨벤션센터가 운영상의 赤字를 면치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주도도 설립할 컨벤션센터가 우리나라 컨벤션사업 시장에서 獨寡占의 지위를 누리는 것도 아니다. 특히 서울 무역센터와 경기도 일산에 컨벤션센터가 들어설 예정이고 더욱이 濟州道의 다른지역에도 2천명 수용규모의 컨벤션 홀을 갖춘 호텔이 들어설

예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제주도가 구상하고 있는 단순한 컨벤션센터 하나만 가지고 경쟁력을 확보하고 收益性을 보장하겠다는 정책은 다시한번 심사숙고 해볼 문제이다. 왜냐하면 컨벤션센터는 會議産業에 따른 주변 산업에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間接 資本施設이지 수익성을 창출할 수 있는 시설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가 하면 地方政府가 구상하는 附帶施設사업 즉 면세점과 카지노 운영을 통해 수익사업을 하겠다고 주장하지만 지난 '97년 2월27일과 28일 입법예고된 國際會議産業육성에 관한 法律 施行令 제정안에 의하면 국제회의 시설의 부대시설을 전문회의시설 및 전문 전시시설에 부속된 숙박시설, 주차시설, 식·음료시설, 휴게시설, 쇼핑시설등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다. 이처럼 법적으로도 許可돼 있지 않은 카지노시설을 통해 收益을 올리겠다고 하는 발상도 문제가 있다 하겠다.그러면 제주 컨벤션센터 설립의 意義는 어디서 찾아야 할 것인가?

그것은 컨벤션센터 건립은 收益性 보다는 지역산업구조 변경에 의한 지역경쟁의 경쟁력 확보라는 차원에서 의의를 찾아야 할 것이다. 즉 微視的 안목의 2000년 완공目標와 부대시설 사업을 통한 利益配分の 차원이 아닌 그야말로 1백만 제주도민의 자존을 건 共感帶의 바탕아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건립되어야 할 것이다. 즉 컨벤션센터 건립에 앞서 국제회의 유치증대 및 수용태세 개선업무를 주도해 나갈 전담조직을 먼저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할 것이다. 이러한 組織은 자치단체내의 국제회의 업무담당 부서, 상공회의소 등 지역내 유관단체, 숙박시설 업체, 여행사등 業界와 學界의 유관인사들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 하겠다. 이 조직은 국제회의와 관련된 국제기구 가입문제와 국제회의 유치 및 수용태세에 관한 제반정보를 축적하고, 조사연구 사업을 수행하는 한편 국제회의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중·장기계획을 수립 시행해 나가는 업무를 수행해야 할 것이다. 그런가 하면 국제회의 유치 및 홍보활동을 다각적으로 전개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人的資源을 바탕으로 서울과 같은 비즈니스 기능 중심의 대규모 컨벤션센터가 아닌 국제회의 개최는 물론 地方文化 중심시설로서의 기능을 갖춘 제주지역 상황에 적합한 규모로 건립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전 세계의 컨벤션 개최의 평균을 보더라도 참가인원이 1000명이하인 회의가 86.67%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참고로 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地方自治時代에는 지역 주민들이 시대의 전환을 인식하고 스스로 지역의 비전을 확실히하여 새로운 지역형성에 힘써야 한다는 공동체의식이 형성될 때만이 진정한 의미인 제주도민의 自尊이 걸린 컨벤션센터 건립이 가능하리라 믿는다.



參 考 文 獻

1. 國內文獻

(1) 國內書籍

- 김재민, 「관광경영론」, 민신사, 1990.
윤태순, 「여행사 경영론」, 기문사, 1984.
원재목, 최재성, 「교통공학」, 박영사, 1993.

(2) 國內論文

- 한창영, 국제회의 개최 최적지로서의 제주도, 제주도지, 제88호, 1990.6.
이상철, 제주사회변동론 서설, 사회과학연구 제8권 제3호,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87.
구완서, 우리나라 호텔 컨벤션산업 육성에 관한 연구, 세종대학교 대학원, 1995.
전혜연, 국제회의 유치전략과 활성화 방안, 경희대학교 대학원, 1995.
강승태, 리조트호텔의 국내회의시장 마케팅전략에 관한 연구, 세종대학교 경영대학원, 1995.
이훈구, 한국국제회의산업 육성 방안에 관한 연구, 기전여자전문대학 논문집 제10집, 1990.
김우형, 효율적인 컨벤션 운영관리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7.
이경란, 국제회의 유치와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8.
최태광, 지역발전과 컨벤션도시화 전략, 경원대학교 경관 제3호, 1989.
김규현, 국제회의산업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창원전문대학 논문집, 1989.
김영준, 국제관광진흥을 위한 국제회의산업의 위상정립, 1990.
박충희, 김상식, 88 올림픽이후 국제회의산업의 육성방안, 한국관광협회 관광학

연구 제 12 호,1988.

김충호, 관광도시 형성을 위한 컨벤션 유치방안, 경기대학교 사회과학편 제17집, 1985.

김창동, 호텔산업육성을 위한 컨벤션 유치방안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1987.

우동기, 컨벤션도시구상의 과제와 전략, 지방자치, 1996.

전혜연, 국제회의의 유치전략과 활성화 방안, 경희대학교 대학원, 1990.

장세화, 국제관광진흥에 영향을 미치는 항공정책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1984.

(3) 新 聞

매일경제신문, 94.5.7.

서울신문, 96.10.

조선일보, 97.3.11.

교통레저신문, 94.3.21. 94.5.16. 94.7.7. 94.7.18. 94.8.1. 94.8.8.

제주일보, 96.3.1. ~ 96.12.31. 97.1. . 97.3.12.

제민일보, 96.3.1. ~ 96.12.31.

한라일보, 96.3.1. ~ 96.12.31.

(4) 資 料

한국관광공사, 한국국제회의산업 현황, 1996.

한국관광공사, 관광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1985.

한국관광공사, 컨벤션/인센티브 관광시장정보, 통권 제15호, 1993.

Successful Meeting, 1993 7월.

Incentive Asia지, 1993 5월.

SITE,Incentive Travel FACT SHEET, 1987.

한국관광공사, C&IT Market Report, 1989. 1990. 1992.

대한항공, 국내 인센티브 및 세미나 수요현황, 1991~1993.
제주프린스호텔, 94 영업전략회의 보고서, 1994.
한국관광공사, SITE University 참가결과 보고, 1992.
제주도, 제주도정백서, 1994.
한국관광공사, 지방화시대의 관광정책, 1992.
허태학, 21세기 관광산업과 제주관광 미래 심포지움, 1996.

2. 外國文獻

Thomas F. Powers, Introduction to Management in the Hospitality Industry (N.Y: Jhon Wiley & Sons), 1979.
Fred R. Lawson, Conference, Convention and Exhibition Facilities, C London : The Architectural Press, 1981.
Frank W. Berkman, et al, Convention Management & Service, The Educational Insitute of the American Hotel & Motel Associations, 1985.
桶渡牧入, 宿泊觀光旅行の時系列的變化 II, 月刊觀光, 日本觀光協會 Vol 5, 1990. Clare A. Gunn, op cit, 1988.
國際觀光振興會, 國際會議基準の手引, 昭和 1995年
Jhon D. Hunt, The Seoul Olympics : Approaches to Tourism Development and Promotion, Image of Korea and its Neighboring Countries, 韓國觀光公社, 1985.
Milton T. Astroff : James R. Abbey, Convention Sales and Services, Wm C. Brown Company, 1978.
Gerald W. Lattin, Motel and Hotel Management, Sanfrancisco, W.H. Freeman Company, 1977.
Gerald W. Lattin, California Department of Transportations, Highway design manual, fourth edition, 1990.
Newsweek, May-July 1997 : Special Commemorative Edition on Hong Kong.
Time : 1997 : Speial Souvenir Issue on Hong Kong.

ABSTRACT

A Study on the Possibility of Developing
Convention Industry in Cheju Area.

An, Jung - Hoan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Cheju,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Han, Chang - Young)

Cheju-Do had enjoyed a boom in tour industry for the past 20 years, but had lost its competitiveness from 1990's on. The convention industry is high value-added one, and will give Cheju-Do the new dynamics of tour industry. Therefore it is valuable to study the possibility of developing convention industry in Cheju area.

This thesis, from various points of view, Cheju-like, domestic, Asiantic, and international, tried to study the possibility of developing a convention industry in Cheju area.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

Fristly, Cheju local government promotes the establishment of convention center as profitable project. However that project has a problem to guarrantee the returns.

Secondly, most of the foreign convention center show a deficit, and the center plan established by Cheju local government is not in a position to enjoy a monopolitic state in Korea.

Thirdly, a operation plan, to which duty-free shops and casinos are added, has a problem in terms of returns.

An alternatives to developing a convention industry are as follows :

Firstly, Cheju local government will has to find a meaning to estabiishing convention center in terms of the competitiveness of regional industry rater than the profitability.

Secondly, in order to attain its purpose, Cheju local goverment must attract an international conferences and develop various activities for publicity.

In conclusion, in ordr to attain an establishment of convention center, the residents of Cheju area must form a community-oriented consciousness for local development.



附 錄



<부록 : 표 1> 1996년도 제주일보 ASEM 및 컨벤션관련 기사 목록

일 자	종 류	제 목
3. 20	스트레이트	· 2000년 ASEM 개최도시 - 4. 11. 총선후 결정
4. 14.	스트레이트	· ASEM 제주유치 본격화 - 도, 유치위원회 구성
4. 16.	가	· ASEM 유치 청신호 - 김대통령 제주방문 의의
4. 17.	사	· 21세기의 진주, ASEM 개최지로
4. 18.	해	· ASEM 제주에서 개최해야 하는 이유
4. 18.	스트레이트	· ASEM 제주유치 여건 성숙
4. 20.	스트레이트	· ASEM 개최도시 결정 임박 - 제주등 6곳 경합 치열
4. 23.	·	· ASEM 특별법 제정 - 신한국 추진
4. 24.	·	· ASEM 제주유치 본격 활동
4. 25.	사	· ASEM 개최지 제주여야 한다
4. 30.	스트레이트	· ASEM 제주유치 중앙 절충 - 국회의원 3명 합의
4. 30.	·	· ASEM 제주유치 공동 노력 - 신지사 기자 간담회
5. 2	스트레이트	· ASEM 제주유치 희망적
5. 3	기	· 2000년 ASEM 개최지는 - 신왕근 제주관광전문대 전임강사
5. 3	스트레이트	· 2000 ASEM 개최지역 이달말 최종 결정
5. 3	스	· ASEM 표어 1천7백여편 응모 '열기'
5. 3	해	· ASEM 개최지 선정 정치색 없기를
5. 3	사	· ASEM 특집 '2000년ASEM 제주유치 어떻게 돼나'
5. 3	연	·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정착
5. 3	·	· 제주 타시도에 비교우위
5. 3	·	· ASEM 개최 최적의 도시
5. 4	스	· ASEM 유치표어 심사 이모저모
5. 4	스트레이트	· 특급호텔 회의산업 확충 관심 - ASEM 유치 열기 한문
5. 4	사	· ASEM 유치위 본격 활동 - 재경 인사에 협조서한 발송
5. 4	가	· ASEM 유치 도민열망 반영해야
5. 5	스트레이트	· 컨벤션센터 건립 '확약' 시급 - 도의회 ASEM유치 간담회서 제기
5. 5	·	· ASEM 자문위 내일 첫 회의
5. 7	·	· ASEM 개최 후보지 선정 기준 오늘 발표

일 자	종 류	제 목
5. 7	스 케 치	· ASEM 유치표어 당선자 시상
5. 7	인 터 뷰	· ASEM 제주유치 표어 공모 당선자
5. 8	스트레이트	· 재원 자체조달에 우선권 - 정부, ASEM 개최지 선정기준 발표
5. 8.	기 획	· ASEM 개최지 선정 평가 기준
5. 8	해 설	· ASEM 개최지 선정과정 - 투명성 확보해야
5. 9	사 설	· ASEM 유치기준 충족 시켜야
5. 9	스트레이트	· ASEM 국제회의장 사후 활용위해 - 호텔,카지노 복합 건설
5. 10	'	· ASEM 유치 희망도시들 - 치열한 각축전
5. 11	스트레이트	· ASEM 개최지 제주-서울로 압축
5. 11	기 획	· ASEM 유치 서울-제주 장·단점 비교
5. 14	스트레이트	· 국제회의장 운영 타당성 '우선권'
5. 14	'	· 국제회의장 투자효율 관건
5. 15	스 케 치	· 미·일 관계자들 연일 '감탄' - 한, 미, 일 제주협의회와 제주 ASEM
5. 16	스트레이트	· ASEM 유치 공식 신청- 제주도 오늘 준비계획서 정부에 제출
5. 16	사 설	· 정부가 제주ASEM 지원해야 한다
5. 17	스트레이트	· 국제회의 연간 1천8백건 유치 -제주도 ASEM 신청
5. 17	'	· ASEM 후보도시 3곳 선정
5. 17	해 설	· ASEM 개최 '우리가 최적'
5. 17	기 획	· 제주도를 회의산업 중심지로 육성
5. 18	스트레이트	· ASEM 유치계획설명 - 제주, 부산, 경주, 경기, 대전,무역협회
5. 18	기 획	· 최고의 시설,서비스 다짐 - 제주ASEM 관광 숙박시설 이행계획 분석
5. 18	기 획	· ASEM 유치 경쟁률과 각 시도 유치 전략
5. 19	스트레이트	· ASEM 특별법 제정 - 정부검토 인·허가 간소화, 조세 금융지원

일 자	종 류	제 목
5. 21	해 설	· 자문위 : ASEM 이후에 주목 - 개최도시 최종결정 무 엇이 관건인가
5. 21	스트레이트	· 자문위 방문 당위성 강조 - ASEM 유치홍보 총력전
5. 22	스트레이트	· ASEM 후보지 선정 심사 - 실사 위주 방식 진행
5. 23	'	· ASEM 개최 예비도시, 제주-서울로 압축
5. 24	스트레이트	· 내주 ASEM 개최도시 결정 - 제주,서울,경주로 집약
5. 25	스트레이트	· ASEM 공사기간 단축 제주"최적"
5. 30	스트레이트	· ASEM 준비위 결정 수용 - 청와대 관계자
5. 31	스트레이트	· ASEM 개최지 추천 - 복수 점수제 방식 될 것
6. 1	스트레이트	· ASEM 개최도시 오는 4일 최종 결정- 건의안형식, 결 정방식 계속 논의
6. 4	'	· 2000년 ASEM 개최지 서울 확정
6. 4	해 설	· 국제회의장 건립계획 무산- ASEM 개최 무산이후 무 엇이 변하나
6. 4	해 설	· 고부가가치획득 전화위복 기회 - ASEM 자문위, 제주 국제회의 육성
6. 4	해 설	· 도민들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6. 4	사 설	· ASEM 서울 개최와 제주도
7. 25	스트레이트	· 컨벤션센터 건립 추진 - 신지사회건
8. 13	해 설	· 컨벤션센터 도민주 공모 개발 - 관광 중심축 역할 기대 (중립)
8. 14	사 설	· 컨벤션센터의 도민주 건립 (부정)
8. 16	스 케 치	· 컨벤션센터 도민 참여가 관건 - 도의회 전망 불투명하 나 원론적 공감
8. 23	스트레이트	· 중문 2단계 개발지역 분양시작 - 컨벤션센터 부지는 당 분간 유보
8. 23	기 고	· 지역개발과 컨벤션센터 (1) 양영철, 제주대학교 교수
8. 24	기 고	· 지역개발과 컨벤션센터 (2) 양영철, 제주대학교 교수

일 자	종 류	제 목
8. 28 8. 31	기 고 스 케 치	· 와이즈멘 제62차 세계대회에 다녀와서 - 문대탄 · 신지사, 제주시 의회 의원 간담회
9. 3 9. 4	스트레이트 가 섭	· 제주도의회 도정질의-컨벤션센터와 호텔, 다른 건물과 이 조화 · 도의회 - 컨벤션센터의 향후 수익사업 운영 전망은
10. 5 10. 5 10. 11	해 설 스트레이트 가 섭	· 컨벤션센터 시설 예산 삭감 배경- 도, 일방적 집행에 불만 표출 한 듯 · 컨벤션센터 - 설계 공모 공고료 삭감 · 도의회 이모저모 - 컨벤션센터 공고료 삭감 - 의원간 입씨름
10. 27 10. 27 10. 29 10. 30	스트레이트 기 고 사 설 기 고	· 컨벤션센터 건립계획 - 도, 주식매입 승인 요청 · 컨벤션센터 논의 위한 통계숫자 (1)- 문대탄 · 컨벤션센터 건립강행 실효 의문 (부정) · 컨벤션센터 논의위한 통계 숫자 (2) - 문대탄
11. 6 11. 8 11. 8 11. 9 11. 9 11. 10 11. 13 11. 14 11. 14	스트레이트 스트레이트 기 고 스트레이트 · 스트레이트 스트레이트 · · · 가 섭	· 컨벤션센터 2개안 - 한국관광연구원 용역 2천6년부터 이익배당학교 중앙도서관 · 컨벤션센터 승인,의결 - 도의회 재경위 · 컨벤션센터 공모주 투자 타당성 결여 -허균(주)씨케이 인터내셔널 이사 · 동북아 최고 리조트형으로 건립 - 용역보고서 주요 내 용 · 도민의 힘으로 컨벤션센터 건립 - 신지사 회견 · 도의회 정기회 - 컨벤션시설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 의 문 · 2010년 컨벤션 국내용 전략 - 한국관광연구원 용역- 74.4%가 내국인 · 컨벤션센터 수익성 있다 - 제주도 용역조사 설명회 · 도민주 공모방식의 대안 없나

일 자	종 류	제 목
11. 14	기 고	· 컨벤션센터 건립은 민간기업에게 - 오안인(백두사회 문 제상담소장)
11. 16	스트레이트	· 수익성 전망 너무 낙관적이다 - 도의회 신한국당 컨벤 션 공청회
11. 16	기 고	· 제주 컨벤션센터 타당성조사 타당한가 - 이지훈(제주범 도민회 대표)
11. 20	기 고	· 컨벤션센터 문제는, 구체적 방법론 - 장성철(제주 경실 련 사무국장)
11. 24	스트레이트	· 국제회의산업 장기전략 필요 - 21세기 관광산업과 제주 관광의 미래
11. 27	'	· 시민공감대 미흡한 예산 삭감 범위 어디까지 - 제주시 의회
11. 29	기 고	· 컨벤션센터 건립계획에 부쳐 - 윤대순(경기대 관광경영 과 교수)
12. 4	스트레이트	· 컨벤션센터 건립투자비 '지방채 발행 조달'
12. 4	'	· 도의회 97년 도예산안 심의 - 컨벤션센터 출자금 심의 최대 난제
12. 5	스 케 치	· 도의회, 컨벤션 건립방식 해법 '진통' - 도민주공모, 중 앙지원, 민간기업
12. 7	스트레이트	· 도의회 관광건설위 - 컨벤션 처리 초미 관심
12. 8	가 습	· 컨벤션센터 사업실태시 누가 책임지나 - 도의회 도정 질문
12. 10	스트레이트	· 도민주 공모, 수익성 자신 - 신지사 (컨벤션관련 도의 회 질문답변)
12. 10	'	· 컨벤션센터 유치 77.6% 공감 - 도조사 결과
12. 11	'	· 도의회, 컨벤션센터 예산승인 놓고 - 예결위 '찬, 반' 양론
12. 11	'	· 컨벤션센터 건립 설명회 - 13,17일 일본서 열려
12. 11	'	· 도의회, 컨벤션센터 예산 관광건설위 통과
12. 12	'	· 컨벤션센터 건립 시군 출자금 '핫 이슈'

일 자	종 류	제 목
12. 13.	스트레이트	· 제주시 의회 - 컨벤션센터 출자 거부
12. 13	가 쉽	· 제주시의회 - 자존 위한 컨벤션 건립 말도 안돼
12. 14	스트레이트	· 컨벤션센터 도민주 방식 결정도의회 예결위 투자예산 부분 삭감
12. 14	가 쉽	· 컨벤션센터 독단적 추진' 부분제동'
12. 14	스트레이트	· 서귀포시, 의회간 갈등 조짐
12. 15	'	· 서귀포시 의회 - 컨벤션 75억원 출연 결정
12. 15	해 설	· 제주시 의회 상임위 예산 심의 결산 - 컨벤션 출연금 삭감
12. 17	스트레이트	· 컨벤션센터 최종 승인 - 도의회
12. 17	해 설	· 새해 예산안 심의 무엇을 다루나 - 컨벤션 분담금 '뜨 거운 감자'
12. 19	스트레이트	· 북군의회 컨벤션 출자 통과 '안개속' - 의원들 찬반여부 표명 안해
12. 19	'	· 컨벤션센터 일본 설명회 - 17일 도쿄 호텔 파크 사이드
12. 20	'	· 북군의회 - 컨벤션센터 출자 통과 (3억원)
12. 20	'	· 제주시의회 - 컨벤션센터 예산 전액 삭감
12. 21	'	· 5천명 수용 컨벤션센터 건설 - 중문 단지 2단계사업 기 공식
12. 21	인 터 뷰	· 컨벤션 건립추진위 올 연말내 구성 방침 - 신구범 지사
12. 21	스 케 치	· 북군의회 - 심의따로,의결따로 : 컨벤션 사업에 대부분 부정적 발언
12. 22	낙 수	· 북군의회 - 컨벤션 원안 통과 , 뒷말만 무성
12. 28	스트레이트	· 컨벤션센터 건립 본격 가동 - 도, 추진본부 설치
12. 29	해 설	· 최대현안 '컨벤션'사업 대안 제시 소홀
12. 31	스트레이트	· 적금식 도민주 공무 추진 - 6백원 규모 컨벤션센터 건 립액

〈부록 : 표 2〉 1996년도 제민일보 ASEM 및 컨벤션관련 기사 목록

일 자	종 류	제 목
3. 23	스트레이트	· 국제회의 유치 법률제정 관심,회의도시 지정 기금지원 방안등 입법예고
3. 28	스트레이트	· ASEM 제주유치 박차 - 제주도
4. 2	인 터 뷰	· 제주에온 싱가포르·독일잡지「M」「TW」편집장
4. 3	스트레이트	· 제주 국제회의 유치실적 급증 - 95년
4. 15	인 터 뷰	· ASEM 제주유치위원장 - 김영옥
4. 19	독 자 투 고	· 외국인 맞는 자세 반성해보자 - 서귀포 오성휴
4. 23	가 습	· ASEM 제주유치 산넘어 산
4. 24	스트레이트	· 컨벤션센터 건립 최대 과제
4. 24	.	· 제주유치 본격 활동
4. 25	가 습	· ASEM 제주유치 역설
4. 26	스 케 치	· ASEM 제주유치 건의 의의 공동 보조키로
4. 26	사 설	· ASEM 제주유치 시간이 없다
4. 27	가 습	· 잠망경- 현재 입장은 융자인 듯
4. 29	인 터 뷰	· ASEM 제주 - 문체부 기획위원 김기병
5. 2	스트레이트	·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제주유치 청신호
5. 3	.	·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장소 이달말에 결정
5. 6	.	· 컨벤션센터 부지출자 약속- 한국관광공사
5. 8	해 설	· ASEM 유치기준 제주 최적
5. 9	.	· ASEM 준비위 입지선정 기준 제주가 최적지-시설투자, 운영여건(1)
5. 9	사 설	· 유치 기준대로라면 - 제주 최적지
5. 9	가 습	· 무공침- 제주유치 반신반의
5. 10	스트레이트	· 정부측 ASEM 개최지 선정 경제논리에 집착인상
5. 10	독 자 투 고	· 2000년 ASEM - 제주도청 정책조정계장
5. 11	사 설	· 개최지 선정에 균형감각을 - 경제논리만 내세우지 말자
5. 16	스트레이트	· 컨벤션센터 금호서 건립 - 제주도 ASEM 유치계획서에 첨부

일 자	종 류	제 목
5. 17	가	· 무공침- 선정배경 등에 대해 설명
5. 18	사	· 심사는 공정하게
5. 18	인	· 신지사-민간 자문위원간 질의 응답 요지
5. 23	해	· 대도시 교통 도외시한 발상 - 무역협회 ASEM 유치계획
5. 27	가	· 무공침 - ASEM을 제주로 유치 낙관
6. 4	해	· ASEM 서울 개최 수용하자
6. 5	가	· 날줄씨줄 - ASEM 제주유치 무산
6. 8	가	· 날줄씨줄 - 제주 영원한 변방- ASEM 제주유치에 따른 푸대접론
6. 22	스트레이트	· 제주 '국제회의 도시'로 육성- 김영삼 대통령
7. 24	스트레이트	· 제주지역 컨벤션센터 시설 민·관 공동 출자 추진
7. 25	가	· 무공침 - 새로운 역사 시작 알리는 사업
7. 25	사	· 컨벤션센터 우리 손으로
7. 29	스트레이트	· 컨벤션센터 · 관광호텔 건립투자 설명회 - 대판
8. 2	스트레이트	· 제주를 국내 1차적 컨벤션지역으로 - 「제주의세계화」학 술발표회
8. 12		· 컨벤션센터 본격 추진- 제주도안 제3섹터 방식 재원 조 달
8. 13		· 컨벤션센터 도민주등 제3섹터 도입 -도민주체 개발 시 협대
8. 27	기	· 컨벤션센터 흑자경영 가능하다 - 싱가포르
8. 29	스	· 도 컨벤션센터 건립 지원할 수 없다 - 제주시 의회
8. 30	트	· 컨벤션센터 건립 설명회 내달 10일부터 읍면동별
9. 4	스트레이트	· 도의회 제120회 임시회 질의 답변
9. 4	가	· 컨벤션센터 건립 '뜨거운감자' -도의회 임시회
9. 17	스트레이트	· 어제부터 컨벤션센터 주민설명회
10. 2	스트레이트	· 부대시설이 성공여부 좌우 - 도 컨벤션센터 건립 용역 전제

일 자	종 류	제 목
10. 5	스 케 치	· 도의회 임시회 이모저모 - 컨벤션센터 건립 추진 재동
10. 5	스트레이트	· 도의회 예산심의서 현상설계 공고료 삭감
10. 16	해 설	· 용역과업 지시서 밀실행정 표본-컨벤션 관련
10. 17	사 설	· 비밀행정은 불신만 부른다
10. 26	가 습	· 무공침 - 지방채 발행 요청등 발빠른 행보
10. 28	스트레이트	· 컨벤션 1백만주 통과될까
11. 1	가 습	· 무공침 - 도 역점 추진시책 집중교육 - 컨벤션센터 건립 홍보강화
11. 6	스트레이트	· 컨벤션 재원 확보 관건 - 용역 중간보고회
11. 7	스트레이트	· 컨벤션센터 심의 도의회 회의장 TV 중계도 불허
11. 7	가 습	· 무공침 - 아직 내부 조율단계 때문 비공개
11. 7	스 케 치	· 기자의눈 - 컨벤션센터 비공개 유감
11. 7	스트레이트	· 컨벤션센터 용역 도의회 중간 보고회 - 비공개
11. 8	스 케 치	· 지방정가 - 신한국당 컨벤션 관련 도민 공청회 열기로
11. 8	스트레이트	· 컨벤션센터 리조트형으로 개발
11. 8	·	· 컨벤션센터 논란끝 가결
11. 8	스 케 치	· 제주상공회의소 기자회견 - 컨벤션센터 치밀 추진을
11. 8	사 설	· 얻은 것 보다 잃은 것 많은 「비공개」
11. 9	사 설	· 장미빛만은 아니다 - 제주 컨벤션센터 무엇이 문제인가?
11. 9	인 터 뷰	· 신구범 지사
11. 9	가 습	· 주간잠망경 - 컨벤션용역 공개되자 실망
11. 11	해 설	· 제주 컨벤션센터 무엇이 문제인가?(2) - 재원확보
11. 12	해 설	· 제주 컨벤션센터 무엇이 문제인가?(3) - 운영주체
11. 13.	스트레이트	· 컨벤션 부대시설 활용이 관건 - 용역보고 기자회견
11. 13	가 습	· 무공침 - '혹자자신'에 일각선 '장미빛 환상'
11. 13	해 설	· 제주 컨벤션 무엇이 문제인가?(4) - 수익성 분석
11. 14	스트레이트	· 컨벤션센터 직항노선·노비자 확대필요 - 주민설명회
11. 14	가 습	· 무공침 - 신한국당 도의원들 자체 공청회 계획
11. 15	스트레이트	· 컨벤션 건립 용역보고 서귀포·남군지역 설명회

일 자	종 류	제 목
11. 16	스트레이트	· 도의회 신한국당 의원총회 주최 컨벤션센터 공청회
11. 18	가 섭	· 무공침 - 도민주 모임 낙관적 전망 내놔
11. 18	스트레이트	· 컨벤션 정기회 최대 이슈 될 듯 -11/20 정기회
11. 19	·	· 컨벤션센터·호텔 분리 추진
11. 21	스트레이트	· 컨벤션예산 시·군 난색
11. 26	·	· 도의회 - 관광건설위원회
11. 26	·	· 컨벤션센터 역시'쟁점' -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11. 26	·	· 컨벤션 서울 설명회
11. 26	스 케 치	· 사업비 분담 시·군 가랭이 찢어진다
11. 26	가 섭	· 무공침 - 재외도민 공감대 형성에 총력
11. 27	스트레이트	· 서울 컨벤션 설명회 열려
11. 28	스 케 치	· 서울 컨벤션 설명회 스케치
11. 30	·	· 날줄씨줄 - 컨벤션시티
11. 30	기획·연재	· 동남아 컨벤션(상) - 싱가포르 편
12. 3	스트레이트	· 컨벤션 예결위 통과 혼비
12. 4	스트레이트	· 컨벤션 건립방침 입지 및 자본조달 검증 필요 - 제주상공회의소
12. 4	기획연재	· 현지 취재 태국편 - 컨시리키트 내설될 컨벤션센터
12. 4	스 케 치	· 서귀포시 의회 이모저모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12. 9	·	· 통과냐 삭감이나 예산심의 파란예고
12. 9	스트레이트	· 도의회 도정질의 - 5차 본회의
12. 9	·	· 예산안 심의 난항 - 제주시 의회
12. 10	·	· 컨벤션·감귤문제 집중- 도의회 도정질의
12. 10	해 설	· 컨벤션관련 도민의식조사 결과 분석 비판
12. 10	스트레이트	· 컨벤션센터 서귀포시지원회 창립
12. 10	가 섭	· 사회단체 대표들 반발 - 「신지사 돌출발언」일부분
12. 10	스트레이트	· 컨벤션센터 건립 여론조사 결과
12. 10	·	· 컨벤션 1차관문 통과 예산 11억6천만원 삭감 - 도의회
12. 10	스 케 치	· 날줄씨줄 - 컨벤션 주식공모 부정적 견해

일 자	종 류	제 목
12. 11	스 케 치	· 도의회 예결위 이모저모
12. 11	스트레이트	· 광역사업에 시·군 '울상' - 컨벤션센터 '97년도 예산
12. 11	·	· 컨벤션 일본 설명회
12. 12	스 케 치	· 무공침 - 밖에서 얻고 안에서 잃는꼴
12. 12	가 쉽	· 제주도의회 도정 질의 요지
12. 12	스트레이트	· 컨벤션건립 제주시의회서 제동
12. 12	·	· 신지사, 대판서 민단간부들과 컨벤션 간담회
12. 13	·	· 제주시의회 컨벤션 출자 부결
12. 13	·	· 컨벤션 예산 삭감 승인 가능
12. 13	스트레이트	· 관서 제주도민협 신규범지사 일행 초청 환영간담회
12. 14	기 획 연 재	· 현지취재 동남아 컨벤션(2) - 싱가포르 편
12. 14	스 케 치	· 제주도의회 예산심사 이모저모 - 부분통과로 반전
12. 14	사 설	· 여전히 도민합의가 중요하다 - 공감대 필요
12. 14	스트레이트	· 컨벤션건립 도의회 통과
12. 17	·	· 제주시의회 예산심사 이모저모
12. 17	스 케 치	· 무공침 - 도의회 본회의장 한동안 어수선- 박희수 의원 발언
12. 17	가 쉽	· 무공침 - 미국행 포기 컨벤션센터에 총력 - 김태환 행정부지사
12. 17	스트레이트	· 서귀포시 컨벤션 내년(97년) 출자금 15억원 가결
12. 17	·	· 내년도 제주도예산 4천6백55억원 확정- 컨벤션 사업비 80억원 책정
12. 18	가 쉽	· 무공침 - 컨벤션관련 「맨투맨」로비 주목
12. 1 9	스트레이트	· 컨벤션설립 동경 설명회 성황
12. 19	·	· 시·군의회 컨벤션 출자 향방 관심
12. 19	가 쉽	· 무공침 - 현지 설명회 대성황에 고무
12. 20	스 케 치	· 북군의회 예산심사 이모저모- 컨벤션 출연놓고 어정쩡
12. 20	스트레이트	· 컨벤션 도민주 주식회사로 설립
12. 21	스트레이트	· 북군의회도 컨벤션 출자 논란
12. 21	사 설	· 컨벤션센터 출범과 과제

일 자	종 류	제 목
12. 21	스트레이트	· 컨벤션 3억 출자 의결 - 남제주군 의회 예결특위
12. 21	가 섭	· 무공침 - 그간의 불편한 심기를 노정
12. 23	해 설	· 전문인력 육성, 국제회의 유치
12. 23	가 섭	· 무공침 - 컨벤션 예산 북군의회 통과 뒷말
12. 27	스트레이트	· 컨벤션건립 추진본부구성 - 본부장에 강지순 전부지사
12. 30	·	· 컨벤션센터 건립 추진 - 본격화
12. 28	인 터 뷰	· 제주도 컨벤션센터 건립추진 본부장 - 강지순씨
12. 30	좌 답	· '96 한해를 보내며 - 취재기자 방담
12. 31	기 획 연 재	· 새해 도정 역점 시책
12. 31	·	· 세계의 컨벤션센터 -굴뚝없는 산업, 세계가 뚝다

〈부록 : 표 3〉 1996년도 한라일보 ASEM 및 컨벤션관련 기사 목록

일 자	종 류	제 목
4. 11	스트레이트	· ASEM 제주유치 본격화 - 범도민 유치위 구성
4. 13	스트레이트	· 요인경호 경찰인력 확충시급 - ASEM 유치시 수요크 게 늘어
4. 13	인 터 뷰	· ASEM 유치 범도민기구 설립 - 현경대 당선자
4. 15	스트레이트	· ASEM 유치 본격 활동 - 유치위 발족
4. 15	해 설	· ASEM 제주유치 기대서 믿음으로
4. 16	스트레이트	· 외신기자 ASEM 최적지 제주
4. 16	'	· 한미 정상회담 성공적 개최 - ASEM 제주유치 강력 희망
4. 16	인 터 뷰	· ASEM 제주개최 손색 없다 - 한미회담 취재차온 브라 운 로이터 기자
4. 16	사 설	· ASEM 유치를 바라며
4. 18	해 설	· ASEM 제주유치 낙관속 - 해결과제도 많아
4. 19	스트레이트	· 제주정상회담 ASEM 유치 도움
4. 22	'	· ASEM 특별법 제정 - 신한국당 검토
4. 25	가 습	· ASEM 유치 제주시정 홍보
4. 26	스트레이트	· ASEM 제주유치 한 목소리
4. 26	'	· 경관고도제한 대폭 완화를 - 서귀포시 ASEM 유치 기 반시설 마련위해
4. 26	인 터 뷰	· ASEM 유치 제주가 최적지 - 박찬중씨 내도 회견
4. 30	해 설	· ASEM 제주 유치 설왕설래
5. 2	스트레이트	· ASEM 제주유치 건의 - 신지사,김대통령에게
5. 3	'	· 민자 컨벤션센터 건리비 -ASEM 제주유치 관건
5. 6	'	· 아셈개최 제주가 최적지 - 중앙공무원 교육원 후보지 놓고
5. 9	기 획	· 컨벤션산업 - 일본
5. 10	해 설	· 결정 앞둔 ASEM 개최 후보지 - 정략적 이용 안된다
5. 10	가 습	· ASEM 유치위해 도,의회 공동 노력

일 자	종 류	제 목
5. 14	스트레이트	· ASEM 컨벤션센터 삼성그룹 신청
5. 16	'	· ASEM 제주유치 오늘 신청
5. 17	기 획	· ASEM 을 제주에서 - (1) 제주지역 개최 당위성
5. 17	사 설	· 제주 ASEM의 당위성
5. 18	기 획	· 제주와 경주로 압축 - ASEM 개최지 선정
5. 20	사 설	· ASEM은 제주에서
5. 20	기 획	· ASEM 제주에서 -(2) 컨벤션센터
5. 21	기 획	· ASEM 제주에서 -(3) 숙박시설
5. 22	스트레이트	· ASEM 제주유치 정부일각서 편향적 시각
5. 23	기 획	· ASEM 제주에서 - (4) 공항능력
5. 23	스트레이트	· 금호건설 자금 동원력 문제없어 - 컨소시엄 구성도 가능
5. 24	기 고	· ASEM 이후 컨벤션시설 활용방안 - 문태훈 한라전문대교수
5. 24	기 획	· ASEM 제주에서 - (5) 교통여건
5. 25	'	· ASEM 제주에서 - (6) 국제회의 경험과 자연문화환경
5. 28	스트레이트	· 초읽기에 들어간 ASEM 유치장소 - 제주냐 서울이냐
5. 30	'	· 개최지 6월초 결정 - ASEM 자문위 3일, 4차회의
5. 30	가 쉽	· 도, 무역협회 구회장, ASEM 유치 로비설로 긴장
5. 31	스트레이트	· ASEM 개최지 오는 4일 선정 - 제주,서울,부산,경주 경합
6. 4	해 설	· 물건너간 ASEM 제주유치 - 아쉬움속 전화위복 계기
6. 4	인 터 뷰	· 보내준 도민성원 감사 - 신지사
6. 7	해 설	· 제주 컨벤션도시 육성 - 지정만 하면 다되나
6. 22	스트레이트	· 국제회의도시로 제주 육성 - 김대통령
6. 24	사 설	· 제주의 회의산업과 김대통령의 약속
7. 27	스트레이트	· 컨벤션도시 지정만 하면 뭐하나 - 지원이 안되는데
7. 29	사 설	· 컨벤션 - 정부지원 있어야 한다
8. 12	스트레이트	· 주식회사 제주컨벤션 - 도, 설립계획 마련
8. 13	해 설	· 컨벤션센터, 도민자본으로 가능할까

일 자	종 류	제 목
8. 17	가 섭	· 컨벤션센터 설립방식 재검토를 - 상공인들 신지사와 간담회서 제기
8. 23	스트레이트	· 중문단지 2단계 개발박차 - 컨벤션센터 부지는 당분간 유보
9. 3 9. 17 9. 18	스트레이트 · 사 설	· 신지사- 도의회 도정 질문답변 , 컨벤션센터 구체안 제시할 것 · 컨벤션 대 주민 설명회 - 공감대 도출 의문시 · 컨벤션센터 설명회 (부정)
10. 5 10. 10 10. 11 10. 26	스트레이트 · · ·	· 컨벤션센터 건립 첫 제등 - 도의회, 관련예산 삭감 · 도의회, 컨벤션센터 집중 추궁 · 도의회, 컨벤션센터 관련예산 또 삭감 · 도정 쟁점 현안 많다- 도의회 임시회 28일 개최 , 컨벤션 센터 등
11. 1 11. 6 11. 8 11. 8 11. 9 11. 13 11. 13 11. 14 11. 14 11. 14 11. 15 11. 15 11. 15 11. 15	스트레이트 · · · · · · 기 획 연 재 스트레이트 방 답 기 획 연 재 스트레이트 기 획 연 재 가 섭 스트레이트	· 국제회의 대부분 소규모 · 경영성 분석 공방 - 어제, 컨벤션 용역 중간 보고회 · 컨벤션 주식 출자 원안 가결 - 도서 요구한 1백억원 규모 ,도의회 · 컨벤션,호텔 동시 건립 - 신지사 회견 · 컨벤션건립 도민 설득이 관건 · 컨벤션 주민 설명회 - 오늘부터 공감대 확산 귀추 주목 · 컨벤션 이것이 궁금하다 -(1) 개념 및 기능 · 15일 개최 신한국당 컨벤션 공청회 · 컨벤션 용역 주민 설명회 - 지상중계 · 컨벤션 이것이 궁금하다 -(2) 입지유형 · '컨벤션' 수익성 재분석 필요 - 주민설명회,일부 단체서 잇따라 제기 · 컨벤션 이것이 궁금하다 - 미국의 운영실태 (상) · 컨벤션 설명회 의견수렴 뒷전, 필요성만 역설 · 컨벤션센터 주민 설명회 - 서귀포, 남제주 수익성여부등 관심

일 자	종 류	제 목
11. 19	스트레이트	· 도, 컨벤션, 먹는샘물 운영방법 고심 - 직영이나 위탁이나
11. 26	기 고	· 대규모 컨벤션센터 설립위해 - 1백만 내외 제주인 힘모아야 (강성후)
11. 26	가 쉽	· 집행부 대 의회 컨벤션 로비 있었다
11. 26	·	· 도의회 행정감사 4일째 - 무리한 컨벤션 추진 차기 선거전략이나
11. 26	스 케 치	· 부실한 컨벤션센터 용역
11. 27	스트레이트	· 리조트형으로 타국과 차별화 - 서울 컨벤션센터 건립계획 설명회
11. 28	스 케 치	· 행정감사 의원들 무엇을 지적했나
11. 29	스트레이트	· 서울,부산지역 컨벤션 설명회 - 일방적 설명으로 끝나 '빈축'
11. 30	방 답	· 결산 도의회(관광위)- 컨벤션 종합계획 외곽때리기 종료
12. 2	스트레이트	· 컨벤션센터 건립방법등 문제있다
12. 4	·	· 컨벤션 건립 원칙 동의 - 제주상의 공식입장, 도의회에 전달
12. 4	·	· 컨벤션 건립방안 재고 하라 - 도의회
12. 4	스 케 치	· 컨벤션 역시 문제는 도민 공감대
12. 4	스트레이트	· 컨벤션센터 건립 부담금 시.의회 갈등
12. 4	가 쉽	· 컨벤션센터 출연금 과다 책정 추궁 - 서귀포시 의회
12. 6	기 획	· 동남아시아 컨벤션센터 운영실태 (3) 싱가포르
12. 7	인 터 뷰	· 컨벤션 민자유치 건립을 - 경실련 기자회견
12. 10	기 획	· 동남아시아 컨벤션센터 운영실태 (4) 싱가포르 세계무역센터
12. 10	스트레이트	· 컨벤션센터 수익성 있어 도민주로 건립 - 신지사
12. 10	·	· 컨벤션 예산 공방 예상 - 도의회
12. 10	가 쉽	· 컨벤션센터 - 정치논리 배제를
12. 10	기 획	· 동남아시아 컨벤션센터 운영 실태 (결론)
12. 10	스트레이트	· 도 컨벤션 여론조사 - 신뢰성 의문
12. 11	·	· 컨벤션센터 건립위해 범도민기구 결성키로 - 제주도

일 자	종 류	제 목
12. 11	스 케 치	· 컨벤션 건립, 호텔과 병행 추진해야 - 도의회
12. 11	스트레이트	· 컨벤션센터 예산 찬반 팽팽 · 컨벤션 출자 제동 움직임 - 제주시 의회
12. 12	·	· 컨벤션 출자 거부 - 제주시 의회
12. 13	·	· 컨벤션 출자금 놓고 공방 - 제주시 의회
12. 13	가 섭	· 재정 열악한데 컨벤션 지원은 무리 - 남제주군 의회
12. 13	스 케 치	· 컨벤션 건립 찬반 팽팽 - 예산부분 삭감 의견 모아 질듯
12. 13	스트레이트	· 컨벤션 예산 20억 삭감 - 제주도 의회
12. 14	·	· 컨벤션 도의회 예결위 통과 까지
12. 14	가 섭	· 컨벤션 도민의식조사 문제점 분석 (상) - 김대호, 리서
12. 17	기 고	치제주조사 연구소
12. 18	스 케 치	· 컨벤션 증액 출연에 '압력받았다' - 남제주군 의회
12. 19	기 고	· 컨벤션 도민의식조사 문제점 분석(하) - 김대호, 리서 치 제주조사연구소
12. 19	스트레이트	· 컨벤션 출연 하룻만에 선회 - 북제주군 의회
12. 19	·	· 컨벤션 예산지원 못한다 - 제주시의회, 예결특위서 제도 · 중문단지 명실상부한 국제적 명소될 것 - 김태연, 한국
12. 21	인 터 뷰	관광공사 사장 학교 중앙도서관
12. 27	기 고	· 컨벤션 도민의식조사 문제점 분석에 대한 반론 - 안병
12. 27	스트레이트	도 21C 리서치 · 컨벤션 건립추진본부 발족 - 민.관 합동으로
12. 28	방 답	· 컨벤션 등 도정현안 점검 기회
12. 28	인 터 뷰	· 컨벤션 추진본부장 - 강지순

<부록 : 표 4>제주도내 일간지 ASEM 및 컨벤션 관련 해설 및 시설 월별 보도 내용

(1)제주신문

월	내 용	반 응
3월		
4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1세기 진주, ASEM 개최지로 · ASEM 제주에서 개최해야 하는 이유 · ASEM 개최지 제주여야 한다 	긍정 긍정 긍정
5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SEM 개최지 선정, 정치색 없기를 · ASEM 제주유치 어떻게 돼나 · ASEM 유치 도민열망 반영해야 · ASEM 개최지 선정과정 - 투명성 확보해야 · ASEM 유치기준 충족시켜야 · 정부가 제주 ASEM 지원해야 한다 · ASEM 개최'우리가 최적' · 개최도시 최종 결정 무엇이 관건 인가 	긍정 긍정 긍정 긍정 긍정 긍정 긍정
6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SEM 개최 무산이후 무엇이 변하나 · 고부가가치 획득 - 전화위복 기회 · 도민들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 ASEM 서울 개최와 제주도 	중립 중립 중립 중립
7월		
8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컨벤션 도민주 공모개발 · 컨벤션 도민주 건립 	중립 부정
9월		
10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컨벤션 시설 예산 삭감 배경 · 컨벤션 건립 강행 실효 의문 	부정 부정
11월		
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시의회 컨벤션 출연금 삭감 · 컨벤션 부담금 뜨거운 감자 · 최대현안 '컨벤션사업' 대안제시 소홀 	부정 부정 부정

(2)제민일보

월	내 용	반 응
3월		
4월	· ASEM 유치 시간이 없다	긍정
5월	· ASEM 유치기준 제주 최적 (4건) · 개최지 선정에 균형감각을 · 심사는 공정하게 · 대도시 교통 도외시한 발상	긍정 긍정 긍정 긍정
6월	· ASEM 서울 개최 수용하자	중립
7월	· 컨벤션센터 우리 손으로	긍정
8월		
9월		
10월	· 용역과업 지시서 밀실행정 표본 · 비밀행정은 불신만 부른다	부정 부정
11월	· 장미빛 만은 아니다 · 얻은 것 보다 잃은 것 많은 비공개 · 제주 컨벤션 무엇이 문제인가(3건) - 재원, 수익성, 운영주체	부정 부정 부정
12월	· 컨벤션 관련 의식조사 결과 · 여전히 도민합의가 중요하다 · 컨벤션센터 출범과 과제	부정 부정 부정

(3) 한라일보

월	내 용	반 응
3월		
4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SEM 유치 기대서 믿음으로 · ASEM 유치를 바라며 · ASEM 제주유치 낙관속 - 해결과제도 많아 · ASEM 제주유치 설왕설래 	긍정 긍정 긍정 긍정
5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정앞둔 ASEM 개최 후보지 - 정략적 이용 안된다 · 제주 ASEM의 당위성 · ASEM은 제주에서 	긍정 긍정 긍정
6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건너간 ASEM 제주유치 · 제주 컨벤션도시 육성 - 지정만하면 다되나 · 제주의 회의산업과 김대통령의 약속 	중립 중립 중립
7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컨벤션 - 정부지원 있어야 한다 	중립
8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컨벤션센터 도민자본으로 가능할까 	부정
9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컨벤션센터 설명회 	부정
10월		
11월		
12월		